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기 2541년 새해가 밝았다. 새희망을 꿈꾸며 21세기로 진입하는 문턱에 선 우리는 동시에 세기말적 징후들을 우려하며 살고 있다. 도덕성의 타락과 양심의 실종은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12월에 치러질 대선, 경기 침체, 북한 주민의 식량난 등 국내외의 난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게된 업장을 녹이는 참회로부터 출발하자. 본지는 '참회의 삶을 살자'를 연중캠페인으로 전개한다. 참회진언으로 새아침을 열자.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편집자 주〉

참회하면 지혜의 태양 떠올라

능히 과실을 스스로 고치는 사람은 과실이 없는 것과 같다. 〈채화위왕경〉

저지른 악업이 있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해서 앞서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비록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별선악보응경〉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여 다시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도록 할 일이다. 〈열반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날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뉘우침도 선심(善心)이다. 〈존파수밀경〉

만약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자책하고 참회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능히 근본업(根本業)을 뿌리 뽑아 버릴 수 있다. 〈업보차별경〉

온갖 업장의 바다는 다 망상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참회코자 하면 단정히 앉아 실상을 염해야 한다. 온갖 죄악은 서리나 이슬과 같으니,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녹아 없어지게 되어 있다. 〈관음현경〉

참회는 능히 번뇌의 섶나무를 태우며, 능히 천도에 가게 하며, 사선락(四善樂)을 얻게 하며, 보리니주를 비오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늘려주며, 영원한 즐거움의 궁궐에 들어가게 하며, 삼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보리의 꽃을 피어나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의 거울을 얻게 하며, 보배 있는 장소에 이르게 한다. 〈심자관경〉

스스로 계를 범한 줄 알았을 때는 곧 스스로 참회해야 한다. 〈사분율〉

만약 악을 지었을 때는 항상 근심하여 뉘우치고 자책해야 한다. 〈말중유정법경〉

관련기사 3 · 15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의 아낌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정축년 새아침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합장



임진강 건너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녘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린 것으로 폐백을 대신한 박씨부부와 법타스님이 임진강 건너 개성 쪽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얼굴 모르는 시부모님 언제 뵈올지…"

북녘하늘 바라보며 통일발원

귀순불자 박수현씨부부 오두산 통일전망대서 폐백

"어머님 아버님, 못때아들 수현이가 오늘 참한 색시 얻어 장가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부모님을 언제 뵈올지… 어서 통일의 날이 오기를 부처님께 두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구랍 25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녘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폐백을 대신한 귀순불자 박수현씨(31 · 경희대 의대 본과 2년)와 신부 고순덕씨(29). 이자리에는 박씨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법타스님(은해사 주지)과 귀순불자 동료 김명철씨 등이 자리는 가슴으로 뜨겁히 지켜보고 있었다. '북남남녀' 새출발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축복과 분단의 아픔이 교차하는 화혼식이 치러진 것이다.

이날의 주인공은 지난 93년 10월 자유를 찾아 월남한 박수현씨와 신부 고순덕씨. 함경북도 주을 출생인 박씨는 경성대 의대에 다니다 동생이 남의 집 식탁을 훔치다 발각돼 학교에서 쫓겨난 후 월남했으며, 남한에 온 이후 경희대 한의과대에 입학해 의학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귀순불자들의 모임인 남순지장회 회원들과 소개로 만나 박씨의 학교캠퍼스와 통일전망대 등 서울근교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가꿔왔다.

신랑쪽 부모님과 친척들은 물론 참석하지 못했다. 주례도 없었다. 이날 결혼식에서 주례를 모시지 않은 이유는 박씨의 요청 때문. 단신 월남해 결혼식까지 치루게 됐으나 정작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못내 불효라고 생각해 조금은 모자란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는 박씨의 생각 때문이었다. 결혼식은 신부 어머니 정상춘여사의 촛불점등과 신랑 신부 입장, 맞절, 선물교환, 케익절단, 혼인서약의 순서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신혼여행 또한 흔한 해외여행을 택하지 않고 박씨가 살아온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남녘땅 곳곳을 돌아보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식에는 남순지장회 회원 20여명과 박씨의 학교 교수와 동료 등 2백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뜰른 귀순 이후 박씨를 돌봐온 법타스님도 참석했다.

법타스님은 박씨의 부모님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목숨을 걸고 귀순해 우리들에게 자유의 고귀함을 확인케해 준 박군이 이제 사랑까지 얻게 되었다"고 축하하고 "이들 부부는 우리 모두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다"며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식을 마친 후 폐백장소로 택해 곧바로 달려간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 건너 희미하게 보이는 북녘하늘을 응시하며 하고 싶은 말을 가슴 속에 품었다. 〈파주=정성운 기자〉

태고종 종단차원 '탑사철거' 해결나서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구랍 23일 총무원 3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 · 도 종무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진안군청의 마이산 탑사 철거지시와 관련하여 종단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은 진안군의 마이산 탑사 행정명령건이 정치성이 개입된 군수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고 가까운 시일내 마이산 탑사의 실상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가야산에 희귀 동 · 식물 자생

국립중앙과학관 생태계 학술조사 결과

해인골프장 건설로 물의를 빚고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생태계 학술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있다. 이번 조사결과 가야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검정무늬가슴밀빠진벌레(신칭)와 더듬이혹뿔의병벌레(신칭)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삭송이풀, 매발톱나무, 난쟁이바위솔, 구름병아리난초 등 희귀식물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희렬)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가야산국립공원 일대 생태계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류 1천11종, 식물류 1천1백47종 등 모두 2천1백58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곤충류는 이 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84종을 포함 9백2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환경부지정 희귀 곤충류 중 이 지역에서 서식 기록이 있던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우단하늘소, 반날개하늘소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어류는 가야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황강수계와 회천수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지정 보호 어류인 흰수마자, 꼬치동자개, 새고미꾸리 등 17종의 특산어종을 포함 모두 4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조류는 4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물류는 이번 조사에서 81종이 새로 발견됐다. 그리고 상록활엽수가 관찰되지 않아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부형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이 실시하는 생태계 학술조사는 96년 태안국립공원 조사에 이어 2번째다. 〈대구=이윤호 기자〉

'한미불교방송' 승인

btn이사회 예산91억 '통과'

불교TV는 구랍 23일 이사회를 열고 97년 예산 91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 불교TV 지사 '한미불교 방송' 설립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등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미불교방송은 LA케이블TV 채널38을 임차, 일주일에 1회 30분의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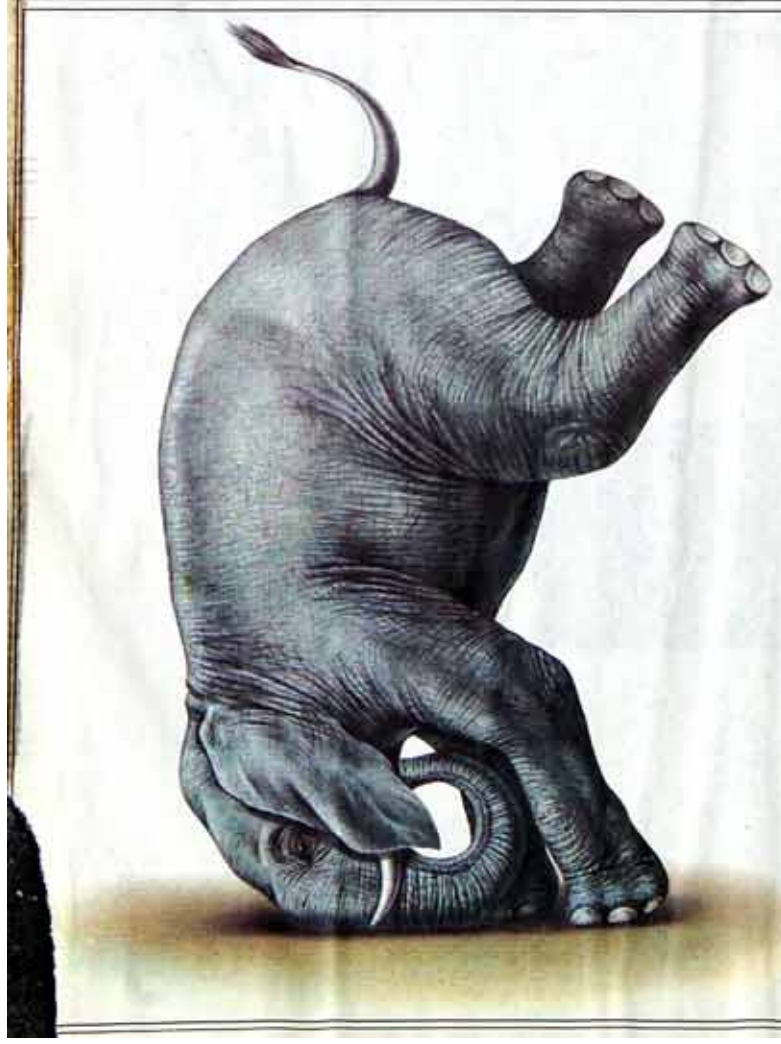
또 불교TV는 이번 이사회에서 재정난 해소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국 신설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97 신년특집 28면 발행

참회의 삶을 살자	3면	고은 신 심우도송	17면
산문밖의 선—한병삼씨	5면	정치인에게 주는 큰스님 한 말씀	18면
직장 · 직능법회 신행현황	6면	문화유산의 해 '프롤로그'	19면
큰스님 수행한담—동산스님	7면	'전법의 해'에 바란다	21면
정보화 사회와 불교	8 · 9면	새연재—만화 백유경	25면
13년간 매일 3천배 보살	15면	금강산 최남단 화암사가다	28면

신행수기 당선자 발표 23면

110호 15일字 발행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계전반, 옹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처설비, 환경보전설비, 회학장치, 삭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화합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설계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신년사

참회하는 삶을 살자

조선 봉건시대, 일제 식민지, 군사 통치 등에서 생긴 악폐에 관한 청산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리는 허울 좋은 문민정부의 이름아래 지역 차별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통일은 오랜 문화 전통의 기반위에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성과 문화적 관심은 결여된채 오직 경제 성장만을 근대화와 통일의 길로 오해해 왔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다면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한국의 재벌이 프랑스의 대기업 톰슨을 인수하려 하자 프랑스 국민들은 '졸부의 나라, 범죄적인 기업…' 등을 이유로 아우성이었다. 일본은 틈만 있으면 한국인에 대한 멸시를 공공연히 늘어놓고 심지어 같은 핏줄을 나눈 중국의 한국 교포들도 우리를 '날강도 같은 족속'이라고 매도한다.

우리의 취약성·추악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반성을 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신의 약점과 추악함을 알아야만 그 약점들을 딛고 더 강해지고 발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지금의 추악한 꼴과 오염 투성이의 환경이 다음 세대의 원망이나 냉소적인 '자학'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당장에 내성(內省)의 채찍질을 서둘러야 한다.

원래 약점과 강점은 서로 새끼줄처럼 얽혀 있다. 아무리 강점일지라도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는 곧 약점이 될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원형은 비록 역기능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승화할 수가 있다. 이것은 자학과는 거리가 먼, 아니 자학의 소지를 찾아내어 말끔히 씻기 위한 민족 차원의 정신 개척 작업인 것이다.

다 알다시피 소련은 15개, 유고슬라비아는 5개로 분할되는 등, 복수의 민족을 갖는 복합국가는 민족마다 독립을 시도하고 있고, 억지로 분할된 여러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통일이 되었다. 국제화와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되어 세계적인 규모로 격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조선왕조는 가문 중심의 세도 정치로 국민국가의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좌절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 20세기말 우리는 국민국가와 국제화라는 두가지의 과업을 완성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과업은 아무리 국제화가 진행되어도 민족과 국민국가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오히려 민족은 하나가 되어 스스로의 번영과 문화 향상의 기반 위에 국제무대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온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한 참회가 아닌 구체적 결의와 실천 방안을 세우자. 국민국가의 지도자는 한낱 지역이나 가문을 위한 존재가 아니며, 7000만 민족의 운명을 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닌다. 따라서 강한 책무 의식(Noblesse Oblige),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정치지도자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오랜 식민지 통치로 시달렸던 흑백대립의 남아공화국도 만델라 수상의 영도 아래 국력의 향상과 함께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는 한국이 혼탁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제의 기반은 선거에 있는데 해방 이후 이제껏 치러온 대선 전략은 거의가 지역 차별과 관제 공산당 만들기, 북한 위협의 악용에만 있었다. 선진국은 선거를 정정당당하게 치름으로써 선거 후 민족이 더욱 강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건국 50년, 선거를 치룰때 마다 국민간에 분열만 조장해 왔다.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의식으로 파벌을 만들고 먼 민족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사소한 이익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더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매우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 고려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 계기가된 복식 부기를 이탈리아 베니스의 상인들과는 독립적으로 개성상인들이 스스로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이라는 이름으로 발명하였다.

특히 한글의 발명은 한국인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인류사적인 발명품이다. 또 한때 장고보는 동북 아시아에서 해상권을 장악하여 일본·중국의 중간 지역으로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우위를 입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슬기와 패기는 고루한 자기중심적 문화·정치 의식에 의해 억압되어 우리는 인류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었다. 우리의 미래 개척은 이러한 민족적 약점과 강점을 여하히 극복 내지 발전시켜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97년이 밝아오는 이 싯점에서 감히 제안하려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좀더 대승적 차원에서 참회하는 삶을 영위해보자는 것이다.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21세기는 또 그렇고 그런 세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요 종단 종정 새해 법어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올 해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부유한 이들은 나눔의 즐거움이 곧 자기의 행복임을 깨닫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바에 모든 중생이 서로간의 신뢰와 따스한 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듦에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

"동고동락하는 건강한 사회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익의 고른 분배로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며 고통을 나누어 가짐으로 질곡 속의 사람들에게 자비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 땅을 기는 벌레까지도 그 염원이 사무쳐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한 몸의 편안함으로 절망속에 신음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나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독선적인 생각에서 빚어지는 자연에 대한 소홀한 인식도 올해에는 불식해야 합니다.

일체 유정 무정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존의 숭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부생이 꿈이어늘 공명을 논 할 소냐
흥진의 만반사가 모두 다 그러하다
두어라 꿈 속의 꿈얘기를 말하여 무엇하리

"상식 통하는 곳에 부처님 뜻 있어"

태고종 종정 보성 스님



雪裡梅香春 美牛抱犢眠
(설리매향춘 미우포아면)
莫問祖師意 平常心是佛
(막문조사의 평상심시불)

매화는 차가운 눈속에 향기를 품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도다.

수행자는 모진 고행 끝에 정의로운 도(道)를 얻어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정축년은 미우(美牛)의 신년이니 우(牛)양이 되고 아이는 97년의 문제(역사)를 말하니 이 아이는 분명 선동(善童)이 아니면 악동(惡童)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인 것이다.

조사의(祖師意)는 높은 진리 또는 깊은 법리(法理)를 말한다.

그러나 상식(常識)이 통하는 곳에 부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평상심(平常心)이 부처라 하겠다.

"용서·화해 통한 국민 대화합 기대"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밝아오는 정축년(丁丑年)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마다에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여 이 나라 오천년 민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영광의 '97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끗한 도덕의 실천으로 이땅에 살생과 모든 범죄가 일소되고 용서와 화해로써 계층간·지역간·노사간의 모든 분야에 대화합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남북이 함께 발전하여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의 언행과 마음을 다듬고 가꾸어 스스로 성숙된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집 경계 허물고 청정 불성 찾자"

진각종 총인 각해 정사



정축년 새날을 맞으니, 온 세상이 눈부신 불국토로 다가옵니다. 이 새날의 감동을 가슴 벅차게 간직하는 중생들은 서둘러 탐진치 삼독을 털어내고 몸과 입과 뜻을 정화하니 이 곳이 바로 정토요, 이 몸이 곧 부처입니다.

새해는 우리를 둘러싼 아집과 이기주의의 경계를 허물고 둥글고 화해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부터 허물을 참회해야 합니다.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알 때, 더불어 사는 지혜가 열리고, 사바도 복덕 지혜 구족한 불보살의 세상이 됩니다.

불법(佛法)의 대해(大海)에 큰 파도일어서니/심인정법(心印正法) 꽃피운/진각(眞覺) 성상 50년!/정축년 새해에 대법기(大法器)를 더 높이니/지혜광명 상서를고 자비덕성 가없네

관음종 종정 대천 스님



"만방에 기쁨과 환희 넘치길"

정축년 첫날, 동방에서 해 뜨니,
북스러운 기운 만방에 두루하여 모두가 환희롭다.
쥐해에 졌던 짐, 소가 바꿔지니 가벼워서 천리를 간다
만 사람이 함께 큰소리치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구나.

이 시절 인연따라 국민 뜻이 화합하여 통일민족 소원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처님의 보살핌과 관세음의 힘으로
부처님의 아들 딸 모두는 편안함을 얻었구나.

법륜종 종정 일화 스님



"백성 편안하고 국가부강 기원"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게되니 너나없이 모두 평등하게 행복하시라. 우리 불자들은 탐진치 삼독(三毒)을 끊어버리고 계정혜 삼학(三學)을 돈독히 수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마지 않는다.

가는 해 병자년은 자취를 감추고
붉은 소(정축년)는 튼튼한 쇠배를 멍에 했다네.

날씨는 따사롭고 시절은 더욱더 경하(慶賀)로우니
백성들은 편안하고 행복하며 국가는 더욱 부강하고 태평하시라.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자기 괴롭히지 않고 남 이롭게"

훌륭하게 말하는 법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로, 모든 시시비비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행동은 훌륭하게 사는 법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고, 수행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산다면 바로 훌륭하게 사는 법입니다.

새해에는 삼적동자도 다 아는 훌륭하게 말하고 훌륭하게 사는 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모두가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이 땅을 정토로 가꿉시다.

"큰서원 세워 뭇중생 제도하자"

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마음이 본래 신령하고 맑고 청정하여 번뇌의 성품이 공한 줄 비추어보아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부지런히 결택함을 더하며 자기의 지견을 고집말라.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으되 캄캄하게 막히지 말며 단견을 내지 말고 공과 음에 집착하지 말며 깨달음의 지혜가 항상 밝아서 거룩한 범행을 닦으며 큰 서원을 일으켜서 넓게 뭇중생을 제도할 것이며 한 몸이 홀로 해탈을 구하자는 것이니라.

"제자리 찾아 삶을 조화롭게"

총지종 종령 록정 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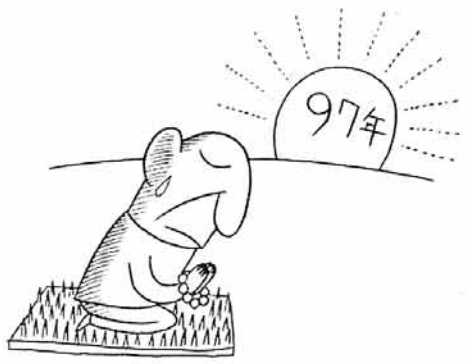


정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모두 미망(迷妄)의 그물을 벗어 던지고 자기를 바로 보고 이웃을 바로 봅시다. 우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조화롭게 엮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아 지난 날의 잘못을 참회로써 모두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도 눈을 돌립시다.

한없는 자비심으로 나의 주위를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현대만평 박구원



자기 반성의 해로…

佛紀2541年 傳法의 해

謹賀新年



2천만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老天月下
總務院長 太空月珠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97 신년특집

"나부터 참회해야 同業도 소멸"

생활혁신·밝은 내일 '참회서 시작'

"계율 잘 지키면 참회 필요없어요"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있다.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해결책도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병폐는 치유는 커녕 점점 심각해 지는 추세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탐심'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탐내는 마음에서 중생계의 모든 악행이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기르는 자세야말로 정토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로 제시되고 있다. 탐심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하다. 참회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날의 악한 뿌리를 뽑아 버리고 새로이 선한 뿌리를 가꾸려는 노력에서 탐심은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앞서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골깊은 병폐는 치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현대불교는 97년 한해동안 '참회의 삶을 살자'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자한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과 경기대 법학과 고준환교수가 참회하는 삶의 길을 안내하는 대담을 기졌다. 〈편집자 주〉



고산스님 : 고준환 교수 대담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고준환교수:모든 중생은 성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성불이란 목표점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각계에 만연된 비리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밝은 미래 역시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볼때 과거까지 포함한 현재를 참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산스님
〈쌍계사 조실〉

"지은 죄 뉘우치고 죄 짓지 않겠다" 서원 해야 참회

▲고산스님:그렇습니다. 참회하지 않고 좋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윗물이 맑지 못한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아지겠습니까. 참회는 시작부터 맑은 물이 되도록 하기위해 지나온 길과 지금의 길을 맑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바 죄를 뉘우치는 것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원이 함께 이뤄져야 참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청정합니다.

그런데 먼지가 끼었거든요. 이 먼지는 다생의 숙업으로 끼게 된 것인데 이걸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터워지니까 성불의 기약도 멀어져만 가는 것이지요. 죄업으로 끼인 때를 다 닦아 불성자리에 광명을 비추는 것이 참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 다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받아 들이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고준환교수:부처님 당시부터도 참회는 재가자나 출가 수행자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수많은 계율들이 떠 오르고 자자(自恣) 포살(布薩) 등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지계를 강조하는 만큼 위계에 대한 참법(懺法)도 다양했으며 이것이 불교의 독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산스님:참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그것인데 이참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고 사참은 몸과 물질적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몸과 물질로 뉘우친다는 것은 잘못의 죄를 소멸키 위해 고행을 하거나 노동으로 봉사를 하거나 재물등으로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자나 포살등은 참회가 없이는 성불도 없다는 신념을 실천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참법이 어떤 것이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택한 참회방법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율과 참회가 동시에 연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계율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동 규범이자 질서이고 참회는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한 후에 뉘우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참회의 여지를 없애는 길이라는 결론도 쉽게 나옵니다. 승가에는 수백종의 계율이 정해져 있으며 재가를 위한 계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율목을 다 지키기란 또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황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떤 일은 지계이고 어떤 일은 파계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문제 역시 '양심'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불심입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행동과 생각으로 살면 파계도 없고 참회도 필요 없습니다.

▲고준환교수:우리가 흔히 참회라하면 현생에서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국한지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경전에서는 참회는 과거 수없는 윤회속의 생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산스님:우리의 현재는 현재라는 관념일뿐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 의해 지어졌고 또 미래의 모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참회도 과거 현재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참회입니다만 수없는 전생(轉生)을 하며 어떻게 다 뉘우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생이 과거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현생에서의 업이 과거생의 업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먼 과거세의 일도 함께 반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삼년간 입은 더러운 옷을 하루아침에 빨래하면 다 깨끗해 지는 이치가 경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탁하면 깨끗해 지듯

▲고준환교수:참회를 하는데 있어 잘못을 자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알아서 뉘우치는 것은 다행스런 경우이겠지만 누군가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비로소 잘못된 줄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강제성이 깃든 참회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의 차이는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와관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논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체벌은 결국 잘못을 일깨워 거듭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라면 참회를 하게끔 강제성 유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산스님:앞에서 강조 했듯 진심참회가 중요한데 이를 스스로 하는 경우는 수승한 것입니다. 자자나 포살법회가 수승한 참법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의 체벌 문제는 참회를 위한 수단이란 측면은 인정 되지만 물리력이 가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게 하는것이 사실이지요. 체벌과 관련해서 나는 '필요하고도 필요없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잘못을 한 당사자가 말을 하거나 눈짓을 해서도 뉘우칠 수 있는 경우에는 체벌이 필요치 않고 말로는 안되고 물리적인 아픔을 주어야 비로소 뉘우칠 근기를 가진 경우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근기를 잘 살펴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체벌이 된다 안된다를 따지는 일은 무의미 합니다. 그런 분석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문제지요. 체벌은 참회시키는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고준환교수:참회의 방법에 대해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의식이 서로 다른지요.

▲고산스님: 부처님 법이 대소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편이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 것 뿐이지요. 참회도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참과 사참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준환 교수
〈경기대 법학과〉

남이 잘못 지적할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참회할 줄 알아야

▲고준환교수:삼라만상이 다 하나의 생명체인데 지금 세계는 지역에 따라 굶주림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상이 대표적인데 이런 현실도 참회의 대상이 아닐런지요.

▲고산스님:북한뿐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중생의 현실이 참회 없는 탐욕의 과보입니다.

▲고준환교수: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개인이 짓는 업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짓는 동업(同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업에 대한 참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산스님: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국경이라는 벽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대로 그런 변화는 인간의 심성과 가치관을 황폐화 시키는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변하는 환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게 잘못이지요. 바로 이런 잘못이 우리 사회의 동업을 낳고 있어요. 참회해야지요. 〈능엄경〉에 동업과 별업(別業)이 나오는데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동업속에 별업이 있고 별업 속에 동업이 있습니다. 한통속인 겁니다. 그러니 동업을 참회하는데 사회구성원이 다 모여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되자

▲고준환교수:경전 속에는 참회와 관련된 설화도 많고 가르침도 많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도 늘 참회하는 삶을 강조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산스님:'앙굴리마라'의 얘기는 많은 불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흉포한 죄인도 진심참회를 함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회의 결과는 죄업의 크기와 상관 없이 그 마음의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과정과정에서 죄아닌 것이 없습니다. 쌀밥을 먹고 사는 일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언제 벼가 '나를 베어다 알곡을 방아 찧어 밥을 해 드시오'라고 허락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며 벼에게나 쌀에게나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죄이지요. 경전에 나오는 설화들이 많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현재 저지르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에대한 참회를 분발시키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생유생의 이웃과 더불어 살며 끝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의 참회하는 삶은 '내가 성불해 너희를 다 제도하리라'는 서원의 삶인 겁니다.

▲고준환교수:끝으로 스님께서 참회를 주제로 법문을 하실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 주십시오.

▲고산스님:살아가는 순간이 다 죄짓는 순간이라 한 것을 뒤집으면 살아가는 순간이 다 참회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늘 신중하고 양심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늘 '물위걸용지인(勿爲乞容之人) 능위서타지인(能爲恕他之人)'을 말합니다. 남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말고 남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요.

정리=임연태 기자

佛紀 2541년 근하신년

"신한국당 불교신도회는 2000만 불자 여러분들과 불교 중흥의 새장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신한국당 불교신도회 합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번지 ☎ (대)783-9811

법회 안내

광등사(02)355-4148

일반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관음포교원(02)863-9649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천수용맹기도
매월 25~27일(음) 오전9시
가족법회 셋째주 일 오전10시30분
전통차법우회 넷째주 일 오전8시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월 토 오후2시

관음사포교당(0391)43-2985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화·목 오후7시
대학생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거사림법회 셋째주 일 오후5시
여교사불자법회 매월 1일 오후5시

화암사(392)33-5827

통합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동도사(0335)33-7417

초하루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선덕사(062)263-466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기도법회
매주 3일~7일 오전10시30분
거사법회 매월 셋째주 일 오후7시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화 오후1시30분
가족법회 첫째주 일 오전10시30분
송원잔문대
매월 첫째 셋째주 금 오후5시

영주암(051)754-22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참선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매주 토 오후8시30분

대광명사(053)253-0517

초·중등부법회 토 오후2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8시

벌교포교당(0634)33-28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첫째주 일 오전10시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동국대 발전기금 전달

월하 조계종 종정스님은 구랍 4일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에게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 이자리에서 정우 구룡사주지도 동국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

육해공 합동 송년법회 설법



진철 통도사 스님은 구랍 29일 계룡대 3군 본부에서 봉행된 육해공군 합동 송년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사상을 주제로 설법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설산 정토사주지는 구랍 25일 세밀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혜명복지원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btn '법구비유경' 강의



현각 동국대 선학과 교수는 오는 6일부터 불교TV '재미있는 경전공부' 진행을 맡아 〈법구비유경〉을 강의한다.

경승단 인천지단장 맡아



법륜 흥륜사 주지는 구랍 23일 대한불교 경승단 인천시지단 정기총회에서 인천시지단장에 선출됐다.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철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오는 2일까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22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연동사 서울포교당 개원

원행 연동사주지는 구랍 23일 은평구 갈현2동에 연동사 서울포교당을 개원했다. (02)383-6880

'청소년 선도' 문체부장관상



선일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 스님은 구랍 20일 청소년유해환경정화와 청소년 비행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중고생 15명에 장학금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구랍 28일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중·고·대학생 15명에게 97학년도 등록금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대현실업 창립 20돌 자축연



손현수 대현실업회장(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장)은 구랍 20일 타워호텔에서 대현실업 창립 20주년 자축연을 열었다.

"불음전파로 정법사회 구현"

불교청주방송 지사장 **박재선**씨



"전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올바른 사회구현에 일조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랍 20일자로 불교청주방송국 초대 지사장에 임명된 박재선씨(진흥건설 사장·51)의 말이다.

"불교청주방송국의 개국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든 잡음들을 종식시키고 23일 시험방송을 필두로 오는 2월 개국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는 박지사장은 "아직 전반적인 업무파악과 재정문제의 해결등이 남아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갈 생각입니다"고 덧붙였다.

박지사장은 "지속적이고도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충북 청주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108후원회'를 구상중"이라면서 "현재 3kw의 출력을 높여 보다 넓은 지역까지 불교방송이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온〉

불교중학생연합회 수계식

서정락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장은 구랍 22일 동래포교당 법륜사에서 중불회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수계식을 봉행했다.

불교교화원 사무총장 취임

배정길 신월청소년독서실관장은 최근 (사)한국불교교화원 사무총장에 취임해 신년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부산불교인사 신년하례회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오는 4일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계 인사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인 사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성광(前 사서실장·사진 위) △문화부장 성관(前 문사부장) △사회부장 능관(前 사업부장·사진 아래) △기획국장 범민 △사회국장 일화 △사서차장 정빈 △수석사서 원공스님

불교방송



△방송심의실 심의실장 영배스님(조계종 종회의원·사진) △심의실 심의부장 김창영 △사업국 영업 1부장 구기범 △사업국 영업 2부장직무대리 김순식

화촉 박정규 조계종포교원 주임과 고관순 대한불교신문사 대리가 오는 5일 오후12시40분 전주 목화예식장 봉황실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부음 삼보사(주지 지원)합창단 단장을 역임했던 안현숙씨가 구랍 22일 52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국 순회공연을 주관했다. 49재는 오는 2월 6일 삼보사에서 있다.



불교 사회복지종사자 대회

불교사회복지종사자대회가 구랍 22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윌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성관(조계종 문화부장) 성운(삼천사주지) 혜광(국립경찰병원경승실장) 종실(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스님을 비롯 정각회 황규선의원, 전국 불교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파라미타 부천지회 발대식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구랍 22일 석왕사 육화전에서 부천지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 역곡포교원 원장 동조스님 소림사 주지 일원스님 관음정사 청안스님을 비롯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국장 파라미타 부천지회 회원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추불 환경강연회 및 출판기념회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성타)은 구랍 21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사찰환경권 보장과 불교계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와 '공해없는 세상' 제6호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덕신스님(조계종 문화국장)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과) 김상숙교감(동대부고)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푸른하늘' 개장

부산광역시 장애인 생산품 공동판매장 '푸른하늘'이 구랍 23일 부산 데파트 1층에 개장됐다.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이 위탁운영하게 되는 '푸른하늘'의 개장식에는 통도사·부산포교원 도국스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배인창,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박상근씨 등 사부대중 1백20여명이 참석했다. 매장에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도자기 목공 문구류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 판매된다.

신성일 〈영화 제작자〉



"절 자주찾고 건강관리에 만전"

지난 30여년간 연기자로서 또 영화제작자 사업가로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연기일을 뒤로하고 신한국당 대구 동구갑지구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는 것이 새해 소망입니다. 당원들과 지난해부터 매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일대 산을 등산하는데 갓바위, 동화사, 파계사 등을 자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어느 산을 가더라도 절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면 반드시 절을 찾아 부처님도 만나고 시원한 약수도 마시곤 합니다. 마음과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에 시민의 마음이 있고, 또 그곳에 불심이 함께 있음을 항상 느낍니다. 이 모든 일을 원만히 수행해 내기위해 24년간 꾸준히 해왔던 운동을 올해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97 '소'의 해 소띠 불자

이혜은 〈영화배우〉



"카멜레온 같은 연기자 될래요"

작년에 영화 '코르셋'을 통해 여러분들게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르셋 영화이후 '귀여운 여자', '엄마는 출장중' 등 몇편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올해에도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기 보다는 좋은 작품을 스스로 선택해서 영화든, 드라마든 최선을 다해 연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연기를 시작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연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제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을 모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연기자, 언제나 변신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를 따라 삼성동 봉은사에 가끔 가곤 하는데 절에 가면 은은히 배어나는 향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 향냄새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기를 통해 항상 기억되는 그런 연기자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정리=이은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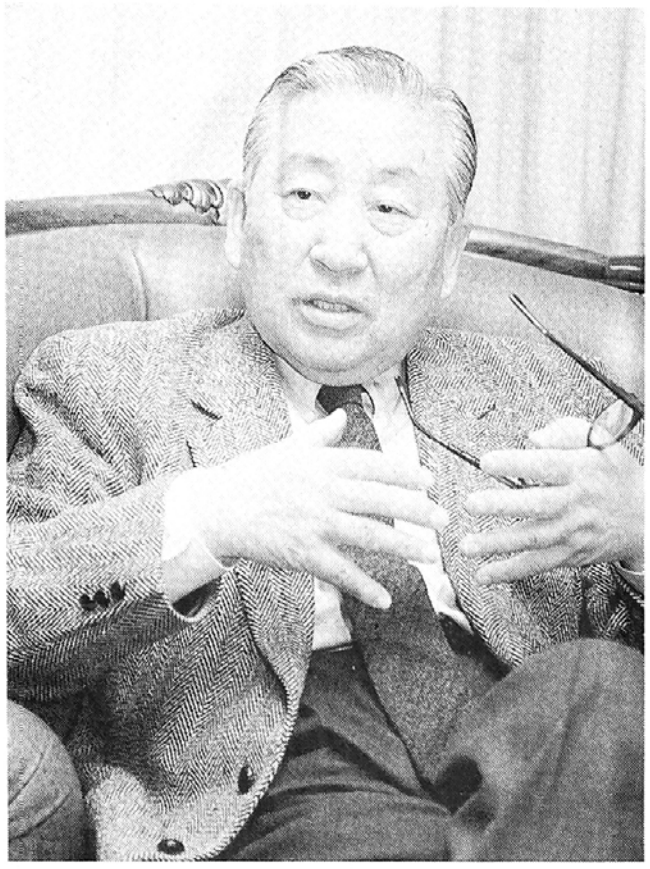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金剛佛教彫刻研究所
대표 李靑苑 合掌

불사실적
● 지리산 철불사
● 제 주 약천사
● 문 경 봉암사
● 서 울 능인선원
● 현 수원 봉녕사
한마음선원(안양,대구,제주)
불사 진행中

주소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858번지
전화 : 972-3912, 971-2174 팩스 : 971-3384

"문화재사랑 영원히 사는 길"



산문밖의 禪單

'문화유산의 해' 집행위 **한병삼** 위원장

내고장 문화유산부터 알고 찾고 가꾸는일 민족얼 고취 첫걸음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이다.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은 우선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싹트기 마련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는 말이 있다. 늘상 보는 주위에서 소중함을 찾는 일,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내 가꾸는 일은 '마음을 내는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자기가 사는 고장에 무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있더라도 그 문화유산에 대해 아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속철 얘기가 나오면 언성을 높인다.

문화정책이란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문화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장기적이고 거시안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해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지역개발논리 여론에 밀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안타깝다. 선진국일수록 개발과 문화재가 충돌할 경우 예외없이 문화재가 선(先)인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우세논리를 막기가 역부족이란 느낌이다.

지난 7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간 이후 경주박물관장 10년, 국립중앙박물관장 9년 등 30년 가까이 박물관에서 살았기에 스스로 자신을 '박물관인생'이라 부르는 한병삼위원장은 앞으로 박물관이 문화재교육센터로서 더욱 역할을 하게되길 기대한다.

"황금을 돌같이 보라는 말이 있지요. 박물관에 진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진귀한 보물들을 돌같이 보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예전에 제 선생님께서 늘 이르셨죠. 유물발굴을 하면서 쓸모없는 토기 파편 하나라도 무심코 집에 들고가면 절대 안된다고요. 문화재와 인연맺은 지 30년이 훨씬 넘지만 기와 조각 하나 집에 들고가지 않는 신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물건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자제하기 힘든 사람은 아예 박물관이나 문화재와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지요."

무표정한 차가운 돌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심미안을 가져야 한다면 또 지극히 빼어난 보물 앞에서도 담담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문화재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이경숙 기자

"심란할 때면 '미륵반가상' 미소 뵈러갑니다" 토기파편 하나 민족재산 '국민 모두 파수꾼'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심란하면 그때마다 미륵반가상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편안하면서도 헤아릴수 없는 그윽한 미소를 지어주시지요. 한없이 바라다 보면 삶에 대한 반성같은 것이 문득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저 그윽한 미소를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을까 되뇌여 보곤했지요.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계곡의 물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설
푸른 산빛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랴
간밤에 듣던 팔만사천 게송
다른 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 보이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계곡의 파도소리를 듣고 문득 막혀있던 통 밑바닥이 '툭' 빠지는 듯한 깨달음을 얻고 이와같은 게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항상 듣는 계곡의 물소리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천여년을 넘도록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주는, 저 해탈의 미소에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지요."

문화재위원이며 '97 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회 한병삼위원장(62)은 올 한해 우리 민족 전체가 석굴암 본존부처님이나 미륵반가상의 미소, 서산 백제마애불의 해맑은 웃음을 닮고자 노력하기만 해도 문화유산의 해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영원한 삶을 희구하는 인간은 기껏 살아야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극 정성으로 혼과 마음을 모아 만든 문화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오랠수록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진면목을 봐야 하는데 요즘은 문화재의 진가를 얼마짜리냐로 정하고 따지는 것같아요. 한마디로 골동품으로, 또는 부(富)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너무 광배해있지 않나 여겨져 문화재에 대한 인식왜곡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TV에서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를 보여주고 즉석에서 가격을 매기는 프로그램이 못마땅하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재의 가치를 너무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 같아 부정적인 면이 큰 것같아서이다. 또 귀중한 개인소장 문화재들이 유산형식으로 가족에게 물려지는 풍조도 개선되어 사회에 환원시켜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 공개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문화유산의 해 주제 표어는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이나 유럽쪽에 가보면 동네마다 무료로 문화를 소개하는 자원봉사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안내를 자청하며 안내 또한 자세하면서도 내용이 풍부해 전문가를 빰치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동안 개발일변도로 오로지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해온 우리 민족이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시급한 일로 논의되고 있는 '역사고도 자연환경보존특별조치법'이나 '고도(古都)보존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문화재평가제를 도입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경주 남산도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는 "경주에 경마장이나 아파트, 고속철이 지나간다는 발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요. 현세인들이 그러한 업을 지어놓으면 결국 그 업보는 후손들이 받게

"다시 올때는 잎이 없다"는 뜻은

문 육조 혜능스님이 열반에 앞서 제자의 물음에 대답하셨는데 묻기를 '스님께서 이제 가신다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니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올때는 잎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익명의 독자〉

답 스스로 참구하심이 좋을 터인데 어찌 말뜻을 구하시는지요.

육조스님께서 대중에게 이렇게 이르신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눈도 코도 입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하셨습니다. 자성이란 본래 여여하여 더럽다 깨끗하다도 없고 간다 온다도 없으며 명과 무명이 둘이 아니고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오고 감이 있다고 할 것이고 밝으니 청정하니 하는 말도 하게 되겠지요.

육조스님께서 그와같이 대답하신 것은 다만 나툼의 이치를 보이는 가운데 가는 것은 무엇이며 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한 그 제자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뜻풀이를 하려 하지말고 스스로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단련 공부도 중요한지요

문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정신의 공존체계입니다. 불법공부는 마음공부, 즉 정신세계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단련을 위해 단전호흡이라든가… 그런 공부는 정신적인 공부만큼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단전호흡과 같은 기(氣)공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경수 ·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답 찬성하고 않고가 뭘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말란다기보다 그것이 효과적인 공부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단전호흡이니 기공부니 하는 것은 육신을 돕자고 하는 공부인데 이왕 공부를 하려거든 마음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단전호흡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기를 모으다가 순환을 시키지 못해서 탈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나면 또 일정량을 배설해야만 살 수 있는데 기를 모았다가 뒷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사방이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놓을 건 없지만 그렇기에 또 무궁무진한 묘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왕 공부하려거든 마음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단전호흡을 한다지만 병이라는 것도 물질의 병이지만 실은 마음의 병이 먼저이고 따라서 건강을 위할진대 마음 다스리는게 먼저입니다. 마음다스리면 기는 절로 다스려지니까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자리틀고 앉아서 무슨 호흡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말하면서 참선, 먹으면서 참선, 자면서 참선, 사랑하면서 참선을 해야지요. 그건 마음공부뿐입니다.

어떤 분은 기공부를 해서 조금 경계가 열리고 앉은 채로 붕 뜨게된다나요. 설사 그런 능력이 조금 생겼다고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슨 대수라도 난 양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 만심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신통도 도가 아닙니다. 거기서도 벗어나야 참 공부인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일기도도량

방배동 光明禪院

개원4주년 큰스님 초청 대 법회 일만배 참회 정진기도 1월6일 (월) ~ 16日(목) 10일간 일만배 참회 정진기도

1월6일(월) (오전10시)	무진장 큰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강사) 주제 : 열린마음 열린세상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7일(화) (오전10시)	종범 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주제 : 불교의윤회 · 전생관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8일(수) (오전10시)	월운 큰스님(동국역경원장) 주제 : 불자의 올바른 삶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9일(목) (오전10시)	초격 스님(광명선원 원장) 주제 : 기도의 참의미	오후2시 일천배(금강경독송)
1월10일(금)~1월15일(수)	부처님 성도 맞이 특별정진기간	오후2시일천배(금강경독송)
1월16일(목)	성도재일 법회 및 회향식 (오전10시)	

부 설 기 관
- 구립 전농공부방
- 구립 사당어린이집
- 도서출판 불천

천일기도 정진시간
- 새 벽 기 도 : 새벽 4시
- 사시기도 : 오전10시
- 백팔참회기도 : 오후 2시
- 저 녁 예 불 : 오후 6시

※ 10일간 일만배 참회 정진기도 동참 발원자에게 만불 명호경 · 절다포 · 108염주 드립니다

위치안내
◈버스노선 일반 : 1, 29, 288, 87, 87-1, 88-1 좌석 : 42 ▶방배 1동 사무소앞 하차
◈지하철 이용시 : 방배전철역 하차, 방일초등교 출구 마을버스 (광명선원 앞 하차)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894-18호(방배동 황실APT입구)
봉 선 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전화 : (02) 584-1108 587-3753

불교의 기공과 명상

학림불교회관에서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의해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기공명상을 통해서 기(氣)를 닦고 쌓아 심신(心身)을 강화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심성의 본체를 깨쳐 마음의 휴식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련생 모집을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은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수련과정(불교의 수행법과 진수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지도)
▷ 1단계 동법(動法): 기공명상 동법(動法) 54식, 호흡법, 도인법 → 身 위주로 수련(動中有靜)
▷ 2단계 정법(靜法): 기공명상 정법(靜法)54식, 삼주천법(三週天法), 치료기공법, 요가체위법(體位法) →心身병행으로수련(動中有動)
▷ 3단계 공법(空法) : 사마파티, 無心의 心, 無息의 息, 無形의 形, 心識의 空性에 대한 철학 이론과 수행→ 心위주로수련(靜動無靜)

▣ 수련시간
매주 화 · 금요일 : 오후 2:00 ~3:30, 저녁 7:30~9:00

◑ 수련생수시모집 ◐
▣ 수련기간 :1월 11일 부터 97년 4월 14일 까지
▣ 동참비 : 3개월 →12만원(교재비포함)
※ 2인 동참 접수시 → 20만원(각10만원)
▣ 지도법사
태광스님('티벳 기공명상 ' '영원으로 돌아 가는 길', ' 불교의 핵심 교리와 수행비법' 저자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졸업, 말레이시아 백련선원 원장, 인도 · 스리랑카 · 티벳 · 네팔 · 중국등 여러나라 명상센터에서 수련 및 지도)
▣ 위치 : 노원역 우성 APT 맞은편 학림불교회관 5층 대법당
▣ 특별수련 : 토 · 일요일 양일간 명상 → 1월 11일부터 시작

학림불교회관 문의 학 림 사
932-1411(종무소) 936-1700종무소)
932-1412(유치원) 936-4100

97 신년특집

직장·직능법회 현황

지도법사 교육프로 법회공간 절대 부족

직장·직능법회는 사회 속에서 개인수행과 포교 및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본지는 지난 10월 창간 2주년 기획특집(98호)으로 전국의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장·직능법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구립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7개 직장·직능법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회수량은 118곳(직장96, 직능22)이었다.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사찰순례 '인기'…교리학습·기도 관심 저조

'월1회 정기법회' 가장 많아…회원 열의 부족 '애로'

종단차원 연수교육·법사파견·교재개발 등 '절실'

직장·직능법회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장·직능법회는 지도법사·법회공간·교육프로그램이 없는 '3무(三無) 현상'으로 법회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직장·직능법회가 업무에 도움이 되며, 법회를 통해 직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늘 생각한다고 밝혀 직장·직능법회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직장·직능법회는 지도법사 없이(52.5%), 법회를 봉행할 마땅한 장소도 없이(61.9%), 신입회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도 없이(61.0%), 월평균 1회의 법회(37.3%)를 봉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종단차원에서 직종별 지역별 연수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마련과(88.2%) 신행프로그램과 교재의 지원(39.0%) 및 인근 사찰과의 연계(61.0%)를 요청했다.

사찰 연계프로 필요

직장·직능법회의 신행형태는 정기법회와(20.3%) 사찰순례(22.0%)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도 염불 등 수행과 교리학습을 하는 곳은 극소수에 그쳤다. 정기법회와 함께 강사를 초빙해 강좌를 진행하는 형태도 11.9%에 이르러 새로운 법회운영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가운데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사찰순례(61.0%)가 단연 높았으며, 정기법회(20.3%) 강사초빙 강좌(11.9%)의 순이었다.

그러나 법회 또는 각종 모임에 회원들의 참석율은 62개 법회(52.5%)에서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답해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또는 80%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곳은 47.5%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지도법사가 없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도법사가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이 참석한다는 38.1%를 기록한 반면 지도법사가 없는 경우에 절반 이상 참석율은 4.6%에 그쳐 지도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법사는 있는 곳(47.5%)보다 없는 곳(52.5%)이 더 많았으며, 지도법사 부재 이유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응답이 48.4%였으며, 재정형편상 모시기 어려운 경우도 35.5%였다. 대부분의 법회에서 지도법사를 모시고 싶어도 여의치 않아 종단과 사찰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도법사가 있는 경우에도 신입회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40.0%로 지도법사가 없는 경우의 42.9%보다 낮아 지도법사가 있는 곳이라도 법문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직장·직능법회의 회원들은 수계를 비롯한 입문과정도 거치지 않은 '자칭 불자'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어도 신입회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문서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봉행 횟수는 57.6%가 월 1회로 가장 많았으며, 월 2회(8.5%), 년 4회 또는 부정기적(22.0%)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법회가 느슨한 운영형태를 띠고 있다. 주 1회는 11.9%에 그쳤다. 그러나 바람직한 법회봉행 횟수는 월 1회(37.3%) 월 2회(33.9) 매주 봉행(25.4%)으로 최소한 월 1회 이상의 법회봉행을 희망했다.

회원들의 연령은 40대(62.1%) 30대(24.1%) 50대(12.1%) 20대(1.7%)의 순이었으며, 성비율은 비슷한 분포(남 54.2%, 여 45.8%)로 조사됐다. 또 불교입문 햇수는 5년~10년 이내가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내는 16.9%, 1년 이내 초심자는 13.8%였다.

법회 공간의 미비도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요인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이 훨씬 넘는 73곳(61.9%)이 법회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불상과 탱화를 모시고 모임 때마다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으며, 향후 법당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법회 공간이 있는 경우 17곳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사찰이나 불교회관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곳은 22곳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법회가 업무에 도움이 되며(39.0%), 직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33.9%)고 답해 직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직장 및 생업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무형의 만족감과 법회를 통한 인적네트워크의 확립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 비용은 대부분이 회원의 월회비로(86.4%) 충당하고 있으며, 월회비는 대부분 3천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회사 및 인근사찰의 도움을 받는 곳은 28.8%에 그쳤으며, 회사지원의 경우 분기별 성지순례 및 특별행사시 20만원에서 50만원선이었다. 사찰지원의 경우는 대부분 장소 및 식사와 간단한 의식집 제공에 머물러 사찰과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동안의 재정 규모는 1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큰 편차를 나타냈다. 평균액은 1천1백60만원 정도였으며(가장 많은 부산불교실업인회의 1억2천만원을 제외한 평균액은 922만4천원), 26곳은 공개를 꺼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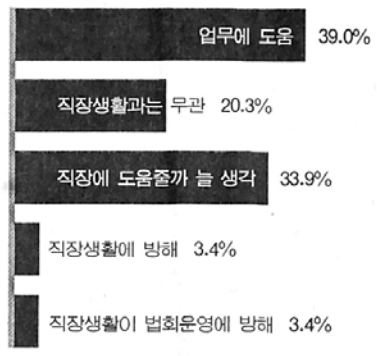
조사대상 118곳의 전체회원수는 1만7천954명(남9,738 여8,216, 평균 회원수는 146.7명)으로 각 법회의 창립 당시보다 두배 이상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20곳(16.9%)의 법회는 창립 때보다 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대부분 회비로

이에대해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회원들의 감소와 참석률이 저조한 원인을 신행프로그램 부족(8.5%) 또는 재정궁핍(5.1%) 근무지 이동(5.1%)보다는 회원들의 열의부족(35.6%)과 시간부족(32.2%)에 있다고 지적해 내적인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은 조계종 포교원 등에서 직장·직능 법회를 위한 연수회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들은 비슷한 직장·직종별 연수(49.2%) 또는 지역별 연수(39.0%) 개최를 희망했다. 또 종단차원의 지원은 신행프로그램 및 각종 교재의 개발과 보급(39.0%)이 가장 시급하며, 각종 연수회 개최(25.4%), 인근사찰과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도(22.0%), 지도법사 파견(10.2%)의 순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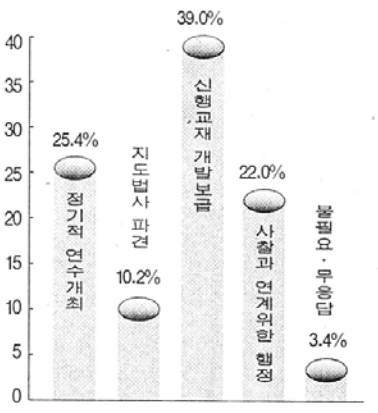
정성운 기자



법회의 직장기여 여부



지도법사 부재이유



종단차원의 시급한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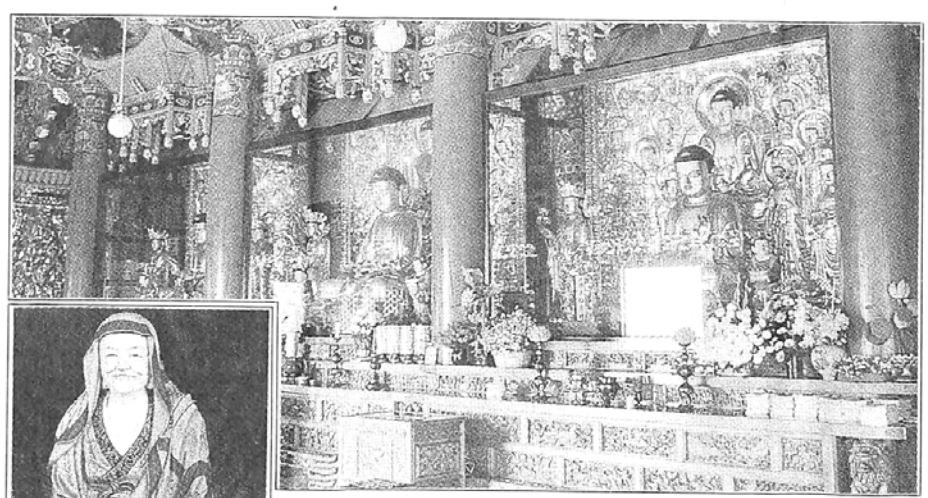
1. 귀 법회 회원들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①20대(1.7%) ②30대(24.1%) ③40대(62.1%)
④50대(12.1%) ⑤무응답(1.7%)
2. 회원들의 불교입문 햇수는?
①대부분 1년 이내의 초심자(13.8%)
②대부분 3년 이내(16.9%) ③대부분 5년 이내(24.1%)
④대부분 10년 이내(36.2%) ⑤대부분 10년 이상(1.7%)
⑥무응답(1.7%)
3. 법회 또는 기타 모임에 회원들의 참석율은?
①절반을 넘지못한다(52.5%) ②절반 이상은 참석한다(40.7%)
③언제나 80% 이상 참석(6.8%)
4. 법우님의 단체에 지도법사가 있습니까?(형식적인 경우는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있다(47.5%) ②없다(52.5%)
5. 지도법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는?
①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16.1%)
②마땅한 사람이 없었다(48.4%)
③재정형편상 모시기 어렵다(35.5%)
6. 지도법사가 있다면 스님입니까, 재가법사입니까?
①스님(82.2%) ②재가법사(17.8)
7. 창립 이후 지도법사에 변동이 있었다면, 지도법사 평균 재임기간은?
①6개월 이내(6.8%) ②1년 이내(1.7%)
③1년6개월 이내(3.4%) ④2년 이상(11.9%)
⑤변동없었다(37.3%) ⑥무응답(39.0%)
8. 별도의 법회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사무실 임시 사용(14.4%) ②사찰 또는 불교회관(18.7%)
③향후 마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5.0%) ④없다(61.9%)
9. 법회운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①80% 이상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86.4%)
②회장을 비롯한 몇 명이 부담(3.4%)
③수익사업, 특별회비 등(3.4%)
10. 회사 또는 사찰의 지원 유무
①있다(28.8%) ②없다(71.2%)
11.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중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던 수입형태는?
①정액회비(71.2%) ②특별회비(10.2%)
③찬조금(8.5%) ④수익사업의 이익금(3.4%)
⑤회사(사찰)지원금(3.4%) ⑥무응답(3.4%)
12. 법회를 봉행하는 횟수는?
①일주일에 1회(11.9%) ②월 1회(57.6%)
③월 2회(8.5%) ④분기별 또는 부정기(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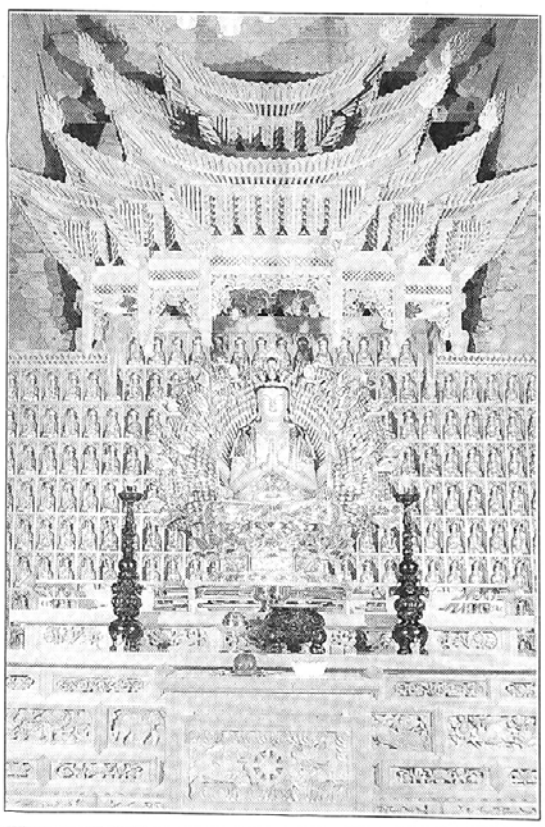
직장·직능단체장 설문내용

1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법회 봉행의 횟수는?
①일주일에 1회(25.4%) ②월 1회(37.3%)
③월 2회(33.9%) ④분기별 또는 부정기(1.7%)
14. 법문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①스님(84.7%) ②재가법사(8.5%)
③없다(3.4%) ④무응답(3.4%)
15. 법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①재정궁핍(5.1%) ②시간부족(32.2%)
③법사부족(3.4%) ④회원들의 열의 부족(35.6%)
⑤신행프로그램 부족(8.5%) ⑥회사측의 이해 부족(1.7%)
⑦근무지 이동(5.1%) ⑧무응답(8.5%)
16. 중점적인 신행형태는?
①정기법회(55.9%) ②사찰순례(22.0%)
③기도(3.4%) ④염불(3.4%)
⑤교리학습(1.7%)
⑥정기법회와 함께 강사초빙해서 강좌진행(11.9%)
⑤무응답(1.7%)
17. 위 질문의 예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①정기법회(20.3%) ②사찰순례(61.0%) ③기도(1.7%)
④정기법회와 함께 강사초빙해서 강좌진행(11.9%)
18. 신입회원 및 초심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입문서를 중심으로 교육(27.1%)
②교재없이 간단한 안내(52.5%)
③신입·기성회원 구분없이 '질문 17'의 답변처럼 진행(8.5%)
④무응답(11.9%)
19. 기성회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까?
①있다(11.9%) ②없다(84.7%) ③무응답(3.4%)
20. 귀 법회가 직장에 어떤 점에서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①업무에 도움이 된다(39.0%)
②직장생활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20.3%)
③직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한다(33.9%)
④오히려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3.4%)
⑤직장생활이 신앙활동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3.4%)
21.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①지역별 연수 및 모임이 활발해야 한다(39.0%)
②비슷한 직종·직장별 모임이 활발해야 한다(49.2%)
③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3.4%) ④무응답(8.5%)
22. 종단차원에서 직장·직능법회에 대해 지원한다면,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연수를 비롯한 회합을 자주 개최(25.4%)
②지도법사의 파견 (10.2%)
③신행 프로그램 및 각종 교재의 개발, 보급(39.0%)
⑤자력 해결 가능하므로 지원이 불필요하다(1.7%)
⑥인근 사찰과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22.0%)
⑦무응답(1.7%)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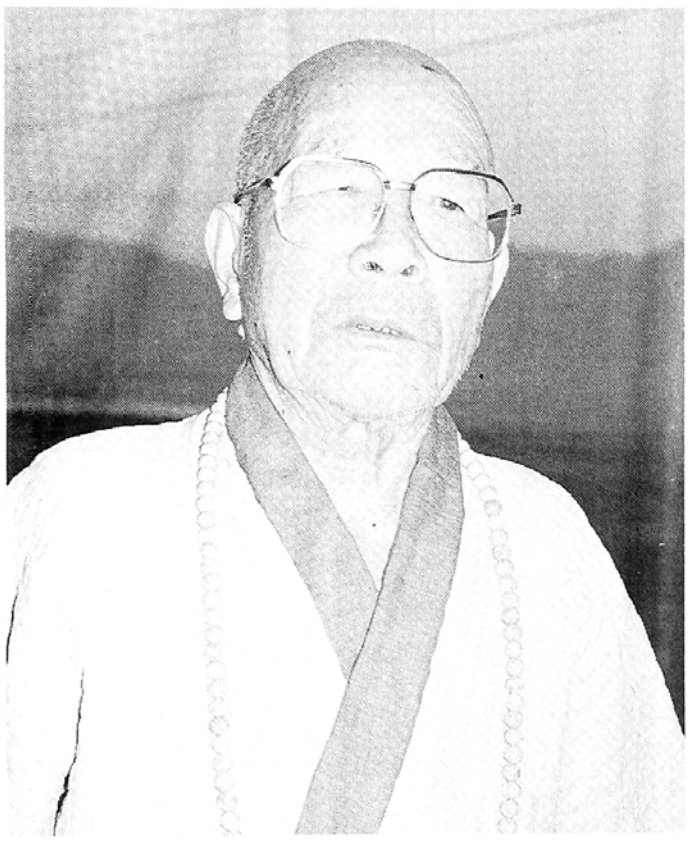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큰 스님 수행한담

"과거·미래 궁금하거든 현재를 보세요"



동산스님 〈춘천 석왕사 조실〉

약력

- 1914년 충남 공주 生
- 1929년 4월 15일 수덕사서 윤서호 스님 은사로 득도
- 39년 7월 15일 심원사 강원서 사교수료
- 41년 7월 19일 송광사 강원서 대교과 수료
- 정혜사 대전심광사 천장사등 주지 역임

정축년 새해를 시작하며 수행의 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아홉 되던 해에 정혜사에서 만공스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향했는데 나는 첫 길이었고 스님은 서너번 금강산을 다녀오신 뒤였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으로도 만공스님의 선사적 기상과 금강산의 장엄함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외우는 만공스님의 금강산 시편(詩片)들이 있습니다. 보덕굴을 읊은 시와 비로봉에 올라 지으신 시가 나에게는 금쪽같은 가르침이거든요.

단공불휴객(短笻不休客)
정당보덕굴(正當普德窟)
빈주불상견(賓主不相見)
친여수수성(親如水水聲)

짧은 지팡이 쉬지 않는 객이
정히 보덕굴에 당도하니
손님과 객이 서로 볼 수 없는데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도다.

절창(絶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덕굴의 오묘한 형상이나 경외로운 전설만을 읊은 것이라면 한 묵객의 단상(斷想)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스님의 시심(詩心)은 시정을 뛰어넘는 곳에서 메아리쳐져 오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손과 주인이 서로 만나지 않

"불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저 될대로 되어라' 하루하루 살면 언제까지나 윤회 못벗는 길손입니다"

되지 않으실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부처될 성품을 가졌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길손도 되고 주인도 되는 이치입니다. 내가 한량없는 지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불성을 발현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저 될대로 되어라 하고 살아 버리면 언제나 길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말로 하자면 주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친구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세상의 흐름에 이끌리며 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도 부처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부처로서의 자성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정진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공스님의 시에서 주인과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다'는 마지막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도량인 보덕굴을 찾아간 중생과 그 도량의 주인인 관음보살, 이 두 개체의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다니 결국 하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이 소리가 있을 수 없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에 물이 없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 것이므로 그걸 바로 알고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은 관음도량에 가면 관음이 되고 미륵도량에 가면 미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무진무변의 법문이 만공스님의 짧은 시구에 두루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해 겨울,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을때 나는 만공스님을 모시고 유점사에서 동안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점사 참선방은 제법 컸는데 겨울에 통나무 장작을 지펴 불을 때면 그 크기에 어색하리만치 뜨끈뜨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대중이 모여 정진하는 큰방에서 몇몇 젊은 수좌들이 의기를 투합하여 철일철야 용맹정진의 원을 세웠습니다.

철일철야의 정진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잘 끝나고 서로들 흡가분한 얼굴이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쉴 것이 아니라 다시 이랫동안을 더 정진하자'며 재발심을 제안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던 수좌들은 더러 말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결사에 동참했던 젊은 수좌들은 '좋다. 한번 더 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탁탁' 어깨에 죽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금강산 유점사의 겨울밤을 지키는 어느날이었습니다. 나는 어깨에 장군죽비를 얻어 맞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어김없이 화살촉 같은 밤바람이 온 몸을 엄습했고 볼따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에 수마를 내동댕이 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서 도반들이 "어이 동산수좌, 자네 얼굴이 왜그런가. 아니 입이 돌아갔네. 그래, 이 노릇을 어쩐단 말인가"하며 야단을 하지 뭡니까. 아닌게 아니라 내 입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바람을 잘못 쏘인 탓이었던 겁니다. 불가불 재발심의 결사정진에서는 빠져야 했고 만공스님의 주선으로 서울로 가는 봇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선학원에는 많은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객들을 다 돌보며 선학원의 살림을 꾸리신 분은 적음스님이셨는데 스님은 나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약도 지어 주시고 손수 침도 놔 주셔서 나는 생각보다 빨리 완치될 수 있었지요. 병든 자는 병을 이기는데 자신의 의지와 옆 사람의 친절한 간호가 필요하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내가 조금씩 나아가는 도중에 적음스님은 내게 선학원의 원주 소임을 맡기셨는데 특히 조실방에 묵고 계시던 만해 한용운스님을 잘 모시라는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가량 만해스님을 시봉하는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스님은 당시 〈불교〉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학원이 본사도 아니고 병구완을 이유로 잠시 머물러 온 것일뿐이었으니 내가 만해스님에 대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공양시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옷가지를 챙겨드리거나 스님의 출입에 불편이 없게 하는 허드렛일들이 내 역할이었을뿐. 늘 대쪽같으면서도 부드럽던 스님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이미 스님은 일본 수사관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었던 까닭에 스님방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고등계 형사들이었습니다. 일본인 형사도 드나들고 한국인 형사도 드나들었지요. 그런 와중에 나는 참으로 이상한 걸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일본인 형사들은 만해스님에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센세에 센세이(先生)'를 연발하며 스님을 찾아 왔고 스님도 적당히 대접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형사는 달랐어요. 무조건 반말에 하늘이 부끄러울만치 뻣뻣한 태도로 스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손님과 객이 서로 볼 수 없는데 친하기가 물과 물소리 같도다" 금강산 가는 도중 들려주신 만공스님 게송 수행 이정표 삼아

하루는 스님이 종로의 무슨 강당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나도 따라가 경청을 했습니다. 물론 청중 가운데는 고등계 형사들도 있었지요. 스님께서 무슨 주제의 강연을 하셨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내용인즉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국의 독립을 이뤄야한다는 것이 더러는 은유적으로 더러는 시적으로 더러는 직격의 강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연을 지켜보던 한국인 형사 한명이 더는 못 듣겠다는 듯, 강연을 중단시키고 스님을 체포라도 하려는 듯 단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스님은 "이놈, 어딜 함부로 뛰어 드느냐"며 그 형사를 발길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 형사가 나동그라졌다가 다시 식식 거리며 일어서 스님께로 달려드려는데 일본인 형사가 그를 끌고 나가 더군요. 스님의 강연은 이어졌고 그일로 별다른 고초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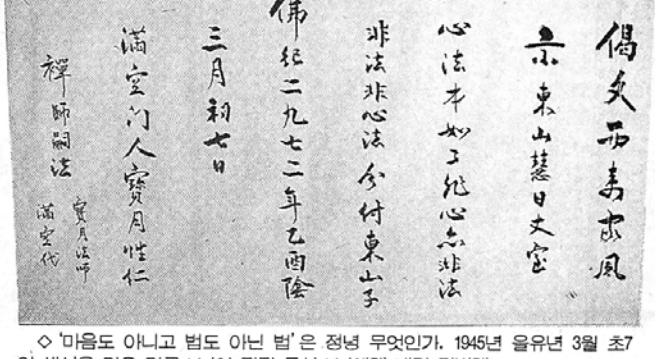
인간은 스스로가 진리의 당체이면서도 그 주인 노릇을 잘 하기는 힘듭니다. 시절이 어떻거나 세상이 어떻거나 진리의 몸인 인간, 다시말해 불성을 갖춘 중생으로서의 성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늘 갖추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세에 어떤 모습을 하였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또 다음생에 어떤 모습을 하고 태어날지 예견이 되십니까. 과거든 미래든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이 모습에 과거와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에서 참다운 자신의 모습이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 곧 진아(眞我)를 찾는 일이 급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참 모습을 찾는데 두고두고 새겨보는 글이 있는데 바로 만공스님께서 해방이 되던해, 그러니까 1945년 음력 3월 7일(이날은 만공스님의 생신날이다)에 내려주신 전법게입니다. 글자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깊고 넓은 뜻을 나의 참모습에 합일시키려는 것이 내 수행의 요체란 것입니다.

'심법본여여(心法本如如)
비심역비법(非心亦非法)
비법비심법(非法非心法)
분부동산자(分付東山子)'

'마음법이 본래 여여하여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법을 동산에게 나누어 부촉한다'

이것이 무슨 소식입니까. 함께 생각하며 또 한해를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닌 법'은 정녕 무엇인가. 1945년 을유년 3월 초7일 생신을 맞은 만공스님이 직접 동산스님에게 내린 전법게.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공항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정보유토피아 중도사상으

정보화 사회

신년특집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도정보사회는 문화·산업·교육·의료·국방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대변혁을 예고한다. 정보화사회는 과연 인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예

21세기 새 思考로

정보화사회의 불교적 대응

김용정

인터넷망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각종의 정보망의 조직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나날이 변화하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우주의 시공을 중력장이니 정자장이니 하는 현대 과학의 장의 이론이 나온 이후 일부 학자들은 우주를 일종의 정신장, 다시 말해서 정보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대중매체의 정보장 속에 살고 있다.

컴퓨터는 비록 인간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나 마치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기계로 생각될 만큼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컴퓨터가 철두철미 인간의 사고나 두뇌의 대체 기계로 제작되었으나 그 논리적 인식 내지 계산면에서의 정보처리 기능과 능력은 인간의 사고 동력이 상대가 안될만큼 앞서가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로서 편집자, 수집자, 충고자, 의사 결정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1981년 미국에서 최초의 DNA 신디사이저가 등장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의 키보드의 유전자 정보를 타이핑 하는 것만으로도 3시간이 지나면 대량의 합성 유전자가 생겨 나오는 장치이다. 말하자면 컴퓨터에 의하여 유전자를 원하는 속도로 새롭게 설계하여 재조립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기법·8정도 따라 정보생기소멸 이해

이것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정보통신 혁명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거기에 따라 인간의 인식구조와 가치체계까지도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인터넷의 세계화로 인류의 모든 문화와 정보는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화 되고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컨대 현대의 정보화사회란 모든 정보의 송수신이 초고속의 광속의 속도로 전달되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공간적 거리의 차이는 무의미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사항들은 모두 시간에 의해 결정되나, 불교(정토삼부경)에는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의 정보통신의 기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보통신의 발달이 모두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과학 문명이 부정적인 역기능의 일면을 갖는 것처럼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은 컴퓨터와 영상매체를 통한 각종의 음란물의 범람을 야기하고 있고 개인적 사생활의 침해의 무수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기들은 그것이 아무리 능률적이고 편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단일 뿐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자동제어시스템의 첨단기능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조정이 없는한 기계에 불과하다.

사실 기계적인 생각들은 훨씬 능률적이고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한다. 그러나 기계는 비인격적이며 무책임하다. 기계는 일을 빨리 끝내주고 인간이 원하는 것의 목표를 빨리 성취시켜 준다. 그러나 기계 속에는 윤리적 숭고성 내지 덕과 같은 목적 가치 내지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일이나 근로 그 자체에서 오는 창조와 기쁨이 없다.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인 미국의 노버트 워너는 컴퓨터시대의 제2차 산업혁명을 '두 날을 가진 칼'에 비유하였다. 그것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파멸에 사용되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고도의 파괴무기에 컴퓨터가 장

치되어 있음을
그는 인간
만이 존중되
망각한다면
사람들은
만화, 영화,
인 등의 비인
체들이 다
보 매체를
함 등을
히 불교문화
미래학자인
하이터치(정
등장한 것과
게 공존한다
가 놀란만한
우리는 이러
사회에 대응

사이버 인간상

는 해
12연기
가상
수한 정
길, 그
정보
이다.
상만을
가. 중
때문이다. 순수
"이것이 있으
면 그것이 생기
서 설하신 연기
일체의 조화
다'는 상의상대
중도에 내포
는 갈등·대립
다.
불교는 정보
새로운 사고기
정보화시대는
사회를 바라보
지원 육성하고,
는데 얼마나 심
불교를 21세
지지 않는다.
할때만 가능하
주고 인간완성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곳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분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정보'라는 말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산업정보, 군사정보, 학술정보, 문헌정보, 유전정보 등 정보란 전달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며, 정보화란 통신 및 정보기술이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생산, 저장, 전달과 관련된 기술을 뜻한다.

어떤 시대에서도 정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말하는 정보는 그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 보다도 정보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21세기는 정보가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과 일본이 오늘날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고급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선진국 못지않게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의 이용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우리정부는 국무총리를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삼고 2010년에 우리나라가 고도정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 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2000년까지의 1단계 정보화촉진계획을 심의하여 이를 확립해서 지난 6월 11일 공표했다. 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자정부구현,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산업정보화 촉진, 정보



정보화사회 어디까지 갈것인가 — 진교훈

"이미 시공초월 정보 공유"

번역전화·전자신문등 생활 대혁신
진실정보 유통위해 윤리교육 절실

화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활용도 제고, 지역정보화 지원, 의료서비스 고도화, 환경관리 정보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외교·국방 정보체제 확립이라는 10대 과제가 선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즉 '정보고속도로' 조기구축을 위해서 광케이블,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등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공표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가 고도정보사회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도정보화사회로 가는데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정적인 비관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각 개인의 취향에 알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 정보의 내용이 충실해야 할 것이며 정보의 소비자는 가치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로 향하는 정보기술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좀더 전망해 보기로 하자.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는 고속화, 대용량화, 지능화, 소형화, 고밀도화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고속화와 대용량화의 기술발전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에 의해 전자신문, 전자도서관, 전자미술관, 전자박물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선명 또는 입체의 고품질 영상을 고속으로 전송하여 새로운 통신을 창출할 수 있다.

지능화의 기술발전은 번역전화나 텍스트 번역전화를 통하여 통신하는 상대의 선택성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세계화 된다. 정보기술의 지능화는 주문형 비디오 등 풍부성, 다양성, 선택성의 효과를 갖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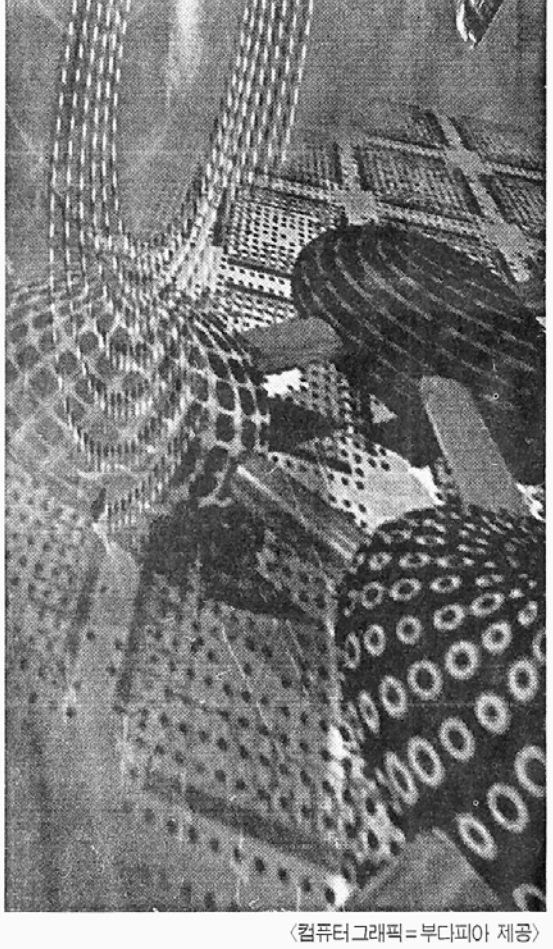
고밀도화와 소형화의 기술발전은 휴대용 소형 컴퓨터나 전화 등을 쉽게 갖고 다닐 수 있게 해주어 어디에서든지 발신과 착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즉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밖에 정보통신 서비스는 정보의 생산, 편집, 축적, 검색, 전달처리와 같은 정보의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예컨대, 문자화, 도형, 사진 등을 포함한 텍스트, 동화상, 동화상에 음성정보를 가미하는 영상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가 발전될 것이며, 음성과 문서와 동화상의 자동편집을 PDF (portable document file)를 통하여 아주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 체계가 아무리 변하고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선천적인 도덕성의 본질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 든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든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정보도 진실, 신뢰, 불편부당, 공정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상징하는 기념물은 정보고속도로, 즉 인터넷이다. 그러면 이것은 참되고 믿을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누가 정보원인가, 다시 말해서 정보의 진실과 공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의 차이가 심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규제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술의 부작용은 윤리교육적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화사회에서 윤리교육을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함께 심도있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윤리문제는 더욱더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해소시키는 길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모두가 더욱더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사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교수·철학〉



〈컴퓨터그래픽=부다피아 제공〉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계사
주지 진현근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전화 732-2115
팩스 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김정락
총무 양심경
기획 이성종
교무 윤성무
재무 김성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0331-34-0040
팩스 0331-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법주사
조실 월산 성림
주지 혜광
대중일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전화 0433-43-3615
팩스 0433-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동화사
조실 진제 주지 무공
부주지 태일 선원장 진허
총무국장 성호 기획국장 오정
교무국장 각정 재무국장 선오
포교국장 자도 호법국장 법현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985-4404
팩스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 일타 주지 법타
총무 돈명 기획 장적
교무 재현 재무 덕조
호법 부용 사회 계선
포교 재경 원주 혜안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63-35-3318~9
팩스 0563-35-0293

르 바른길 제시하자"

교

적일까. 아직은 단언이 이르다. 그러나
기 준비를 위해 정보화사회 어디까지
것되는 부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색해본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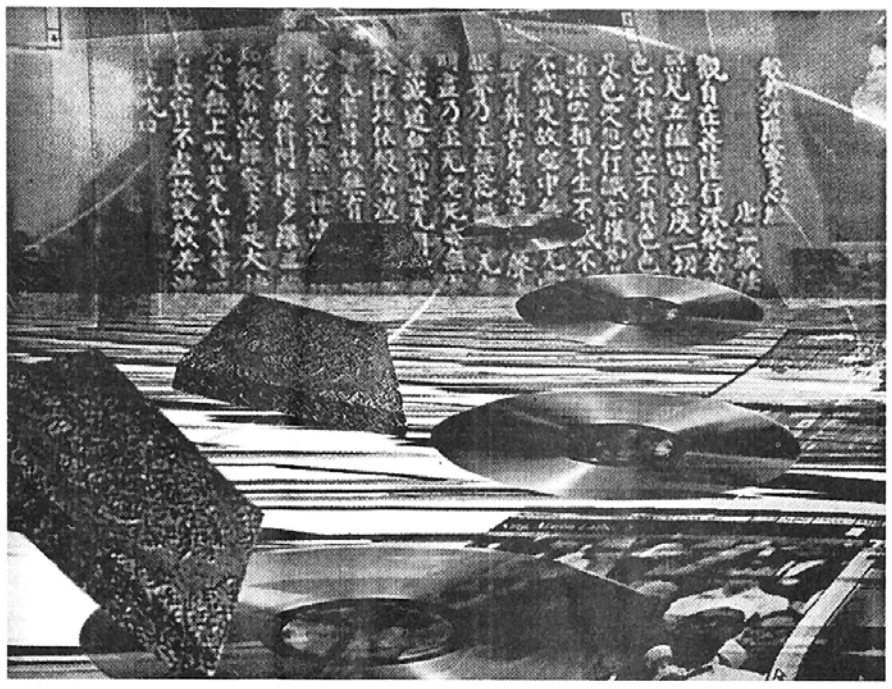
강장해야

알고 있다.
용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기술자
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목적지'를
과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감동과 정서를 희구하면서 텔레비전, 컴퓨터,
알지 등을 통하여 스릴, 성적 충동, 파괴, 잔인성, 살
허구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물론 모든 매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정
인간의 생의 감동과 인격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귀
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건전한 문화, 특
고 신심을 갖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스버트는 초월적인 명상, 요가, 불교의 선 등이 모두
에 속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운동들이 텔레비전이
같이하여 일어났다고 하여 요가와 컴퓨터가 기묘하
2 있다. 사실 현대의 정보화 물결이 좋든 싫든 사회
이룩하고 있고 그 추세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의 기술 정보 시대의 장단을 예의 통찰하여 정보화
불교의 가치관을 21세기의 새로운 사고(思考)로 제시

당등 운영
실 극복

해야 한다. 불교의 8만4천 법문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가르침인 '중도(中道) 사상'이야말로 정보사회의 비관적 예측에 대한 더없
고 있다고 본다. 중도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르게 관하고 8정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에 쏠아져 나와 마치 허공꽃처럼 피었다 지는 무
생기소멸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수용하는
라로 '중도'가 아니겠는가.
는 인류의 행복추구로 인해 더 진화·진보된 사회
왜 우리는 보다더 편하고 보다더 인간중심적인 세
하지 않고 부정적 또는 비관적 예측을 해야만 하는
끝없는 행복추구속에 탐욕과 아만이 도사리고 있기
삶은 행복추구는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
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
것이 멸하면 그것이 멸한다" 2천6백여년전 부처님게
법을 알면 중생계의 고질병인 탐욕을 고칠 수 있다.
의 조건은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
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가르침들은(8정도, 12연기론) 정보화사회에서 우려되
성 상실, 소외등의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답이

아를 위해 중도사상을 이시대의 정보로 가공하여
장되도록 한다.
속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불교는 어디쯤에서 정보화
는가. TV, 방송, 신문, 사이버법당 등 연관된 매체를
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정보일꾼 등 보살을 배출하
고 있는가. 각성할 일이다. 아니 급한 일이다.
과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냥 얻어
부처님법을 정보로 쓰여지도록 가공하여 널리 보급
는 정보화사회가 몰각하고 있는 정신문화를 일깨워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명예교수〉



당대(唐代)의 여걸 측천무후는 불교 특히 화엄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개경게(開經偈)〉는 수세기동안 불교인들이 경건하게 암송하던 바였다. 그런 그녀도 실차난타가 번역한 신역화엄(80화엄)의 바다와 같은 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 법장(法藏)을 불러 강설을 들었다. 금사자(金獅子)에 비유한 설법에도 석연치 않아 하는 그녀를 위해 법장은 상하 사방팔방에 거울을 두고 한 가운데 불상을 놓았다. 불상이 불상을, 거울이 거울을 비치는 그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상호융섭의 현란함에서 그녀는 법계(法界)의 부사의성(不思議性)을 가늠할 수 있었다.

만일 시대를 지금으로 옮겨 오면 어떨까. 과연 법장은 어떤 도구와 비유를 써서 측천무후를 위해 화엄의 이치를 설했을까. 아마도 그는 컴퓨터의 스위치를 점잖게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보시다시피 컴퓨터에는 문자도 뜨고, 그림도 뜨고 소리도 들리며, 활동사진도 뜹니다. 그렇게 보이는 세계가 바로 사법계(事法界)에 해당합니다. 사법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법계(理法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법계는 가시적으로 현상되지는 않지만, 사법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사법계 없는 이법계 또한 불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이법계(理法界)와 데이타인 사법계(事法界)가 동일한 디지탈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는 어떤 것일까요." 법장은 여기서 큰 숨을 몰아쉬고 잠시 마른침을 삼킨다. "제가 처음 문서편집기로 글을 쓸 때가 떠오릅니다. 쓴 글자를 다시 지우는 것도 신기했지만, 혹은 같은 대목을 통째로 다른 자리에 복사할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를 일일이 다시 치지 않고 동일한 대목을 키 하나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그 기적을 말입니다. 기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서를 편집하는 그 자리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불러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스환경에서 윈도우환경으로 바뀌면서는 소리화일까지, 나아가 움직이는 동화상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전혀 다른 성격의 사(事)들이 공존할 수 있고 중층적으로 겹칠 수 있는 것이 사(事)들 사이의 융통(融通)과 무애(無碍)를 증거하는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석연치 않으시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자료파일을 통신망이나 인터넷에 띄워봅시다. 통신망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은 내가 올린 자료 하나를 〈동시에(同時)〉 〈수많은 사람이〉 〈무제한으로(無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정확하게 똑같아서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카피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사의(不思議) 중에 부사의(不思議)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세계에서 사물은 엄격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과율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物)이 일체처(一切處)에 일체현(一切現)이라니… 일중다 다중일(一中多, 多中一)의 화엄의 소식을 참으로 리얼하게 시뮬레이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 안에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들어있고, 세계의 모든 컴퓨터 안에 내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중중무진(重重無盡)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일시돈기(一時頓起)와 호융(互融), 그 기적 앞에서 저는 관세음보살께서 그 천수천안의 발원력으로 삼계(三界)의 모든 중생의 고통과 바램에 따라 일시(一時)에 '나투시는' 응신(應身)의 신통력이 괜한 과장이나 무책임한 위무가 아님을 짐작합니다."

컴퓨터와 정보화에서 불교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동안 고전물리학의 3차원 시공에 묶여 있던 인간의 사고습관이 아원자 세계와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에서 격렬하게 깨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불교적 교설과 같은 '신비주의적 의양'을 띠고 있는 탓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장이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그가 컴퓨터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화면은 감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그 모든 것이 '이미지'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은 실체가 없는 마야(maya)였다는 것을.

컴퓨터와 그것이 취급하는 정보는 일상적 분별지를 정교하게 확장한 것이다. 그 바탕에 숨겨진 지배와 탐욕의 허망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과학과 기술은 언제나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다. 무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다. 2차대전시에 컴퓨터는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최근 대 이란전에 사용된 스커드 미사일의 컴퓨터시스템은 한치의 오차없이 인명과 재산을 파괴할 위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컴퓨터관련학과에서의 연구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개발의뢰라는 섬뜩한 사실에 주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컴퓨터의 발전은 이제 통제불능으로 진입하고 있다. 스위치 하나, 혹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컴퓨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해커가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은행시스템이 한번 뚫리자 전 금융망이 셧다운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그만한 불편은 참을 수 있다고 해도, 만일 핵미사일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에러가 생긴다면? 인류는 이 푸른 대리석 구슬 위에서의 삶을 모두 함께 마감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불교적 진리관에서 볼 때,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노환의 삼독(三毒)이 세워올린 거대한 허망이라면 지나칠 것인가.

어린 부처들이 벌써부터 현란한 허깨비정보들의 변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스스로의 불성을 자각하고 타인들과의 의미있는 교유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나이에 기계를 파트너로 가공할 환멸의 증득에 집단감염되어 '의초부목(依草附木)의 정령(精靈)'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불국토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정보는 권력이며, 감시이며, 또한 단편화의 자기분열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말법(末法)의 쇠세(衰世)의 징후를 뚜렷이 할 것이며, 그럴수록 부처의 법바퀴와 큰 음성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다.

세속사의 변전이 어찌 부처의 큰 가르침을 "더하거나 뺄 것인가(不增不減)." 그런 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나관할 것도 비관할 것도 아니다. 인터넷은 〈쓰레기장〉이지만 또한 〈보물곳간〉이기도 한 것을. 정보의 망망 대해를 표류하는 눈먼 중생들에게 문득, 부처님의 모습과 움직임이 원음과 더불어 컴퓨터 속에서 걸어나온다면 그 또한 장관이 아니겠는가. 부다피아의 대 사업이 대환희의 보리심을 자극하는 크디큰 방편으로 자리잡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인터넷정보 삼독이 세운 '허망의 탑'
"컴퓨터 속에 부처님 걸어 나와야"



한형조

화엄세계와 인터넷

인터넷 '중중무진' 화엄소식 흉내

세계 불교계의 정보화 동향 3백여 불교사이트 '야후' 등록

교리교육·환경·논문등 내용 다양

최근 인터넷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에 유난히 관심을 기울리는 까닭은 이곳에서 일상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관련 웹사이트는 총 8천3백13개. 물론 이 수치는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종교관련 웹사이트의 정확한 총 개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야후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20만여 개로 추정할 때 종교관련 웹사이트의 비율은 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에서도 일상과 비교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종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현재 야후에는 불교와 관련해 약 3백여개 웹사이트가 등록돼 있다. 이 수치는 야후에 등록된 종교관련 웹사이트 중에서 2%를 겨우 웃도는 정도로 기독교와 관련해 개설된 웹사이트가 5천여개로 6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왜소할 따름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 사이트 개수만을 놓고 생각하면 '왕성한 활동'이라는 진단은 아직까지 조급한 감이 없지 않다.

반면 3백여 개의 불교 사이트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들 정보에는 교리교육·학술자료·불교출판·사회운동·불교문화·일반 자료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불교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호주국립大의 콤브스웹(Coombsweb, http://coombs.anu.edu./)을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 개설된 '불학가상도서관'(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은 불교관련 인덱스자료를 얻기 위해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호주국립大의 통계에 의하면 '불학가상도서관'은 매주 4백43만여차례 정도 방문을 받는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정기구독 할 수 있는 전자잡지는 총 30여개에 이른다. 이중에는 〈불교윤리〉 〈사이버상가〉 등의 학술 전문잡지와 티벳독립을 옹호하는 〈진리의 소리〉, 대만불교 포교에 앞장선 〈佛門〉 그리고 불교문화·예술에 대한 심도있는 글을 싣고 있는 〈삼발라선〉 〈트리사이들〉 등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불교의 사회참여 성향을 적극 옹호하고 세계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세계석학들의 논문과 유수 언론사의 기사를 개제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 이들 중에는 제3세계국가에서 폭력·기아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불교평화연맹'과 1930년대 일본에서 불교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창가학회 웹사이트도 '가치있는 사회창조'라는 깃발을 내걸고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미국 현지인이 설립한 '가상선원' 사이트로 미주지역의 법회·법어·신도교육 등의 정보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와같은 가상선원·가상사찰 사이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로터스 갤러리'와 같이 십우도·불상·탱화·만다라 등과 같은 장엄구와 불교예술작품들의 화상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도 다수 개설됐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은 "인터넷은 차세대 통신·미디어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인터넷 전문가(http://www.nw.com)들은 진단하고 있어 앞으로 가상공간에서의 불교의 활동 역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실 월산
주지 설조
부주지 성천
기획실장 종근
교무 정문
사회 혜원
포교 성형
호법 지학
신도회장 권영락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법전(法傳)
주지 보광(普光)
대중일동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10
전화 : 0599-31-1001, 3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조실 석주
주지 중원
신도회장 강창식
청년회장 부현철
▶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387
전화 064-55-6830
종무소 :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전화 : 064-22-2829
팩스 : 064-58-3367

서부은평 사원연합회
회장 서성운(삼천사)
부회장 한자용(수국사)
부회장 김혜진(시연사)
부회장 이법성(관음사)
사무총장 서혜인(신흥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성운
부설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 어린이집
종암 어린이집
수색 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
▶ 서울시 진관외동 산127-1 은평사서함 77호
전화 : 359-7766, 353-3004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차동광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종무소 : 993-3161~3
주지실 : 993-5002
팩스 : 993-3164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난 줄거리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그곳에서만 살고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었던 그곳을 개척한 인담이나 우녀는 아직 그대로 그곳 파도소리에 에워싸인 도량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 귀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민화는 천상계에 태어나 천상의 즐거운 삶 끝에 천상 최후의 고통을 겪은 나머지 다른 세상의 중생으로 떠나야 하였다.

그와의 도반이었던 곰보 남각도 지옥의 여러 곳으로 내려가 그곳의 고통 때문에 한 거름도 걷할 때가 없는 온갖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남각은 특별히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업을 지은 것이기보다 그곳이 어떤 세상인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한 자기 선택의 씨앗도 지니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수미 4주 섬부주 인간세상의 바로 밑에 이루어진 여러 지옥을 통하여 그는 영겁(劫)의 고통 속에서 온갖 중생들의 고통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남각이 보살행을 하는 것 같은 경지도 때때로 내보이고 있었다.

무욕도에서 떠난 무전은 고기 속의 내장에 살고 있는 벌레가 되었다가 그 뒤로는 자라가 되어 물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무전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고 있는가를 알 길이 없다.

과현 역시 행방이 묘연한 채 나고 죽기를 찬란하게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다.

무전 과현은 본디 무욕도 일대의 사나운 조류와 폭풍으로 난파한 뱃사공이었는데 끝내 그들의 바다로 돌아간 이래 윤회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인담에게 큰 기대를 걸게 했던 수원은 어디에 가 있는가? 아니 그와의 단짝인 수원은 무욕도의 나날이 싫어져서 육지로 나가 조선후기의 찬란한 산야를 방랑하는 일에 나선 이래 지금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그가 어디에선가 객사라도 한 것이라면 지금쯤 어떤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의 윤회 전생(轉生)의 행적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아직 그들이 수미산 외곽지대에서 수미산쪽으로 다 가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거듭하는 것을 무욕도의 인담과 우녀는 그들의 높은 안목으로 짐작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 자신의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인담은 묵조선(默照禪)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녀는 염불선으로 새로 건너온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녀 자신은 보타락가의 관음 화신인 듯 섬겨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인담과 우녀는 너무나 투명한 관계이고 서로 잘 아는 처지여서 어느 때는 오랫동안 함께 한 부부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무런 허물도 끼어들 여지없는 오누이같기도 하며 서로 진리를 향하는 경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지극히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정신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욕도의 이상적인 동료였던 합두와 불이가 그들의 어떤 경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들을 자주 떠올리곤 하였다.

인담과 우녀는 또하나의 인담과 우녀로써 불이와 합두인 것인가. 그런 불이와 합두가 무욕도를 떠난지도 오래 된 것이다.

인담이 그렇듯이 불이도 무욕도의 다른 도반들에게는 특이한 시승(詩僧)이었다. 본디 선비였다가 무욕도에 건너온 것이었다.

여기에 빼어난 미모를 지닌 합두가 그런 불이의 대상이 되어준 것이다. 합두는 무욕도 건너의 호서지방 바다 가까운 농촌의 청상과부였다가 죽은 남편의 무덤을 뒤로 하고 무욕도에 건너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욕도에서 남녀사이이기는 하지만 서로 공부를 격려하며 동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이는 전생의 임춘(林椿) 후신이기도 하였다.

임춘은 누구인가. 고려의 불우한 천재시인이었다. 인담이 금속의 스승인 고려의 선객(禪客) 담인의 지시로 어떤 암굴 속에 있는 임춘의 문집을 찾아내어 세상에 밝혀낸 사실과 함께 그런 인담의 문하에 들어온 선비 김종무가 바로 임춘의 후신인 사실은 실로 기이한 바 있다.

그 김종무가 곧 불이라는 법명을 받은 수행자가 되어 선과 시의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다.

두사람 불이와 합두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무욕도의 삶을 마치고 다른 세상에 태어난다.

이제까지 무욕도의 수행도중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대체로 죽은 뒤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은채 그대로 다른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는 이작(異質)도 없지 않았다.

불이 합두는 아귀계에 태어나서 서로 아귀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세상에서는 애욕에 빠지기도 하지만 끝내 그들의 염원에 의해서인지 사바세계로 다시 태어나 중국 오지의 돈황 막고굴을 그들의 도량으로 삼고 수행을 하는 것이었다.

막고굴은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암굴도량에서 그 형형색색의 불교 조각물과 채색벽화 천정화의 현란한 아름다움을 삶의 일상으로 삼아 공부를 하는 행운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끝내는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

이러는 동안 무욕도에서는 한동안 인담과 우녀만의 섬으로 있다가 대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어서 소석이라는 처녀도 건너 온 것이다.

대해는 일부러 하루의 일정에 맞춰 공부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일과 놀이 자체를 공부로 삼고 경전 따위보다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진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소석은 우녀의 지도를 충실히 따라 염불선의 첫걸음을 지날 수 있었다.

어쩌면 소석행자는 지난 날 합두가 차지한 자리를 메워주며 우녀를 닮아가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다가 무욕도는 지난 날의 무욕도 결사(結社)를 떠올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맞아들여야 하였다. 예성강 어귀에서 이미 세상의 흔탁을 넘어 진리에 목마르던 곽효영 명오 상수 상을남매 그리고 사공 박월 길성 순풍이가 있게 되고 그들에 앞서 어린이 우식과 만우가 그들의 천진난만한 도심(道心)을 비추어내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무욕도는 공부하는 수행자들로 우세두세하는 충만의 나날이 흘러가는데 사공이었던 박월 등 세 사람은 도무지 그런 수행이 맞지 않았던지 섬을 떠나서 그들이 머물던 예성강쪽으로 가다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인과 때문이었던지 3악도에 떨어지기보다 도리천의 세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 무렵 돈황 막고굴의 불이와 합두도 도리천 남쪽 성안에 태어나 천남천녀로서의 천상락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상수는 우녀를 관음 화신으로 여기면서 차츰 관음신앙에 깊이 들어간 나머지 바다 저쪽의 어디엔가 떠있는 관음의 섬 보타락가에 대한 하염없는 신앙으로 나아간 끝에 스스로 작은 배에 그 자신만이 타고 가다가 죽어서 떠도는 시신이었다가 지극히 아름다운 천녀를 어머니로 해서 그도 도리천에 막 태어날 수 있었다.

도리천에 태어나는 갓난아기는 이 세상의 아이 6세 정도로 자라나 있는 것이다.

이제 무욕도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합두 불이 그리고 박월 길성 순풍이와 상수들이 욕계(欲界) 제2천인 도리천의 33천에까지 이르렀다.

아니 그들중의 누군가는 벌써 도리천에서 한 단계 위의 하늘나라인 야마천을 꿈꾸고 있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제 현실은 무욕도만의 현실이 아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고대 인도의 상상세계가 그대로 반영된 수미산의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또하나의 커다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 뿐이 아니라. 불이와 합두 같은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가도 영식(靈識)의 불멸어리로 엉겨서 한 몸이 되기도 하는 자유자재에 가까운 동작도 있게 됨으로써 이 세상의 척도 이외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도리천의 천신이 된 사람들의 그 놀라운 눈에 의해서 저 아래에 펼쳐진 수미 4주의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도대체 수미 4주를 바치고 있는 금륜과 수륜 그리고 풍륜의 엄청난 세계까지도 그들에게는 그동안 살아온 전생들의 세계인 것이다.

그것은 새삼스럽게 우주에의 깨달음이기도 한 것이다.

아니 그들이 살고 있던 섬부주로부터 먼 곳에는 섬부주와 어슷비슷한 승신주 우화주 등이 있는가 하면 7산 8해를 이룬 세상이나 그 엄청난 세상을 에워싸고 있는 철위산의 위용까지도 다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욕도에서 우녀의 눈이 우주의 여러 곳을 떠올리는 상상과는 또다른 우주에의 확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이는 "어쩌자고… 뭘 하겠다고 이 세계는 이렇게 크단 말인가. 이 세계는 도무지 허황해서…"라고 투덜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불이와 함께 있는 합두는 그렇게 커다란 세계를 내려다보는 동안 7산 8해 가운데의 바다에서 그곳 도리천의 하늘에게까지 풍겨오는 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우주 앞에서 "아아"라는 감탄사 밖에는 나올 것이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도리천에서 사는 일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뜻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같은 도리천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무욕도의 사람들까지도 마치 어서 오라. 어서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제까지의 거점이었던 무욕도나 무욕도가 있는 섬부주 그리고 그밖의 세 땅과 바다 산들의 세상 그 바다속의 아귀계와 섬부주 밑의 지옥까지도 다 자취없는 상태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면 그곳을 떠돌던 수행자들은 거점을 욕계의 상층 색계 무색계 그리고 허공계의 우주로 옮겨버릴지 모른다.

"아아."

그림 · 조항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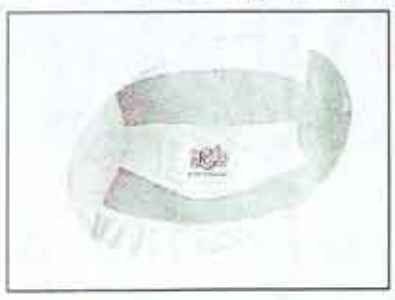
108

언젠가는 무욕도 사람들의 윤회 전생 행적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 그들이 수미산쪽으로 다 가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현실은 무욕도만의 현실이 아니다 수미산의 우주라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또하나의 커다란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무욕도나 섬부주 그리고 아귀계와 지옥까지도 다 자취없이 소멸한다면 그곳을 떠돌던 수행자들은 거점을 색계 · 무색계 · 허공계로 옮길지도 모른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경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3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액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불기 2541년 (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천태종
삼 광 사

주 지 변 춘광
총 무 박 자정
재 무 곽 수산
노 전 이 덕유
노 전 이 용호
신도회장 김 찬권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초읍동 산 131
전화 : 051-808-7111~5
팩스 : 051-803-1331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 주 유 덕암
주 지 최 지원

신 도 회
지 장 회
관 음 회 회원일동
선 행 회

▶ 부산광역시 용당동 산 61-3
전화 : 051-624-3754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김 정태
고 문 강 병중

상임부회장 서 춘석 부회장 최 용원
부 회 장 조 영준 부회장 김 윤환
부 회 장 백 봉도 감 사 정 호철
부 회 장 최 찰 감 사 박 수복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7-14 O/P 1805호
전화 : 051-466-7174~5
팩스 : 051-466-7176

부 산 불 교 연 합 회

회 장 성 오
수석부회장 춘 광
상임부회장 월 강
사무총장 보 암

▶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양정 3동 393-12
전화 : 051-867-0501~3
팩스 : 051-867-0504

사단법인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수
상임부회장 임 채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전화 : 051-464-2020
팩스 : 051-464-4786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

지 부 장 성 오(범어사 주지)
부지부장 정 암(해동용궁사 주지)
부지부장 사상호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 사 김종원(부산상고 교사)
감 사 강경중(해운대 교사)
사무국장 김태권(경혜여고 교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통도사부산포교원
전화 : 051-752-8792

전법 · 도생 · 정진
부산불교교육대학

이 사 장 한 재구
학 장 이 하우
부 학 장 박 주천
총무처장 현 익채
교직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전화 : 051-818-8659
전송 : 051-807-7351

불자신용카드 사업단

본 부 장 박 주 천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설 문 화 관
시민선원
연꽃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부산진구청 뒤)
전화 : 051-816-2241
전송 : 051-806-2430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 인 정
지혜어린이집
재가복지센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3-1 (금곡주공APT 1지구 1단지)
전화 : 051-363-2063
전송 : 051-363-2067

부 산 여 성 불 자 회
(부산불교교육대학옆)

고문스님 김 혜응 회 장 왕 선자
부 회 장 김 옥자 부회장 이 윤목
부 회 장 허 명애 감 사 이 경월
감 사 이 소연 총 무 안 영자
재 무 이 미춘 재 무 도 정애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전화 : 051-816-7836

불 교 교 육 회 관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회 주 석 용산
주 지 석 효선
지도법사 인 후

▶**부산공덕원**: 초하루/지장천도재일/보리회/사자경연회/신도회법회/지장불교대학/어린이법회/중고등부법회/청년회법회/한지공예/다도/ 꽃꽂이
부산시 남구 용호동 370-5번지 용성빌딩 5층
전화 :(051-625-2253~4 팩스 : 051-623-3946
▶**대구공덕원**:초하루/지장천도재일/신도회정기법회/시인교실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17-4버지
전화 :(053-741-0077, 88 팩스 :(053-741-0066
아산공덕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덕원, 우주배개스탄코러사공덕원, 미국버지니아지장선양회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70-5번지 전화 : 051-627-5498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총 재 성 오
부총재 혜 총
사무총장 지 종
고 문 김두현(혜원정사 신도회 전회장)
고 문 이왕락(협성개발 대표이사)
회 장 안기천(성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대자행
부회장 박명환(성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노철수(대웅전기공사 대표이사)
부회장 송창욱(동부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현익채(금정중 교법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통도사부산포교원
전화 : 051-752-8792

불 교 전 시 관

▲ 1층 : 서적, 불구, 테이프, 초파일 용품, 단청, 범종, 탁자
▲ 2층 : 서적
▲ 3층 : 불상, 탱화

대 표 조 재 원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전화 : 051-647-7393
632-7393

용접기자재 종합제조원
주식회사 **일 흥**

대표이사 이건국

▶본사 : 제1공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9-12번지
전화 : 051-301-6746,
302-6935
301-4862
전송 : 051-302-9685
▶제2공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182-2
전화 : 0525-42-5566, 42-6567
전송 : 0525-42-5567

재단법인 **금 정 장 학 회**

이 사 장 서 벽 파

▶ 법인사무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 051-403-7096
전송 : 051-403-9810
▶ 연락처: 관음포교원
전화 : 051-517-8482
전송 : 051-517-8483

부산불교녹야회
(현대불교화요선방)

▲ 매주 화요일 저녁 화요선방을 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회 장 이 종판(도원)

전화 : 051-634-5114

인삼당(건재)약국

▲ 불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대표약사 박 정환

▶ 부산광역시 범일동 830-24 자유시장 3층
전화 : 051-632-0023

자비실천회
찬불가 교실

▲ 찬불가, 가곡, 가요등을 무료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 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회 장 한 영옥
지도강사 이 옥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전화 : 051-898-1547
051-634-5114

동 도 꽃 방

대 표 심 용보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 자유시장 3층 128호

전화 : 051-645-3331~2
전송 : 051-645-3442

BBS부산불교방송 나눔회

회 장 정 수관
부 회 장 김 복자
사무국장 옥 명수

BBS부산불교방송 사진가회

회 장 옥 명수
부 회 장 강 윤성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6 종합건강진단센타 내
전화 : 051-466-2618~9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사명대사 호국성지
재 약 산 표 충 사

주 지 신 허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전화 : 0527-52-1070
팩스 : 0527-52-1836

부산불교유마회

회 장 박 재철
부회장 최 주묵
총 무 신 병묵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산 72-1번지
전화 : 051-635-6773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기도도량
남해 보리암

주 지 동 욱
대중 일동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전화 : 0594-62-6500, 6115

천년고찰 남해 망운산
망 운 암

신도회 일동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번지
전화 : 0594-63-3095~6

정병산 도 덕 암

주 지 김 명현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413
전화 : 0551-91-7263

부처님의 은행
불교신용협동조합
예금 · 적금 · 대출 · 공제(보험)

이사장 사 상 호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4-20
전화 : 051-633-9120
팩스 : 051-645-4002

귀 달리는 법당
부산불교 운전기사회

회 장 백 봉 도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광진가스충전소
전화 : 051-624-2207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기도도량
극 락 정 사

주 지 지 혜암
총신도회 일동(봉청회, 수산회, 정진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산177
전화 :주지실 0525-45-8123
종무소 0525-45-8202

구천산 광명정사

주 지 도 성
신도회장 오창환
신도 일동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38-1
전화 : 0527-356-1960

대한불교 법화종
법 원 정 사

주 지 설 파
신도회장 백 학 수
신도 일동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319-2
전화 : 0525-42-1500

불기 2541년 (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통 천 사
주지 이 태 일
신도 일동
▶ 대구시 동구 효목1동 3번지
전화 : 053-941-3503

대한불교 조계종
동화사 포교원 **관 오 사**
(부설 불교사회 교육원)
원장 지 도
▶ 대구시 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374-3
전화 : 053-784-3669
팩스 : 053-784-2343

법 성 사
주 지 합 장
사부대중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구시 서구 비산동 387
전화 : 053-555-5371

보 광 사
주지 윤 자 호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652-1
전화 : 053-781-5794
783-6090

성 도 사
주 지 합장
사부대중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구시 남구 대명동 379-26
전화 : 053-623-6450

황 룡 사
주 지 합 장
사부대중
▶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959번지
전화 : 053-652-7823

대한불교 조계종
수 도 암
주지 최 현 선
신도 일동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36-14
전화 : 053-743-7070

대한불교 조계종
서 봉 사
주지 김 경 희
▶ 대구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 053-471-4812

서 경 희(춘직)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755-2328

이승권 · 박춘초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781-4213

오 춘 식 (이현)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812-4446

김 종 우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평리동

청 도 과 수 원
박 희 달
전화 : 0542-72-4581

법득 · 법월 · 원광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합창단의 무궁한 발전을 발원하나이다"

제 일 마 케 팅
김원강 · 오화중
전화 : 02-297-7032
053-741-8827

유 효 숙 (춘의)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문호(이효) 김월남(춘해)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766-7116

이 생 약 국
안 종 석
전화 : 053-634-5776

영주상회(번개시장內)
김 윤 동
전화 : 053-422-8431

조정훈(원극) 윤귀자(춘도)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손문철 · 배명옥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628-2829

성당쇼핑(정육점)
하영식 · 송순희
전화 : 053-652-4275~6

윤여사 홈서비스 뱅크
○생활서비스 대행
○여성 인력 무료 알선
윤 성 희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782번지
전화 : 053-634-4862

광 산 약 국
이도현 · 김화풍
▶ 대구시 서구 평리3동 670-1
전화 : 053-555-9490

장규찬 · 김귀연
▶ 대구시 중구 대신1동 257-15
전화 : 053-254-9748,253-7881

신라방 베이커리
김 정 숙(법원)
전화 : 053-636-3579

보국윤활유상사
김 억 이
▶ 대구시 북구 칠성2가 152-179
전화 : 053-356-7750~1

여래기획
○불교출판 기획 · 편집 디자인 전문회사
권 기 철
▶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5-11(3층)
전화 : 053-426-3395

한 진 상 회
전억종 · 김태화
▶ 서문시장 2지구 3층 53호
전화 : 053-254-9834

청 도 식 당
김 연 금
▶ 대구시 동구 신암동 242-7
전화 : 053-952-9466

식당 보덕각시
박 수 복
▶ 대구시 동구 효목동 509-4
전화 : 053-741-0677

델리원 제과
안 법 인
▶ 대구시 달서구 본동 225-8
전화 : 053-621-4315

상신 원색 인쇄사
박 상 신
▶ 대구시 북구 칠성2가 161-11
전화 : 053-353-8415(~6)

한 복 집
이 경 순
▶ 대구시 북구 칠성동 3784
삼성APT 104-1803
전화 : 053-358-9408

천 일 가 구
유 위 현
▶ 경북 경산군 압량면 가일동 92-2
전화 : 053-812-5617

배 광 호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화 : 053-767-4716

대 성 섬 유
임 병 찬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474번지
전화 : 053-641-7711

합천양조장
합천자동차1급 정비공장
이 천 환
전화 : 0599-31-2032

모아 주류뱅크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 금 실

오 정 수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현2동

중앙생사 공업주식회사
이 응 권
▶ 서구 중리동 1061번지
전화 : 053-553-1331

상락 레스토랑
안 진 석
전화 : 053-983-8604

이 상 걸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구시 수성구 상동 69-11

원 갑 수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우유 평리보급소
유 심 관
▶ 대구시 서구 평리3동 1078-5호
전화 : 053-561-6049

영화세탁소
이종성 · 최화열
▶ 대구시 서구 비산4동 286-10
전화 : 053-255-0751

박경순 · 장영자
▶ 대구시 동구 율하동 865-4
전화 : 053-961-1270

세 심 선 원
"정축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주 : 암도
원장 : 지경
▶ 대구 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동 606번지
전화 : 053-768-9977

(주)오일산업
○ 스팀파이프 특수규격 인발가공
○ 스팀파이프 절단가공
권 오 일
▶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343-1
전화 : 053-811-3911 · 811-3913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제시

이제열법사 '금강경대강좌' 펴내

사구게 초점 맞춰 생활 수행 안내
경전 안팎 이야기 연결 쉽게 강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금강경〉해설서가 나왔다. 〈금강경〉의 요체를 근간으로 수행법을 제시한 이제열법사(유마선원장)의 〈금강경 대강좌〉(여시아문 刊)가 그것이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수행을 위한 경전공부 시리즈' 첫권인 〈금강경 대강좌〉는 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친 기존 해석서와는 달리 〈금강경〉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해설서로 주목된다.

"〈금강경〉은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통해 실천해야만 그 경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이법사는 〈금강경〉의 수지독송과 함께 사구게(四句偈)로써 경계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법사는 〈금강경〉 반야 사구게와 팔정도·사성제·삼법인·육바라밀 등 불교의 핵심교리를 관련지어 수행의 요체를 삼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 예를 들면 반야 사구게 중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무릇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헛되고 망령되어 진실이 아니니)'을 삼법인의 제행무상(諸行無常)에,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만약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보면)'을 제법무아(諸法無我)에, '즉견여래(卽見如來; 곧바로 부처를 보리라)'를 열반적정(涅槃寂靜)에 각각 관련지어 밖으로 향하는 시비와 분별심을 이 사구게로 비추어 쉬게하는 등 실제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하면서도 불법의 진의를 놓지지 않게 한 점도 돋보인다. 저자가 1년6개월에 걸쳐 직접 꼼꼼하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경전 안팎의 이야기가 생생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부록으로 금강경 반야 사구게 실상관법(實相觀法)으로 삶의 갖가지 경계에 대처하며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조계종 태고종 총화종 등에서 근본경전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0여개 불교단체에서 필독 경전으로 존숭되고 있는 〈금강경〉은 인도에서는 물론 중국과 우리나라, 티베트, 일본에서 매우 존중되어 왔다. 육백반야(六百般若)라고 불리는 방대한 양의 반야경 가운데서도 깨달음의 요체가 가장 잘 드러난 경이기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국내 '금강경' 해설서 700여종

〈금강경〉은 삼국시대 불교유입 초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立法)을 위해 반드시 이 경을 읽게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금강경〉에 관심을 갖고 해석하거나 강설했던 고승은 육조혜능 선사를 비롯 수없이 많다. 이 경에 대한 주석서를 쓴 이는 8백여인에 이르며, 현재 인도본 5종, 중국 122종, 한국 14종, 일본 61종의 저서명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함허선사가 과거 〈금강경〉을 해석했던 뛰어난 다섯분의 가르침을 모아 〈금강경 오가해〉라는 명저를 남기기도 했다. 근대에도 청담선사의 〈금강경 대강좌〉를 비롯, 수많은 명저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되거나 번역·간행된 관계문헌은 약 50여종에 이르고,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약 70여종 이상의 해설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함허선사가 과거 〈금강경〉을 해석했던 뛰어난 다섯분의 가르침을 모아 〈금강경 오가해〉라는 명저를 남기기도 했다. 근대에도 청담선사의 〈금강경 대강좌〉를 비롯, 수많은 명저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되거나 번역·간행된 관계문헌은 약 50여종에 이르고,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약 70여종 이상의 해설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주 총무원장이 황수영박사에게 고문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성보보존위원 19명에 위촉장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및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26일 서울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성보보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황수영박사(전 동국대총장) 등 원로고문 4명과, 범하(통도사 박물관장) 청화(종회부의장) 지관(국립공원위원회 위원)스님과 문명대(동국대 교수) 심우준(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주남철(고려대 교수) 김동현씨(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등 보존위원 11명, 강순형(문화재관리국 학예연구관) 이기선(불교문화연구소장)씨 등 모두 19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또한 김용정교수(동국대) 황규선씨(국회의원) 등 자문위원, 여연(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현고(송광사 주지) 법광(전 조계종 사회국장)스님 등 보존위원 15명, 이영경교수(동국대) 등 전문위원 18명, 실무위원 3명 등 모두 40명으로 구성된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2년동안 813개 역주 꼼꼼히

'직지심경' 첫 완역 박문열교수



"많은 사람들이 〈직지심경〉을 세계최초의 활자본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김광식)의 의뢰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상·하권)을 처음 현대어로 완역한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박문열(44)교수는 "청주가 〈직지심경〉을 찍어낸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날로 떨어지고 그 내용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아 어려운 번역에 나섰다"고 말했다.

강의시간 외에는 연구실에서 역주(譯註)작업에만 몰두한 박교수는 이번 번역을 통해 〈직지심경〉이 불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읽혀지는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려말 禪을 공부하려는 스님들에게 선에 대한 안목을 틔워주기 위해 선사들의 법어와 문답 등을 엮어낸 이 책은 현대인이 읽어도 도움이 될만한 구절을 많이 담고 있어 국민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

박교수는 서지학을 전공한 인연으로 2년여동안 8백13개의 역주를 꼼꼼히 달아가며 가능한 읽기쉬운 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저본(底本)으로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금속활자본을 주로 사용하고 빠진 부분은 그 이듬해 찍어낸 여주 취암사 목판본을 이용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어록중에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선문답, 시, 편지 등을 담고 있는 〈불조직지…〉는 〈경덕전등록〉 〈오등회원(五燈會元)〉 등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요체를 편성해 〈직지심경〉이란 별명을 얻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발행, 비매품 204쪽.

"태고 보우국사 법통 재조명"

대륜불교문화연구원 15일 학술발표·전서출판 기념회



◇태고보우국사 진영

한국불교의 종조논쟁을 불러일으켜온 태고 보우국사의 법통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학술발표회가 열린다.

(사)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스님)은 오는 15일 오후1시 불교방송 3층대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 전서출판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태고 보우국사 법통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보우스님이 한국불교의 종조인가 아닌가, 임제종맥을 이었는가 아닌가의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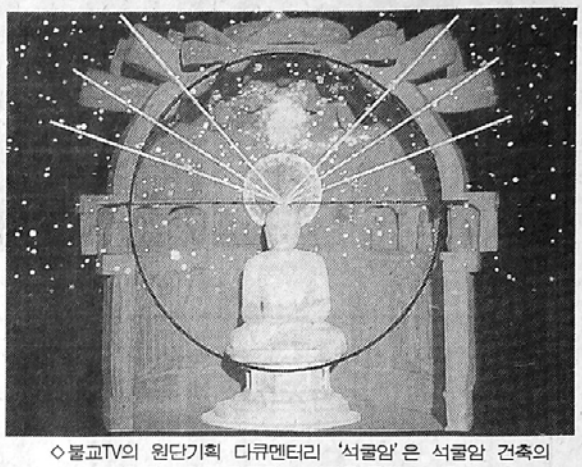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이 '태고보우의 법통과 법계' 권기종교수(동대 불교문화연구원장)가 '태고보우국사의 사상과 위치' 이봉춘교수(동대 불교학과교수)가 '태고보우시대의 불교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윤길(동국대) 서종범(중앙승가대) 강건기(전북대) 최성렬(조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현재 한국불교의 종조논쟁은 송광사와 故이종익 故이불화박사가 보조종조설을, 성철 운제 덕암스님이 보우종조설을 각각 주장해왔다. 또 보우종조설을 주장하더라도 성철스님등 조계종측은 중국 임제종 법맥을 이었다고 하는 데 반해 덕암·운제스님 등 태고종측은 태고보우스님이 중국에 가기전에 이미 확철대오했으므로 법맥은 독창적인 것이라는 학설을 내세우고 있다.

학술발표회에 이어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는 1천4백쪽 분량의 '태고보우국사전서(전2권)' 출판 기념 법회가 열린다. (02) 732-3920

안방서 석굴암 참배

btn 다큐 '석굴암' 1일 방영



◇불교TV의 원단기획 다큐멘터리 '석굴암'은 석굴암 건축의 조형미와 신앙적 의미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조명한다.

1997년 정축년을 맞아 볼거리가 풍성한 신년 방송가에서도 특히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석굴암 원형의 신비를 밝혀내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불교TV와 KBS 제 1TV에서 방영된다.

불교TV의 원단 기획 다큐멘터리 '석굴암'(1월 1일 오전 11시 5분)은 38체의 불보살이 체계적으로 배치된 세계유일의 석굴인 석굴암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남김없이 보여줌과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신라인들의 불국토의 꿈과 신앙을 조명한다. 특히 불교TV 제작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들에 의해 본존불의 시야를 가리는 장치로 올려놓은 무지갯돌의 해체를 시도할 예정이다. 일제의 무지한 보수로 훼손당한 채 국민전체의 무관심속에 반세기가 넘도록 방치해둔 이 무지갯돌의 해체를 위해 범불교적인 캠페인의 전개를 촉구하는 등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것.

KBS가 방영하게될 10대문화유산 시리즈 4편 '석굴암'(1월5일 밤 8시) 또한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석굴암의 현재모습과 과거의 원형을 재조명, 우리의 대표적 문화재인 석굴암의 보존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준다. 이 두편의 다큐멘터리는 석굴암 조형의 아름다움과 원형의 신비를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끈다.

이밖에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TV가 준비한 신년특집 리포트 '정축년 화두 사찰환경'(1월 2일 낮 1시30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댐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저술의 성지 인각사와 여천공단으로 인한 피해로 폐사위기에 몰린 흥국사 등지의 현장리포트를 통해 사찰환경 파괴의 현장을 고발하고 관련법안의 검토와 불교시민단체의 연대운동 계획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은자 기자

〈신년 특집 프로그램〉

구분	BBS	불교TV
1월 1일	· 불교포교의 새 지평을 연다 (9:05~10:00) · 미래지향적인 불교 (10:05~10:55) · 10시간 생방송 음악여행 (11:05~20:55)	· 석굴암 (11:05~11:55) · 좋은 벗들의 청정한 세상 (12:05~12:55) · 특선방화-석가모니 1부 (12:55~1:55)
1월 2일	· 미래지향적인 불교 (10:05~10:55) · 10시간 생방송 음악여행 (11:05~20:55)	· 특선방화-석가모니 2부 (11:40~12:40) · 특집리포트-정축년 화두 사찰환경 (1:30~2:00) · 새벽을 기다리며 (10:00~10:50) · 명사대담-고은 (10:50~11:40) · 한국사찰의 門 (11:40~12:30)
1월 3일	· 거룩한 만남-횡성 송미네 겨울나기 (9:05~10:00) · 보도특집-97년 대선정국을 전망한다 1·2부 (19:15~20:00)	· 신년대담-21세기의 한국불교 (11:10~12:00)

문화재단신

'현장법사취경도' 발견

당(唐)의 고승 현장법사가 손오공 등의 호위를 받으며 서역에서 천신만고끝에 불경을 구해오는 모습을 그린 최고(最古)의 '당승취경도(唐僧取經圖)'가 최근 돈황 석굴 벽화 속에서 발견됐다.

홍콩의 문회보는 구랍 23일 돈황 연구원의 된원제(段文杰)원장이 돈황석굴의 유림굴(榆林窟) 3호 동굴이 있는 보현변(普賢變) 벽화 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문회보는 이 그림이 서기 12~13세기 원나라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법사가 파도가 굽이치는 해변에서 가사를 걸치고 마(麻)로 삼은 신을 신고 보현(普玄)보살에게 합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마애불상군 훼손 심각

경주 건천읍 단석산 마애불상군(국보 제199호)이 보호막 부실공사로 인해 녹물로 얼룩지는 등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암벽에 불상과 절이름이 명문돼 있는 마애불상군은 신라시대 불교유적으로 지난 94년 경주시가 6억원을 들여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보호막을 세웠다.

그러나 그 후 쇠기둥에서 녹물이 흘러내려 암벽 명문이 훼손되는 등 보호막 설치 이전보다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성격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下 大明堂 (삼희탑) 急賣
위치 : 충북 단양 적성면 錦繡山 최고요지(임야512평)
※매포IC에서 15분 관광지정지, 버스진입가(왕궁터 형국)
■가격: 평당 45만원(터는 明堂, 값은 공동묘지가격)
■기타: 동남향, 남한강, 도담삼봉이 아래 펼쳐져있는 경치 최고지
연락처 :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절터 구합니다
● 1977년 12월 23일에 열반하신 부산 해동고등학교 교법사로 계셨던 영봉당 김윤주 대종사 스님의 부도탑 조성지 및 절터(부산 및 부산근교)를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곳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9-2 마하포교원 법사 보명 합장 (해동고 32기 김성철 올림)
전화 : 0562-77-5576 015-723-7096

이 연 공 고
법명 : 원 공
속명 : 박순남
상기자는 본인과 사제의 연이 다하여 부득이 이연을 공고함
불기2540년 12월 23일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묵동
성 지 사
주지 윤 도 성(옥례)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척추교정·지압시술 및 개인지도
좌골신경통
TEL : 543-7306, 711-4370
전문시술원 張三洙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이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5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후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화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道貞王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웅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의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음사 : 불단, 문짝
불교여대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48만원
연락처 : (0346)245-0904
※ 운영 주지 법회 가능합니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 원 사
신심이 돈독한 분 (50~60세)
경기도 용인시 수자읍 성복리 393-1
전화 0331-262-0606

늙지않는 피부관리(남·여)
기미·여드름·검버섯·늘어진얼굴
불로항피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 장 이대산

외 28개 종단종정

사무총장 서병렬

▶서울시 중구 순화동 6-17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02-756-1227
팩스 : 774-1487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 (관인)영화유치원

회 주 송월주

대중일동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전화 : 444-4321, 7215

대한불교보문종
보 문 사

주 지 황 법 준
부주지 조 묘 관
총 무 이 법 선
교 무 김 진 우
재 무 오 인 태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168
전화 : 928-3797, 926-9752

대각사 대각선원

•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
조실·주지 불심 도문

● 부주지 : 무심 보광
● 총 무 : 각천 청청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전화 02-765-0972
팩스 : 02-742-2126

금강산 **화암사**

회 주 오현
주 지 문석

전화 : 0392-33-5827

두타산 **삼화사**

주 지 (자광)이원행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전화 : 0394-34-7661~2
전화 : 0394-34-8313
전화 : 0394-34-7546

파라미타 수행원 개원
"각 운동"의 횃불을 드높이며

법 주 광 덕
원 장 성 타
주 지 송 암
회 장 자신 신영균

대한불교조계종 반야바라밀결사
보현도량 도안사 · 파라미타수행원

▶도솔산 도안사 0334-676-8700
관악산 정광사 02-598-5291

삼 보 사

주 지 윤지원
신도회 회장 홍성걸
거사회 회장 박순배
연화회 회장 차정순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352-6406
팩스 : 389-3262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위탁운영체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관 장 이 명 우
실 장 맹 경 륜
임직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번지
전화 : 646-6815~9, 646-0181~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박 종 하
신도회장 유무심하
신 도 일 동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전화 : 582-8609

덕불산 **불광사**

주 지 자 현
신도 일동

▶인천시 서구 석남1동 덕불산
전화 : 032-583-5238

옥수동 **미 타 사**

주 지 재 호
교 무 명 수
재 무 법 련
대중일동 · 신도 일동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95
전화 : 297-1992

청 계 사

신도 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
전화 : 0343-26-2348, 26-2670

관악산 연주암

회 주 서 정 대
선 원 장 명 진
한 주 성 문
주 지 이 자 승
신도회장 배 봉 환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85-1
전화 : 02-502-3234
팩스 : 507-0031

진 관 사

주 지 진 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전화 : 359-8410

경 수 사

주 지 김 보 경
신도회장 조 상 래
신도일동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전화 : 0334-72-3668

대한불교총화종
정 은 사

주 지 이 기 태
신도 일동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4동 18번지 21/2
전화 : 032-875-5280 , 3459

한국불교태고종
백련사 **포교원**

원 장 박 지 상
신도 일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2-16
전화 : 547-8268 , 8269

법 수 선 원

원 장 이 명 진
대중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61-18
전화 : 3411-1139 , 445-1368 , 9911

수 안 사

주 지 박 세 민
이 사 장 서 대광명
신도회장 이 여래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번지 12호
전화 : 587-4677 , 3213

과천 관악산 **보 광 사**

주 지 강 종 훈
신도회장 보 리 성
부 회 장 유 수 경
부 회 장 장 혜 광
대중 및 신도 일동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 126--18
전화 : 02-502-2262

북한산 **무 량 사**

주 지 무 량
신도 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
전화 : 02-355-5264 , 351-3789

청 룡 사 마야합창단

주 지 김 법 운
합창단 · 신도 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전화 : 612-0609

법 성 사

주 지 이 석 천
신도 일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2가 산23-14
전화 : 651-4382

정 토 사
배달문화 선양회, 설산장학회

주 지 설 산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전화 : 379-5502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
이사장 이 지 관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전화 : 765-9602~3 , 팩스 : 765-5673

대한불교 조계종
고 려 선 원

주 지 영산(안산사암연합회 회장)
신도 일동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51
전화 : 0345-409-3658

정 각 사

주 지 이 광 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전화 : 742-1231

삼 성 암

대중 및 신도 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
전화 : 988-1996

문화재 수리: 단청기능 708호.도금기능 821호
탱화,단청,불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장 정 규 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전화 :730-8072 (야)648-0930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 웅
회원 일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전화 : 742-0172

법 륭 사

주지 덕기 (시흥 불교연합회 회장)

신도 일동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76번지
전화 : 032-697-1155,697-1177
팩스 : 032-697-1178

대한불교 조계종
유 마 정 사

주 지 정 명
외 신도 일동
· 안산 불교교양대학 · 자비의 전화 신행상담

▶경기도 안산시 와동 공구상가 1롬 303호

대한불교 조계종
반 야 사

주 지 능 혜
신도 일동

▶경기도 안산시 와동 857-2
전화 : 0345-403-3929

대한불교 조계종
화림선원

효탄스님외
신도 일동

▶경기도 안산시 일동 산115
전화 : 0345-408-5525

대한불교 조계종
영 산 정 사

회주 대 우
주지 돈 현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4동 8-90
전화 : 032-873-1059, 872-5071

대한불교 조계종
법명사 (부루나포교원)

주지 선 일
부설기관
부루나어린이집(577-5123) , 특수아동조기교육원(583-1669)
부루나청소년교육회관(577-026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84-5
전화 : 032-576-9741, 팩스 : 032-577-0267

청 암 사

주 지 보 운
신도 일동
" 날 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현대1차 APT 109-101
전화 0345-403-0693

안산 불교 신도회

대승,대중,실천 불교를 위로는 삼보를 신봉하고
자정교화하여 보시와 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앙망합니다.
회장 : 김영태외 회원일동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9-15 금산빌딩 405호
전화 0345-411-0108

현 우 공 방

녹차다기,민속품,토기,목공예품,선물용품,실내장
식용품,지리산 야생녹차,조태연家, 수제품 판매

대표 : 정 순 용

▶경기도 안산시 원피동 다농 마트 1층
전화 : 0345-87-6306

삼 보 사

주 지 대 평
신도회장 신재철
총 무 전인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31-3
전화 : 032-542-5131

대 불 공 예 사

● 불상조성 ●
청동, 석조, 목조, 특수합성수지
친불, 삼천불, 만불조성, 개금불사
대표 : 박 홍 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199
전화 : 032-575-3349, 578-2618

현불뉴스

월주스님 종정 예방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구랍 20일 통도사로 월하 종정스님을 예방 96년도 종무보고를 가졌다. 종도세 관련부문을 비롯 관람료, 승가대 4년제 승격에 관한 건 등 10개의 중요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가진 이날 자리에는 청하 전계대화상, 월파 통도사주지, 법하 성보박물관 관장 등이 배석했다.

신흥사 신도회 창립

조계종 제3교구(신흥사) 신도회는 지난 19일 강원도 속초 안암프라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노원씨(낙산비치호텔 회장)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흥사주지 도후스님을 비롯 말사주지 및 신도회장단, 동문성 속초시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전녹야원 5일 개원

대한불교법사회 대전포교당 녹야원(원장 박형권법사)이 오는 5일 오후2시 개원한다.

청소년과 대학생불자들을 위한 법회공간과 2만여권의 불서를 구비한 불교전문도서관을 갖춘 녹야원은 대전지역 불교문화공간으로 불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자련 동지 포덕금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려)은 구랍 27일 본회 강의실에서 제6회 동지 포덕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신뇌성마비 1급 장애인 한인석씨, 불안정협심증 이금녀씨 등 중증장애인 7명과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에 성금 및 후원금이 전달됐다. 또 불자련은 이날 북한빈민돕기 성금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전달했다.

노동법 기습처리 규탄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은 구랍 26일 정부여당이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을 단독 기습처리한데에 따른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현정부와 여당의 불신임 및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불련 평불협 등 교계 11개 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단체협의회(회장 법타스님)도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는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회하다보면 하심생겨요"

13년동안 매일 3천배정진 조광명성 보살



60년대 성철스님 청담스님 서옹스님 석주스님이 한철을 지내며 법담을 나누고 매일 108배 참회정진했던 참회도량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 이 참회도량에서 13년을 하루같이 매일 3천배 참회정진해온 '참회보살'이 있다. 조광명성보살(55세·서울 동소문동)이 그 주인공.

조보살은 참회발원 원력을 세세인연으로 생각하고 있다.

"처음엔 업장소멸위해 시작 지금은 일체중생위해 기도"

"처음에는 오로지 참회정진을 통해 내자신의 업장을 소멸하여 부처님 가피를 입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83년부터 5년간 2천배 정진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내자신과 내가족만을 위한 업장소멸 참회는 부질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88년부터는 생전에 성철스님이 불자들에게 권했던 일체중생을 위한 3천배 정진을 하며 남을위한 참회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번뇌없는 참회를 하고 있다.

조보살은 가족들의 출근및 등교를 시키고 아침 10시면 도선사에 올라와 정진하고 참회도량을 정리정돈하는 등 스스로 부여한 소임을 잊지않는다.

참회정진에 온힘을 쏟다보니 처음에는 난관도 컸다. 절하고 집밖에 모르는 보살님의 행동에 처사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의사와 주변일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하는등 수많은 장애를 만나 고민속에서 오직 한마음 굳게먹으며 극복했다.

"참회는 어리숙한 알음알이나 나약한 신심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참회를 생활화한다면 가정의 행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조보살의 참회정진은 자연스레 가족들에게 스며들어 가정화목을 절로 이루게 됐다. "마음을 닦아 나를 바로보는 참회를 하다보니 하심하는 마음으로 다른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조보살은 절을 하게하는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릴없이 절만 하는 소극적 참회에만 머물면 안된다는 당부를 거듭 되풀이하며 조보살은 다시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오늘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삼각산 도선사 야외참회도량은 수많은 불자들이 마애부처님앞에 모여 참회정진에 열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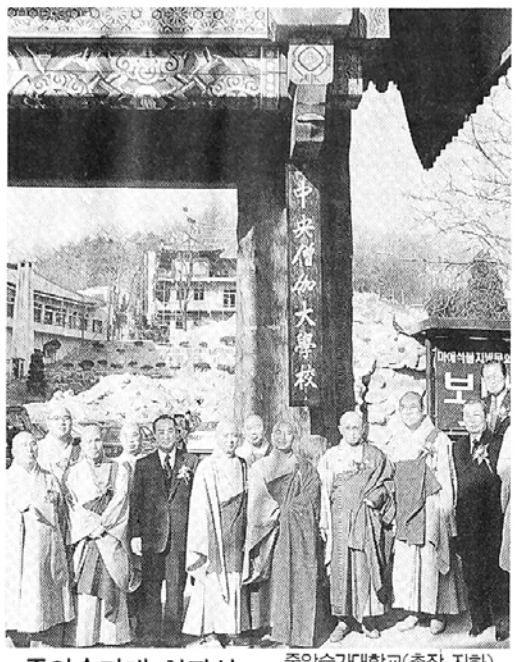
〈도선사=김원우 기자〉

"천원이면 한달식량" 법륜스님 北돕기 호소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근의 언론보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연변을 다녀온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지난 21일 동산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추수한 곡식이 있어 내년 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북한의 현재 식량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구랍 17일부터 20일까지 조선족동포 사기피해사례 조사단의 일원으로 중국 연변을 다녀온 법륜스님은 현지 조선족 동포를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자세히 전해들었다며 사례별로 북한 식량사정을 설명했다.

법륜스님은 "굶주림의 고통에서 수백만명의 동포를 건져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변화와 북한동포돕기에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중앙승가대 현판식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구랍 27일 정진관 대강당에서 정규대 승격 축하법회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 79년 쌍룡사에서 승가학원 설립을 발기한 이래 17년만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산불교신도회

헌옷보내기운동 전개

연변·인도 4성지 주민에게…군법당 불서보급도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가 구랍 12일 출범한 가운데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부산여성불자회 주관으로 올해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불교부산방송과 공동으로 중국 연변의 빈민동포와 인도 4성지 인근마을의 주민들에게 헌옷보내기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통도사 부산포교원, 한마음선원,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등 부산 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신도회 산하 국제분과, 봉사분과, 여성분과 회원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준비위원회를 상설화해 내년에는 몽골동포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산불교신도회는 중국불교협회, 인도불교협회와 교류를 앞두고 이들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원만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헌옷모으기운동은 오는 2월 28일까지 컨테이너 2개 분량을 목표로 접수를 받아 3월 중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동포사기사건으로 민족감정이 나빠져 있는 시기에 진정한 민족애를 재고함은 물론 불법을 전하는 포교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부산불교신도회는 헌옷보내기사업과 병행해 군법당에 불서보내기운동도 펼치고 있다.

전신회 해체위기

박완일회장 사퇴밝혀

전국신도회 박완일회장이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회장은 지난 12월 중순 손안식사무총장과 윤청광감사에게 "자연인으로 남아 불교발전을 돕고 싶다"며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전국신도회는 이에따라 2월 경 대의원총회를 열어 사표수리 여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현 전회장의 구속과 조계종단으로부터의 대표성 부정 등으로 지역조직의 약화를 가져온데 이어 회장유고가 반복돼 사실상 해체위기에 직면했다.

불교방송(사장 조해형)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구랍 25일 심야음악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연출 조은정)'에서 밤 12시부터 1시까지 성탄특집을 방송해 화제.

덕산스님(조계종 문화국장)이 진행한 '살며 생각하며'에서는 캐럴송을 내보내고 평화방송 '신부님 우리신부님'을 진행하는 최성우신부를 연결해 얘기를 듣는등 성탄특집을 꾸몄다.

불교방송 성탄특집 종교화합 모범보여

대전사암련 훼불 총궐기

약불사에 또…기독교 공식사과 요구

이교도들의 훼불만행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구랍 20일 오전 7시 대전 약불사(주지 석철)에 이교도가 무단침입, 불상 5점과 탱화 7점 등을 비롯 각종 불구류 등을 파괴한 후 방화를 시도한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사찰측은 이날 현장에서 사찰방화를 시도하려다 도주하는 김태법씨(35)를 붙잡아 대전동부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귀를 없애고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훼불사건에 대해 대전사암연합회는 구랍 22일 긴급 단체장 연석회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공식사과를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28일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훼불사건에 대한 불교도 총궐기법회를 개최했다.

'화천리' 압도적 지지

경주노선선정공청회

울산시민들의 방해로 무산된 후 재개된 '경부고속철도 새로운 경주경유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천읍 화천리노선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구랍 23일 경주시 육부촌 대회의장에서 7백여명의 관계 학계 문화계 및 경주 울산 포항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 9명중 6명은 건천읍 화천리노선을 주장했다.

강태호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동해남부선과의 교통을 연계하여 경북도청유치를 위해서는 건천읍쪽에 역사가 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근교수(포항전문대 무역학과)는 왕경지역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건천읍 방내리 역사가 타당하나 시간이 걸리므로 건천읍 화천리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 포항 등 동해남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해서 북선전철화계획을 수립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학과)는 경주노선은 토목공학적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경주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매장문화재의 과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천리대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국유사 저술지 인각사 수몰 어불성설"

군위 고로댐건설 철회 촉구

반대위 결의문 발표

경북 군위군 고로댐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지난 21일 인각사 경내에서 법타스님(은해사 주지) 대원스님(인각사 주지) 고로댐건설 반대추진위원회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대회에서 대원스님은 '고로댐 건설계획 관계관 여러분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일연선사의 사상철학을 재조명해 무분별한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의 뿌리를 확인시켜 줘야한다"며 "인각사를 수몰시키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 자손만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타스님은 인사말에서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유서깊은 인각사지가 수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교구 및 종단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로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는 이날 △댐건설반대하여 지역문화 수호 △댐건설계획 끝까지 저지 등 7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끝낸 상태로 97년 6월 이전에 기초설계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응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기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앗사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후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 제96-16268호

● 규격 : 높이 27cm×직경 33cm
●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강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영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쐬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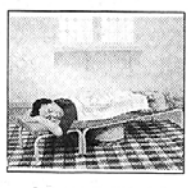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데, 당등의 질환〉


③〈팔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희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 (02) 강남:553-0261~2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종로:747-7033 반포:597-7581 영등포:782-6080
경기지역: 평택(0333)856-6856 분당(0347)66-0049 용인(0335)36-4294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2900
대구(053) 남 구:474-2828 달서구:635-9734
대전(042) 중구:222-4936 서 구:534-4211 동구:253-6446 둔 산:487-7245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김해:(0525)24-4871 진주:(0591)43-4655
경북지역 울산:(0522)74-7536 포항 : (0562)82-3155~6 안동:(0571)53-0229
광주(062): 동구:228-8544 서구:523-1540
강원도 강릉(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0416)856-6856 예산(0458)33-3208 서산(0455)63-0457 아산(0418)43-3510
충북지역 청주(0431)273-2684 제천(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마음 인생의 목표

인생의 최대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위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시 지금의 차원을 퇴폭이하느냐, 아니면 아래차원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참나를 깨달으면 영원히 밝은세계를 보게된다.

(한마음원전)

철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내가 찍었소!"

화상정보를 디지털로 찍고 반도체에 저장하므로 컴퓨터, TV, 비디오등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대 디지털카메라 DV-10A! 현대전자는 모든 정보를 마음먹은대로 편집, 연출할 수 있는 휴대용 화상기기시대를 앞당깁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도 원하는 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역사의 밑그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풍경속엔 정보통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 셈이지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원활하고 건강할수록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융성해집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산물인 정보통신- 현대전자는 정보통신사업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따뜻한 사람사이(人間)의 관계, 생활의 풍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술이 아닌 '관계'로서의 정보통신, 현대전자는 이 정보통신의 힘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 정보통신 전문회사, 현대전자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

현대불교

97 신년특집



태경동래(駄經東來)

그림 · 山丁 서세옥 화백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효스님이 경주 고선사에 있을때 사복(蛇福)이 찾아와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사복의 어머니를 지칭)가 이제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는 고사에서 소재를 따옴. '태경동래(駄經東來)'는 '소가 불경을 싣고 동쪽(우리나라)으로 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어디에 소 한 마리 있던가



고은 신 심우도송

찾아나섰건만(尋牛)
단풍나무 가지에 매미 울음소리 뜬
탈길에는 험한 길
풀섶 헤쳐
강을 만나고
강 건너 다시 먼 산 첩첩일세
어디에 소 한마리 있던가

자취(見跡)
물 건너가
거기 소 발자국 찍혀 있어
반가워라

만났도다(見牛)
만났도다
만났도다
뇌꼬리 노랫소리
봄바람인데
저만치 소 엉덩이 만났도다

너 이놈(得牛)
단소에 코를 꿰어야지
땡겨야지
하지만 제대로 말 듣지 않아
내가 도리어 끌려가네

소 치는 아이(牧牛)
비록 채찍과 고삐 잡아당겨
길들였으나
한눈 팔지 말아야 할 것
그런대도
서로 아는 사이
이랴 이랴

돌아가도다(騎牛歸家)
소 타고 피리 불며
돌아가는 길
채찍과 고삐 쓸모 없도다
늦잠 실컷 자고난 뒤

다 없어졌도다(人牛俱忘)
소도 없고
나도 없고
불화로에 눈 한 점 녹아

없어졌도다(忘牛存人)
없어졌도다
없어졌도다
소 한 마리 없어졌도다
남은 것

돌아와서(返本還源)
돌아오니
그동안 관스레 놀았구나
차라리
눈 멀고 귀 멀어
물 절로 흘러가고
꽃 절로 피었다 지고

한 걸음 내디디어(入鄽垂手)
어찌 여기서 그칠손가
한 걸음 내디디어
흙구더기
잿더미가 껄껄 웃는데
여보게
자네가 고목나무 꽃노릇이나 하게





석탑산업훈장수상



제 17회 세계식품대회 金賞

세계 식품대회 골든 賞에 빛나는

양산 박 식품

면, 국수, 수제비

맛과 영양가에서 세계가 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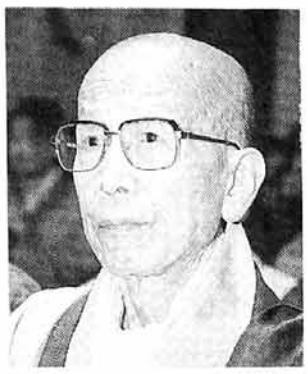
특징 1. 칼슘과 섬유질 풍부
2. 졸깃하고 담백하다.
3. 의서에 당뇨, 종기, 요도에 좋다함

체인점(전문식당)모집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118번지
본사 TEL(0523)83-3339, FAX83-7339
부산지사 TEL(051)526-3734



대선의 해 … 정치인에게 주는 큰 스님 한 말씀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

"황소처럼 정진하여 참사람 됩시다"

우리는 이성적인간에서 욕망적인간으로 전락하여 야만으로 복귀하고 있다. 투쟁의 결과는 비극적 종말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병근을 치유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주의를 초월한 참사람주의이다.

새해는 소의 해이다. 소는 쉬지않고 일하는 덕성을 갖고 있다. 방일하지 않고 황소처럼 정진하여 참사람이 되도록 하자.

우리 모두 참사람운동에 동참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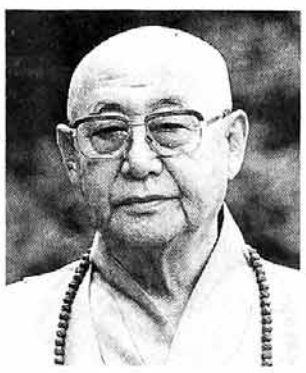
원담스님(덕숭총림 방장)

"구름 걷히면 청산 서로 다투지 말라"

"淸淨本然하거늘 云何忽生 山河大地리요?"(청정이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가 나왔는고?)

이는 만공큰스님께서 일본 총독의 간담을 서늘케한 사자후로 산승이 현금의 정치권과 이사회에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산승은 다만 침묵할 따름이지만 꼭 해야할 말이 있다면 '그르쳐 가지말자어다'. 서로의 다툼인 것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겠는가. "시시비비여! 구름걷히면 이내 청산인 것을(白雲盡處有靑山)"



덕암스님(태고종 승정 · 선암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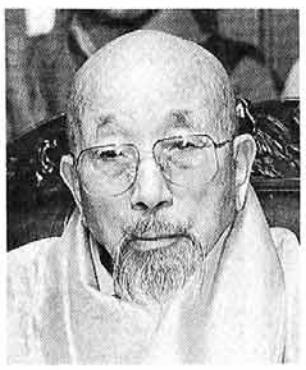
"맡은 일에 충실하라 공정하면 탈 없어"

"公正無事 直說默言중이니라"

맡은바 일에 충실하면된다.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된다. 공정하게 하면 다른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곱은말 정직하지 않은 말은 번거로움이 있지만 ㅈ설은 번거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정직한 말을 해야한다.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은 물론 모두가 모름지기 자기일에 충실하고 바른 말을 실천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기를 당부한다.



비룡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탐진치 씻어내고 나보다 남위해 살자"

사회를 이끄는 이들은 모름지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독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사리사욕에 빠진 지도층 인사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새해에는 이러한 탐진치를 씻어내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또한 자비심으로 나보다 남을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부터 맑아질때 사회는 화합되고 합찬 전진을 하게됨을 잊지 말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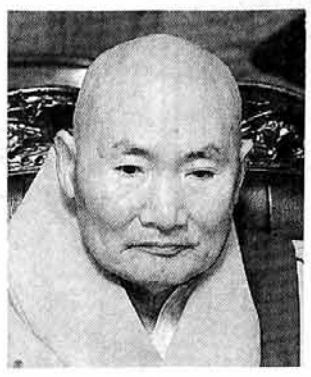
청하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화합 · 단결하고 마음 · 행동 깨끗하게"

첫째, 화합해야 한다. 새해는 어느때보다도 화합이 요구된다. 화합하는 국민은 단결이 되고 단결하면 비젼이 있다.

둘째, 깨끗해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등 모든분야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법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마음, 행동을 깨끗이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르게 해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국가관 민족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사견을 갖지 말고 바르게 했을 때 자손만대에 이어질 것이다.



벽암스님(조계종 원로의원 · 신원사조실)

"매일 매일 참회 지혜 · 덕 갖추자"

지도자는 지혜와 덕을 갖추어야 한다. 지혜는 인과를 살피는 혜안이며 덕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에서 비롯된다. 인과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고 또한 마음조차 먹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단독 운행되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해서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선업(善業)을 쌓기 바란다. 선업을 저축하면 업장소멸은 절로 된다. 그리고 부단히 매일매일 참회하도록 하자. 더 좋기로는 매 순간순간 참회하기 바란다.

우직 · 희생 · 근면 상징

민속에 나타난 소의 의미

불교 '사람의 진면목' 비유

우리의 문화에 나타난 소(丑)는 어떤 모습이며,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직 · 희생 · 성실의 표본으로 요약된다. 물론 소의 중요성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우리 민족과 끊임없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풍요, 부, 길조, 의로움, 자애, 여유 등의 의미를 심어 주었다.

소는 농경사회인 우리 민족에게 농사일을 돕는 일하는 짐승으로 부와 재산, 힘을 상징하며, 농경의 바탕으로서의 인식과 함께 부유와 번창이라는 소에 대한 재산의 관념이 나타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매년 농신(農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물로 소를 바쳤듯이 희생과 제물의 대상이었다. 또 소뼈나 고삐를 걸어 두고 악귀의 침입을 막는 축귀의 역할도 했다.

'소같이 일한다'라는 말처럼 소는 순박과 우직, 근면의 대명사다. 비록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성이 돋보이는 근면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는 종교심의 투영에서도 그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한다. '십우도(十牛圖)' '심우도(尋牛圖)'는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순서를 표현하고 있다. 유교에서 소는 의(義)를 상징하며, 도교에서는 유유자적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는 한국문화 속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현실적 이용도가 높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십이지신 부조 탁본 '소'

넉넉하고 군자다운 성품으로 인해 특별한 상징성과 신성한 위치를 확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우직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거나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짐승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황소고집' '소귀에 경읽기'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리석고 우직한 면도 곧 충직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정축년 불교 小史

▲617년(신라 진평왕 44)=신라 원효대사, 압량군 불지촌(佛地村) 율곡(栗谷) 사라수(娑羅樹) 아래에서 출생. 이름은 서당(誓幢).

▲917년(신라 경명왕 1)=8월, 선각형미(先覺逈微), 무위갑사에서 입적(864. 4. 10 출생).

▲1097년(고려 숙종 2)=△2월 23일, 국청사가 준공되자 왕이 친히 경찬도량(慶讚道場)을 개설. △9월25일, 회경전에서 백고좌도량을 개설, 승려 1만명을 공양.

▲1217년(고려 고종 4)=△1월, 홍왕사 홍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승려들이 최충헌을 죽이려다 실패, 수많은 승려들이 죽임당함. △5월 8일, 대장군 자윤심이 양광 · 충청 도내의 병사와 승군을 이끌고 글안병을 막음. △12월 12일, 왕이 몸소 선경전에서 사천왕도량을 개설.

▲1277년(고려 충렬왕 3)=△2월 15일, 왕륜사 장육소상(丈六塑像) 조성됨. △5월 4일, 승려 육연(六然)을 강화에 보내어 유리기와를 굽게 함. △7월 23일, 왕이 궁을 희사하여 민천사(旻天寺)라 명명.

▲1337년(고려 충숙왕 복위 6)=봄, 보광사 창건.

▲1397년(조선 태조 6)=△1월, 신덕왕후 영역(塋域)의 동쪽에 흥천사 창건을 지시, 9월 준공, 선종의 수찰(首刹)로 삼음. 초대주지는 상총(尙聰). △7월, 일본 승려 원해(原海), 처자를 거느리고 귀화. 의술에 정통하므로 환속시켜 전의박사(典醫博士)를 주고 평성(平姓)을 내림. △승려 각추(覺錐)를 일본에 보내어 인호(隣好)를 닦음. △9월 24일, 진관사 수륙사(水陸社)가 완성되니 왕이 친히 시찰함. △11월, 일본 구주탐제(九州探題) 원도덕(源道德),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청.

617년 원효대사 불지촌서 탄생
1097년 국청사 백고좌 도량 개설
1937년 선학원서 현행 법복 제정

▲1457년(조선 세조 3)=왕이 몸소 영응(永膺)대군 담(瑒) 등을 지휘하여 〈능엄경〉 〈법화경〉 등을 교정(校正)하고 홍준 등을 시켜 함허당의 〈금강경설의(金剛經說誼)〉를 교정하여 오가해(五家解)에 넣어 1책로 하여 각 1백건을 인간(印刊)했다. 또 〈법화경〉 〈능엄경〉 〈번역명의(飜譯名義)〉 각 1백건을 인간하고 〈법화경〉 1권을 금서(金書)하고 〈법화경〉 〈지장경〉 〈범망경〉 〈기신론〉 〈행원품〉 각 1건을 묵서(墨書)함.

▲1637년(조선 인조 15)=1월, 명조(明照)에게 '가선대부 국일도대선사 의승도대장'의 직호와 직첩을 제수했으나 받지 않음.

▲1877년(조선 고종 14)=△4월 11일, 활해성여(闊海性如) 입적(1804 출생). △9월 28일, 일본 진종대곡파(大谷派) 본원사 조선개교사(朝鮮開敎使) 오촌원심(奧村圓心), 부산에 건너옴. 11월 8일 법회 개시. △낙파인성(洛波印性) 입적(1794 출생).

▲1937년=△1월 25일, 전남5본산 연합회 창립(송광 · 백양 · 대흥 · 화엄 · 선암사 참가, 이사장 임석진) △1월 31일,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駒澤대학에서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임원 개선. △2월 25일, 31본산주지회의 개최, 총본산건설기초위원 선정(이종욱 외 13명), 대종정(大宗正)을 종정으로 개칭 결의. △2월 26~27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31본산주지회의 주최, 조선불교진흥책 ·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및 중앙불교전문학교 개선 협의. 마곡사 주지 송만공(宋滿空), 27일 회의석상에서 조선불교에 대한 총독부의 감독 · 간섭 철폐 요구. △2월 28일, 총본산의 사명(寺名)을 태고사로 인가 신청. △3월 1일, 경남3본산종무협회, 월간 〈불교〉를 新제1호로 속간. 편집 및 발행인 허영호. 제67호(1944. 12. 1)로 종간. △3월 5일, 제1회 총본산건설위원회 개최 △4월 8일, 금년부터 화제(花祭 · 부처님오신날)를 양력 4월 8일에 거행 △5월 7일, 중앙불교전문학교학생회, 교지 〈럼(룸)비니〉 창간. 제4집(1940. 3. 10)으로 종간. △6월 16일, 혜월(慧月) 신혜명 입적(1862. 6. 19 출생). △7월 1일, 활해(闊海) 정광진, 월간 〈불교〉 신제5집에 〈조선불교의 사법(嗣法)계통〉 발표. 보조-나옹-환암(幻庵)-무학-서산 법통 주장. △8월 3일, 선학원에서 전국선승유교법회(全國禪僧遺敎法會) 개최. 이 때 최법술의 제안으로 현행 법복 제정. △8월 15일, 원보산, 방한암 현토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 간행(상원사) △8월 28일, 원보산, 방한암 현토 〈보조선사법어〉 간행(상원사) △8월, 이종익 등 3인, 일본 경도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대회에 참가. △9월 1일, 총독부, 해인사 대장경 인출(印出) 시작. △9월 28일, 해동역경원(원장 김구하), 해인사에서 임시도감회(臨時都監會) 개최. △교세현황=사찰 1336개, 스님 6648(5676+972)명, 포교당 846개, 포교사 1045명, 신도 49만8085명.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문화유산의 해 프롤로그

전통문화 뿌리는 튼튼한데…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사업이 전국민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테마가 있는 불교문화재 보기' '문화재 훼손현장 고발' 등을 연재할 계획이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보존하는 연중기획에 앞서 프롤로그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장경호
〈경기도 박물관장〉



◇경주 남산 냉골 어귀길 옆에 있는 머리와 손이 떨어져나간 여래좌상. 문화재를 함부로 방치해 온 우리의 문화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질만능으로 훼손된 은근·끈기 회복을
英·日등 문화보호시민운동 '좋은 본보기'
고유문화상품 개발 '반만년 역사' 알려야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OECD에 가입되는 등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지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문화 생활체계 면으로는 낙후된 면을 보이고 있음을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면은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 정신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지적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의 좌하현(佐賀縣)의 요시노 가리 유적의 경우를 보면, 1986년 이곳에 공장을 세우려 발굴조사 중에 주위에 도랑과 목책으로 둘러진 선사시대(彌生時代)의 취락과 옹관묘 군등이 노출되어 이곳을 발굴한 후 옛 모습대로 추정 복원하고 정비하여 관람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유적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년 대구 시지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무수한 신라 고분과 또 취락 유적들이 출토되었지만, 조사도중 발굴단과 사업자간에 충돌로 사업자측에서 한밤에 불도저로 취락 유적을 밀어 유적을 파괴하였다.

이 유적은 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요시노 가리와 같이 재현을 할 수 있는 유적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국토 건설 사업이나 철도, 도로공사, 공장건설 사업 등으로 발굴조사를 거쳤던 안 거쳤던 상관없이 파손된 유적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여 우리들의 가치관이 너무 물질과 경제 우선으로 한시적인 이익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와 같은 역사도시 유적 환경의 파괴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인 아름다운 강산이 개발과 편의의 목적으로 점차 파괴 오염되고 있음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학계나 당국의 노력으로 어쩌다 유적을 보존하더라도 그 유적이 영위하였던 역사환경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고작 유적만을 보존하는 형편이다.

역사를 살펴봐도 중수지리사상의 경우 중국의 도교적 요소를 받아 들여 일으켰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수려한 강산에 걸맞게 되어 중국보다도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더욱 발달되었고 근래에까지 양택이나 유택을 잡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 유적을 볼 때 그 환경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양문화가 우리의 빈곤한 여지를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는 얼마전 70년대에 잘 살아보자는 정책하에 새마을 운동을 펴서 많은 성과를 얻어 경제는 일으켰지만, 초가를 없애고 양철지붕을 잇는 등 전통적인 역사 환경을 많이 훼손시켰음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또 이렇게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선진국에 여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본 주택들이 뾰족지붕을 하여 다락방을 둔 것을 보고 와서 이것을 흉내내어서 소위 불란서집이란 것이 한참 유행하다가 사라진 것도 잘 알 것이다. 북 구라파에서 지붕이 뾰족한 것은 기상 특징으로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것을 속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화의 뿌리를 알았다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민족의 긍지와 생활 원동력에 뒷받침이 되게 한다. 둘째,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정서적 문화의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아 이것이 세계로 알려져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다. 넷째,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 세계로 뻗어 경제적 기반에 큰 뮥을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역사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겸한 국토의 보존이란 개념으로 향후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상 몇가지 중요한 목적을 들었는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러한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할 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대의 취락 집터는 지금의 아파트보다 더욱 재산적 가치가 큰 상속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유산은 우리만의 소유가 아니라 훗날 후손들이 대대로 소유할 재산이다.

우리는 지금 경주, 부여, 공주, 김해 등 고도(古都)의 발전상을 보고 적지않은 우려와 가슴아픔을 느끼게 된다. 경주는 고층 아파트로 인하여 역사환경이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고 부여와 공주, 그리고 김해는 이미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역사도시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중에서 제대로 보존된 곳은 없다. 서울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얼마 안 있어 경주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

하루속히 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유산의 해'에 이루어진다면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나 당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나 국민이 나서서 해야 한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내셔날 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백만의 회원으로 중요한 문화유적과 자연환경까지 매입을 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칠 수상의 저택을 사들여 이를 기념관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경치 좋은 해안의 상당한 면적을 사들여 현상 변경을 막고 있다. 이중에는 유전으로 판단되는 곳이 있어 얼마전 영국정부에서 이것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단체의 저지로 중지됐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단체나 보존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해'에 보존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전과 같이 한강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못된다면 역시 일시적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간인 보호 단체로서 능력과 힘을 가지려면 국민의 전통문화 의식이 확대되고 높아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문화학교 설립 입안이 문체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수를 위한 체제가 앞서야 되지 몇몇의 인원을 위한 과정만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많은 상품에서 이러한 활용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쾌적한 강산을 되찾으려면 자연환경을 비롯한 역사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아침 칼럼

삶의 길로 가자

새해, 새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해를 보면 누구나 가슴 속에 희망을 가지게 마련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슬프고, 불행하며, 고통스러운,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인 일들이 죽음과 함께 놓여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일은 보다 즐겁고, 행복하며, 평화로울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삶을 추구한다. 또 그러한 삶의 길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덜 불행하고, 때로는 행복하며, 또 때로는 완전한 행복의 길도 얻는다.

사리사욕 무명을 낳고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삶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모두들 삶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살길은 놔두고 한사코 죽음의 길로만 나아간다.

몇해전, 걸프전쟁이 있었다. 전쟁은 곧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들, 매스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쟁을 원했으며, 찬미하였다. 전 미국이 죽음을 찬미하고, 그리고 나아간 것이다. 걸프전쟁이 터지기 직전, 워싱턴 정가에서는 '프리텍스트'(pretext), 즉 구실(口實)이란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전쟁을 일으킬 구실만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때 어느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피할 길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부시대통령은 기어코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박성배
〈美 뉴욕주립대 교수〉

걸프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죽었다.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그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다.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듯이, 지금도 이라크인들은 이 전쟁의 결과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승자인 미국은 어떤가?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미국은 영광을 얻었는가. 부시는 재선에 실패하고 과거에 병역을 기피하고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빌 클린턴이 새 대통령이 되었다.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이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현대사를 되돌아 보면, 우리 민족이 지금껏 살아있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을 서로 죽이고 괴롭혀 왔는가. 그 역사적 업보가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국토는 여전히 두동강이 나 있고, 두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더 큰 업보를 다시 받지 않으리라고, 다시는 우리 국민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난 가을만 해도 남북한간에 큰 위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왜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죠지 부시와 정치인들은 정치적 욕망에 눈이 어두웠고, 매스컴은 거기에 편승했으며, 국민들은 미국의 국익과 자존심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과 국민들 모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전쟁과 혁명과 정치적 탄압은 인간의 욕망과 무관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 아니다. 사람들이 욕망에 어두워 그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 불교인들은 얼마나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분하고 있는가. 정말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리사욕에서 일어나는 무명을 깨우치고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국의 현대 불교사에도 싸움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보살의 마음이 '희망'

대처승과 비구승이 싸웠다. 권승과 일반스님들이 싸웠다. 전임 주지와 신임 주지가 싸웠다. 때로는 죽고 많이들 다쳤다. 그 모든 원인은 불교인들 자신이 죽음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불교인들은 흔히들 정치 권력이 불교인들간의 분쟁을 야기시켰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불교인들 자신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불교인들 자신이 아무런 사리사욕이 없었다면 왜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스스로 권력에 기대겠는가. 책임 소재를 권력측에 돌리는 것은 불교의 기본 교리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깨달음이 어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든가. 얼마전에도 정치권력이 불교단체들 간의 불화를 부추긴다는 말이 있었다. 정치권력이 실제로 그랬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런 말이 나온 근본적인 책임은 불교인들 자신에게 있다.

사리사욕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몬다면, 삶의 길은 사리사욕을 버리는 데서부터 열릴 것이다. 사리사욕을 떠난 부처님의 마음,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타 타파의 구별없이 일체중생을 보살피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래야 민족의 위기도 피할 수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새해, 새 아침의 희망이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 104

참회,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길

법요식 때에 외는 참회문은 화엄경 보원행원품에 있는 사구게이다.

"지난 세상 지어놓은 모든 악업/ 하나같이 비롯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말·뜻으로 지은 것이라/ 나는 오늘 지성으로 참회합니다."

살아오면서 그간에 열가지 무거운 금계(禁戒)를 부지기수로 어겼을 터이니 낱낱이 금일에 참회하겠다는 다짐이다.

참회란 뼈를 깍는 뉘우침이다. 자기반성이다. 불보살께 용서를 비는 일 쯤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부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분이 아니다. 빌면 용서하고 빌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찌 평등한 법이요 대자대비의 법이겠는가.

보현행원품의 참회문은 그래서 '시작을 알 수 없는 나의 탐심 진심 치심이 신·구·의로 지은 악업이니 오늘 나 스스로 뉘우친다.'고 말한다.

죄업을 짓고 불보살께 용서를 빌고, 다시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따위의 참회는 참회도 속죄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하나의 탐심·치심을 키우는 결과에 머물고 만다.

진정한 참회란 곧 자기혁명이어야 한다. 참회의 순간 순간에 자신의 탐심 진심 치심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어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욕심으로 얼룩진 안경을 벗어 던지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궁극에는 모든 분별을 벗어던지겠다는 서원이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따르지 않는 뉘우침이란 다만 또하나의 상념일 뿐이다.

내가 지은 죄업을 내가 씻어내지 않으면서 누굴보고 덜어달라 할 것인가.

나의 죄업을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빌어보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고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내 마음속의 부처 - 빛깔도 소리도 모양도 없는 나의 법신불 주인공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길은 그것 밖에 없다. 내가 나에게 자수하는 그 길 밖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 부처님께서 진작에 가르쳐주신 길도 그것이다. 고로 불보살 전에 용서를 비는 식의 참회란 이미 길을 일러준 분에게 내 대신 길을 가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리석고 딱한 일인가. 자신 이외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대신해달라고 빌고 있다면 말이다.



참회는 때를 가리지 않는다. 지은 업을 한 몫에 몰아서 참회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신구의로 업을 짓고 있으니 참회도 생활의 순간 순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로 참회는 곧 참선이다. 끊임없는 회향이다. 방하착이다. 일체는 찰나찰나의 나툼이자 쓰임일 뿐 본래로 공(空)함을 알아 분별을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다. 참회가 단지 뉘우침에 그친다면 어느 때 어떻게 거듭 날 수 있겠는가. 고로 참회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것, 자수하여 광명찾는 길이다. 나의 법신불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아는 것' 때문에 막힌다. 아는 것이 길을 막고 아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행동은 비뚤어지고 마음은 옹색해진다.

내 속에서 나온 그 아는 것이 나의 갈 길을 막고 나를 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매 순간 참회며 살 것인가 아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참회는 평화로 이어지고 평화는 행복을 낳는다. 참회는 영원한 휴양처로 가는 승차권이다.

새해를 맞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분별의 굴레 속에서 하루 하루 탐심 진심 치심을 키우며 살아 가고 있는지를-.

협찬 : 주 인 공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어제 밤에 눈오더니 새날 밝아 꽃이 핍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72-3100
팩 스 (0343)72-2746

● 국내지원 ●

●금왕지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0446-877-5000, 0462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064-21-4662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3
●아산지원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3통 1049번지 Tel :0418-44-1464
●울산지원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0522-44-0884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053-426-2779
●마산지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2~3층 Tel :0551-42-6638~9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042-532-1481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0562-75-3163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Tel :0431-273-6946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0391-651-3003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지원)
● New York (뉴욕 플러싱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Fax : 703-560-5166
● Los Angeles (LA지원) 210 N Catalina St. LA.CA 90004 Tel/Fax : 213-382-1711
● Chicago (시카고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Fax : 847-674-0812

-CANADA (캐나다 토론토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of Argentina Tel : 541-921-9286/ Fax : 541-925-0054
● Tucuman (뚜꾸만지원) El corte (Frente Policia) Avenida. Aconquiza Yerba Buena Tucuman Rep. of Argentina Tel : 5481-25-1400

-GERMANY (독일지원) Broicherdorfstr. 102 41564 Kaarst, Rep. of Germany Tel : 49-2131-969551/ Fax : 49-2131-969552

시방에 가득하신 불보살님을 侍輦으로 모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四十九齊(사십구제)를 통하여
영가의 천도로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입니다"

조 립 식
종 류 ■ 닫집형 輦(연) ■ 일반형 輦(연)

(목공예 전문 생산업체)

● 조립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이동하기에(승용차)로도 간편합니다.
● 가격은 내리고 연은 불교전통 문화의 예술적 작품으로 장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 정교한 조각과 우아한 단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하시면 1개월 이내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 스님의 주문형으로도 제작하여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 ㅁ탁자ㅁ영단ㅁ주련ㅁ법상ㅁ현판ㅁ문짝ㅁ경상ㅁ닫집

藝 腥 佛 美 院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91번지 예성B/D 301호
TEL:(02)925-5070~1(代) FAX (02)925-3991

태고 보우국사 연구 학술 발표회

태고 보우국사 전서 출판기념법회

◑ 초대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물질 만능 주의로 인간 본성을 상실케하고 갈등과 분열로 불교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통불교의 이념으로 오교구산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창종하고 고려말 쇠퇴기의 국운을 바로잡아 보고자 진력하였던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이념을 재조명해보고, 법어를 직접 음미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듦으로서 한국불교계와 사회에 바른 진로를 찾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술 발표회 및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1997)년 1월 일

◑ 학술발표 및 출판기념 법회 ◐

■ 일시 : 1997년 1월 15일 오후 1시
■ 장소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 학술발표(13:20~ 14:20) 주제 : 태고 보우국사 법통의 재조명
1.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위치 권기종(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장)
2. 태고 보우시대의 불교사회 이봉춘(동국대학교 교수)
3. 태고 보우의 법통과 법계 이영무(전 태고총무원장)
■ 토론(14:20~15:20)
1. 서윤길 교수 사회 :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장)
1. 서종범스님(승가대학 교수)
1. 강건기교수(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1. 최성렬 교수(조선대학교 철학과 교수)
■ 출판기념 (15:30~17:00)
■ 출판내용 : 태고 보우국사 전서(1권 법어 기타 450여쪽 Ⅱ권 논총 : 논문 23편 1000여쪽 : 비매품)
■ 출판기념품 증정 : 참석자 전원 태고 보우국사 전서 1질 및 태고 보우국사 유적 답사기 1권(320쪽)씩 보시함
■ 안내 및 문의 : 대륜불교문화연구원(법륜사) : 732-3920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안 덕 암 원 장 서 무 공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112 법륜사 內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흥공업주식회사
대한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류 진 수

▶ 전화 : 0525)45-6391(대표)
▶ 팩스 : 0525)45-6070
▶ 주소 : 김해군 진례면 청천리 607번지

"전국민 대상 포교대책 세우자"

조계종은 97년을 '전법의 해'로 지정했다. 출·재가를 망라한 불교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규모 전법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대중을 불법으로 인도할 것을 밝혔다. 본지는 '전법의 해'를 맞아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율적으로 널리 전파할 수 있을지 일선 포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편집자 주〉

'전법의 해'에 바란다

국제포교사 지속 양성

원명스님 (연등국제불교회관장)



우리 불교가 국제 포교를 본격화한지 30여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외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그 소련 동구권의 경우 하루 아침에 수만명을 불자화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국제포교에 뜻을 둔 불자들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면, 국제포교에 대한 관심은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제포교사 양성은 절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또 현지교포를 포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1사찰 1복지시설' 확대

김철환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장)



그동안 구호성 행사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불교정책이 대부분이었긴 했지만 불교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종단적 정책미비와 인식부족, 불자들의 이질감형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 포교 만큼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장애인들도 불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1사찰 1복지시설 갖기' 운동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 사찰의 참여와 의식변화를 적극유도해 장애인 포교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포교대책 마련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포교 더 관심을

이병두 (파라미타 국장)



한국불교가 청소년 포교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한 결과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 불교가 올곧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올해를 전법의 해로 제정한 만큼 청소년불교 활성화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포교는 곧 미래불교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특별교구제 바람직

경연수 (호국연무사 군법사)



28년이라는 짧지 않은 군포교의 역사가 말해주듯 그동안 군승단은 군내 수계신자 획득·불교정착화·불교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군법사들만의 노력만으로 군포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다.

군은 그야말로 '포교의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을 공략하기 위한 군포교 '특별교구지정'은 어떨까. 군법당과 지역사찰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군불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면 이는 군불자 전법의 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가법사 활동커져야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



현재 조계종에서는 포교사들에 대한 육성사업이 포교사양성에만 그치고 있다. 그 포교사를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기반이 포교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만 각 교구본사 포교국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가법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을뿐 종단적인 차원에서 재가법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재가법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법이란 결국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이므로 스님, 재가법사, 포교사가 합심하여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때만이 명실상부한 전법이 가능하리라 본다.

경전속의 전법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천상과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들도 이제 천상과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중생세간으로 나아가 그들을 제도하여 이익되게 하고 인간에게나 천상에서 안락하게 하라. 또한 법을 전하러 갈 때 짝지어 다니지 말고 한 사람 한사람씩 흩어져 다녀라." 〈불본집행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한법을 실천하고 널리 펴면 신통을 얻고 열반에 이르리라. 그것은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이니라." 〈증일아함경〉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다시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 또한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백천만억 겁동안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진심으로 믿고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복이 앞의 것보다 수승할진대 하물며 이경을 베끼고 받아 지녀 읽고 외워 남을 위해 자상하게 전해준다면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전해준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볼 것이리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가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금강경〉

어느날 부루나존자가 부처님께 문안올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서방 수로나로 가서 법을 전하고자 하옵니다." "수로나국 사람들은 성질이 난폭하여 헐뜯기를 잘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꾸짖더라도 손이나 돌로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칼이나 몽둥이로 너를 찌르고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몸은 언제인가는 버려야 할 것인데 그들이 고맙게도 이몸을 버려 해탈케 해주었다고 생각하겠나이다." "착하다, 부루나여.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구나.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제도받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불안한 사람을 편안케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라." 〈잡아함경〉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시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널리 베푸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재물로써 널리 베푸는 것이다. 이 모든 베품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베품은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니 늘 법보시에 힘쓰도록 하라. 〈중일아함경〉

승방·성읍·부락·마을 중의 어디에 있거나 그 들은 바와 같이 부모, 친척, 선우(善友), 우인 등을 위해 힘 자라는데까지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기뻐하여 부처님을 대신해 가르침을 설해서 차례차례로 영향을 미쳐 갈 것이다. 〈법화경〉

남을 위해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가르치면, 이런 사람은 응당 부처님을 가까이하여 존중하고 공경한 것이 될 것이다. 〈발보리심경〉

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가르침을 설한다. 〈지장십륜경〉

"15일, 14일, 13일, 10일이나 9일, 8일이나 5일, 3일, 2일이나 혹은 날마다 설법하라.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적거든 번갈아 청하고 설하도록 하라. 설법하기를 꺼려하지 말라. 때로는 단 하나의 게송이라도 설하도록 하라." 〈사분율〉

"법을 전하는 일 훌륭한 베품"

한사람씩 법을 전하러 가라
힘자라는데까지 가르침 설하자

김진택법사의 전법이야기



미륵의 절대평등 세상을 꿈꾸어왔던 무등의 한 가슴에 안겨있는 빛고을은 5·18 민중항쟁의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버린 그 마음마저 버려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보다는 전지전능하고 보수적인 신의 힘으로 가슴에 쌓인 한을 해소하려는 서구적 거친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위력앞에 학교에 켜진 부처님의 법등은 하나 둘 꺼져가기 시작했다. 70여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7개 학교의 불교학생회만 가물거리는 불씨를 보듬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불씨를 되지피고 싶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철학을 전공했다는 인연으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러나 경상도 그것도 대구 출생인 나는 80년대 광주에서 부처님 상이라 해도 조심스럽게 가서 제도받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불안한 사람을 편안케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라." 〈잡아함경〉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시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널리 베푸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재물로써 널리 베푸는 것이다. 이 모든 베품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베품은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니 늘 법보시에 힘쓰도록 하라. 〈중일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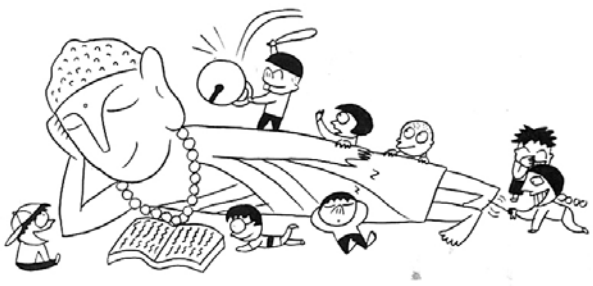
승방·성읍·부락·마을 중의 어디에 있거나 그 들은 바와 같이 부모, 친척, 선우(善友), 우인 등을 위해 힘 자라는데까지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기뻐하여 부처님을 대신해 가르침을 설해서 차례차례로 영향을 미쳐 갈 것이다. 〈법화경〉

남을 위해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가르치면, 이런 사람은 응당 부처님을 가까이하여 존중하고 공경한 것이 될 것이다. 〈발보리심경〉

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가르침을 설한다. 〈지장십륜경〉

"15일, 14일, 13일, 10일이나 9일, 8일이나 5일, 3일, 2일이나 혹은 날마다 설법하라.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적거든 번갈아 청하고 설하도록 하라. 설법하기를 꺼려하지 말라. 때로는 단 하나의 게송이라도 설하도록 하라." 〈사분율〉

원력없이 사는 것은 마구니의 삶이라 했던가. 94년 10월 광륵사 주지 능인법사 보탑출판사 오재만 사장과의 만남으로 '십대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편지' 월간 〈아힘사〉를 발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감로법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일선교사들이다. 95년 12월 불자교사 50여명이 모여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을 결성했다. 이렇게 교사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결집된 힘은 두려울 게 없었다.



"빛고을 청소년 불심 되살리고 싶었다"

'아힘사' 등 발행 문학포교…2천명 수계 '가슴 뿌듯'

거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뭣고'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어쨌든 〈은장도〉 〈나비는 꽃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등 시집과 수필집을 발간하며 문단 주변에서 글쟁이 흉내를 내고 있던 터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여상고에 반야문학반부터 조직했다. 매주 특활시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나 수필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지난 89년에는 첫문집 〈골무〉를 발행했고 그 후 〈무등불〉 〈돌거울〉 등 일곱번째 문집을 발간하였으니 아이들은 그저 부처님의 가피력에 신바람 났고 그 가피력을 입은 아이들은 졸업 후에도 불교청년회, 대불련 등 나름대로 신행활동을 계속했다. 더러는 내가 감히 들어서지 못한 수행자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음이랴.

13개 중·고등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창립됐으며 20여곳의 중·고등학교에 법등을 밝힐 수 있었다. 그 결실은 지난 10월 개최한 제1회 광주·전남 청소년불자 2천여명 합동 수계법회로 모아졌다.

"법사복을 보시해 줄테니 큰 마음 내게나" 하신 천운스님, 영조스님은 "실내체육관을 사암연합회에서 책임지겠으니 힘을 내세요", 혜연스님은 "그까짓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주인공에게 턱 맡겨놓고 서원을 세우세요"라고 격려해 주셨다.

모두 눈물나게 따스했다. 처음 계획하는 큰 행사라 움추러드는 교사들의 가슴. 수계법회때 경비로 쓰도록 하세요, 하룻날 재 올린 일체를 해맑은 미소로 쥐어주시던 현장스님의 따스한 손.

이러한 불자들의 거룩한 마음이 힘이 돼 해거름 아니 어둠살 짙은 밤까지 뛰었다. 그렇게 행사경비는 모아졌고 수계를 희망하는 청소년도 2천명을 넘어 실내체육관 행사가 아닌 구상무대 무각사 잔디밭으로 옮겨졌다.

〈아힘사〉와 '교사들에게 띄우는 부처님의 향기' 월간 〈무등불〉을 발행하면서 법회를 꾸준히 가져온 불자교사 모두의 깊디깊은 원력이었기에 이제는 빈마음으로 내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그때는 진정 두근거렸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시누대 푸른 잎에 듣는 빗소리에도 놀랐지만 지금은 빛고을 어디에서도 수계법회때 받은 단주를 손목에 자랑스럽게 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진달래꽃이 무등에 번지는 날엔 학교마다 부처님의 법등을 밝히기 위해 나는 더욱 분주할 것이다. 광주·전남불자교사 모두의 마음을 합해서.

〈광주·전남불자교사회장〉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현대불교 제2회 신행수기 대상(유마상)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이 란 〈서울 송파구 방이동〉

누구에게나 삶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인생의 고비라고 말할수 있는 술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비를 겪으며, 때론 좌절도 하고 그 힘겨움으로 인해 나약해지기도 한다. 나역시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내게 닥쳐온 시련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며, 특히나 부처님의 가피를 마음 가득 느끼게 해준 하나의 벅찬 선물이었다.

나는 지난해 6월 21일 난소암이란 대수술을 했다. 처음 암진단을 받았을때 놀란 것은 사실이었으나, 거짓말같게도 담담했었다. 피할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 자신에게 타일렀다. 다행히도 내 마음속의 나는 그런 나의 설득을 순순이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동안 부처님 공부를 헛것으로 한 것은 아닌 덕택일 것이다.

그 후 나는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찬찬히 준비를 했다. 수술이란 길이 없이, 죽음밖에 없었다면 그 길도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세상이 좋아져서 수술의 길이 열려 있었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견뎌내기만 하면 현재의 삶이 계속 될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나는 원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수술이 아닌 더한 형태의 방법이라도 나는 따랐을 것이다. 살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욕망 외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신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평소의 내 생각이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그 일만을 하도록 여건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술을 잡은 날 3일 전에 큰아이의 입대 날짜가 정해졌다.

사실 나는 수술 날짜를 잡고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식구들에게조차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수술 하루나 이틀 전쯤에 얘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 미리 알려봤자 걱정만 더 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준비를 했다. 그러니 군에 입대하는 큰아이에게는 말할것도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 작은 아이에게 나의 상태를 알렸고,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한 내용을 일러줬다. 남편과 아이의 놀라움은 말로 할수 없는 것이었지만, 내 마음을 이해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죽음과 싸우게 됐고, 그 결과 지금은 상당히 호전되어 원고지를 마주하고 있으니 내게는 지난 일들이 새삼스럽게 여겨진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상(相)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내게는 커다란 공부였다. 공부를 좀해서가 아니라, 어찌보면 병에 걸려 수술한 일쯤이야 대수는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투병의 과정을 글로 써서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쑥스럽고 우세스럽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굳이 붓을 들게된 심경을 밝힌다면 부처님과 내 도반들, 그리고 고교시절의 은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다.

먼저 내 은사님 얘기를 하고 싶다. 여고 1학년때 담임이었던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린 것을 계기로 선생님과 나는 실로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선생님의 회갑을 기해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올렸다. 그간 선생님은 지방에 있는 중학교의 교장이 되셨고, 나는 장성한 두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이다.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인신데, 나를 만나면서 함께 절에 많이 다니셨다. 공교롭게도 선생님을 만날 때면 꼭 절에 갈일이 생겨, 나를 난처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동행을 해주셨고, 나도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썼다.

내가 이번에 굳이 선생님 얘기를 꺼낸 것은 선생님께서 나에게 잊지못할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등록증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동국대학교로 불러내 입학수속을 마친 등록증을 건내 주었다. 나는 너무 뜻밖이라 너무 놀랐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다.

그때 남편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큰 아이는 대학생,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힘차게 디뎌주신 첫발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원생이 되었고, 가족의 응원속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렇게 시작된 공부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게 되었으며, 선생님께서도 2월에 정년 퇴임하실 것이다. 올 여름 병마와의 투쟁 속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격려 덕분이었으며, 그 결과 나는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정년퇴임과 나의 졸업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많은 시간속에 단한번도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사랑은 나를 좀더 부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했으니, 감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선생님은 불교대학원 등록증을 주시며, "글재주가 있어서 문예창작과에 넣고도 싶었지만, 평소에 불교일에 열심이라 불교대학 사회복지과에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지극하고 세심한 배려인지, 생각할수록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여여회(如如會)'라는 신행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한번씩 우리 집에 모여서 사경이나 경전 강의를 들으며 신심을 다져가고 있다. 매월 작은 회보도 만들어 40여명의 회원끼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우리 모임은 모두 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알차게 꾸려가고 있다.

또하나 '운주회(運籌會)'가 있는데, 회원은 15명이다. 운주회에서는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의 불사를 후원하는 모임이다. 우리는 매달 1만원씩 평생보시를 하기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 작은 힘이나마 꾸준히 해나가면 큰 불사도 이룰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 개개인이 큰 불사를 도맡아 하기도 하지만, 한 절의 불사를 위해 평생동안 꾸준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사 얘기가 나왔으니 불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고 싶다. 불사는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남는 돈으로 보시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를 한다는 생각은, 보시도 봉사도 아예 안하느니만 못하다. 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해야 값진 것이고, 남는 돈이 아닌 절약해서 만들어낸 금쪽같은 돈으로 보시를 해야 참다운 보시라고 믿는다.

언젠가 나는 불사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에 갔다가 작은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 150만원짜리를 15개월 할부로 산적이 있었다. 월급장이의 아내인 내형편으로는 한꺼번에 15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행사를 주관하는 스님께 말씀을 드려 할부로 그림을 샀다. 생활비를 아껴 매달 10만원씩 절에 보냈었는데, 불사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 경험을 한가지만 더 소개를 하겠다.



난소암과 싸움은 相내지 않는 공부
무사히 수술마치고 부처님께 감사의 눈물을…

심사평



기복내용 많아… 작품 수준 떨어져

현대불교신문의 제 2회 신행수기 공모에는 총 8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6편이 예심을 거쳐 본심에 넘어왔다. 심사 기준은 신행수기 공모 취지에 맞추어 감동성을 크게 중시하였으며, 문장력과 구성력을 살폈다.

응모 작품의 수준은 작년 첫 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그 반면 응모자의 연령과 직업은 크게 다양해졌다.

심사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란씨의 수기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를 대상으로 뽑았다. 체험을 바탕으로한 이란씨의 수기는 암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펼쳐나온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그있다. 그래서 특히 신앙적 감동도를 뿐만 아니라 절도있게 과장없이 표현한 문장력과 구성력도 뛰어났다.

투병일기가 많았는데 종교를 신행하는 일이 기복이 전부여서는 안된다. 특히 불자는 영험적인 요소 보다는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인 자기성불로 가는 길에 수행적 체험이 쌓여야 한다. 내년 제 3회때는 이런 수기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고은 〈시인 · 본지 논설고문〉
법산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김광삼 〈본지 발행인〉
최정희 〈본지 편집국장〉

초종파 일불제자의 길을 향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총 재 이외윤
이 사 장 정창교
상임이사 이정숙
교화원장 백운월
서무총장 배정길
이 사 이병돈, 박종, 배창륜, 배정길, 구자일, 이용규, 이정명, 유춘덕, 이상하, 양승회, 권세철, 백운월
정법원 원장 덕 일
교 육 원 장 박 종

총무부장 법 경 총무국장 수 덕
기획부장 덕 일 기획국장 운 선
포교부장 현 진 사업부장 지 암
사업국장 병 탁 홍보부장 해 동
규정부장 섭 산 규정국장 금 강
출판부장 명 현 재정부장 해 욱
재정국장 한세천 연예부장 남강수

직할사업소 무료직업안내소 직업지도사 장정선
신월청소년독서실 관장 배정길
양천구 무료경로식당 대표 배정길

주소 : 동대문구 청량1동 56-16

중앙회관 964-8044/8085
정법원 957-0779/969-1315
직업안내 964-7796/7
청소년상담실 699-2010
전송 965-3143
서울사무소 644-0013/6
청소년독서실 695-4611
경로식당 698-9605

인과선원
주 지 정 덕
신도 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전화 : 993-3706
907-3706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천수경연구
천수경은 한국불교에 소개된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인식되고 독송되는 경전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천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서이다.
〈현행 『천수경』〉은 한국에서 형성된 독특한 신앙의례적 경전이다.
〈현행 『천수경』〉은 한국불교신앙의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장경 어디를 보아도 현재 한국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천수경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저자는 광범한 연구를 통해, 〈현행 천수경〉이 이전의 많은 의식집들의 집대성이며 그것들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과 한국불교 특유의 통불교적 성격, 즉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선 등의 요소를 종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각 지음/신국판 양장/321쪽 값 10,0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선의 생명력을 느낀다!
선의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오늘의 선을 생각케 하는 책!
禪 이야기
초심자에게는 선으로 가는 길을,
달마에서 성철까지!
생동감 넘치는 선의 일화, 선의 역사와 본질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선 입문서.
제1부 아름답고 힘찬 선의 지혜
제2부 선의 기원과 본질
제3부 선의 탐구, 선어록을 읽는다
일지 지음/신국판/390쪽/값 8,0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육조혜능스님의 금강경구결 최초 수록
금강경 육조대사구결
금강경구결은 금강경의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한 금강경의 핵심이다.
1084년 중국 나적스님이 당시에 유통되던 판본들의 오자 · 탈자를 바로잡은 것을 최초로 번역한 이 책은, 『배불론』을 쓰려다 『호법론』을 쓴 당나라때의 재상 장상영(無盡) 거사가 각 품마다 간략한 해의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육조 述 · 이동형 譯 · 송근일 監修
신국판 양장/233쪽/값 6,5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현대불교 제2회 신행수기 대상(유마상)

스님들 수시로 오셔서 주무시고 매달 거실에서 법회가 열리니 아들은 나를 '방이동 포교국장'이라 불러

언젠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 역경원에서 번역한 〈한글대장경〉이 도무지 팔리지 않아 큰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1질을 샀다. 내가 불교 전문학자도 아니지만, 땀흘려 번역한 경전이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집에 쌓아 놓으니 드나드는 도반들이 물어왔다. 저렇게 많은 경전을 뭐하러 샀냐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이들면 경전이나 보면서 살려고 한다고 짐짓 멋있게 꾸며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들도 공감을 하며 〈한글대장경〉을 사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8질을 구입하게 됐는데, 보살을 통해 8질을 팔게 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역경원에서도 놀랐다고 한다. 사실 주부들이 경전을 산다고 해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뜻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기증을 할수도 있고, 번역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내게 닥쳐온 불사는 나는 반드시 동참을 한다.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정도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처님 일에 기꺼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불사도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 마음만 앞서다 보면 무리를 하게되고 불사 본래의 서원보다는 결과에 집착을 하게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자신의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사중의 가장 중요한 불사는 인연불사다. 어떤 인연이든 나는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인연과의 관계에 많은 공을 들인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소홀함이다. 일이든 사람이든 소홀히 하면 내것이 안된다. 특히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연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삶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력도 많이한다. 내가 좀 손허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르도록 노력을 한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어느정도 몸에 배었다. 훈습이란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포교에 무척이나 적극적인데, 그 점만은 우리도 본받아야한다. 교회에 나가는 부인의 경우 옆에 남편 몫의 성격 책을 펴놓고, 나오지 않은 남편의 구두만이라도 가져오는 정성만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포교를 하는데 있어, 자신의 가족을 먼저 조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는 남편을 절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절에 간다고 집안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 저절로 가족들이 따라나서도록 열심히 했다. 부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더 부지런해지고, 다음도 넉넉해졌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전법이 잘된다고 믿는다.

군대에 간 우리 큰아이는 나에게 '방이동 포교국장'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수시로 스님들이 찾아오셔서 주무시고 가고, 한달에 한번 이상은 집안 거실에서 법회가 벌어지니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편도 나의 권유로 송광사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으며, 두 아이도 수련회의 자원봉사를 시켰다. 작년 여름에는 내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병이 나서 내년으로 미뤘다. 남편이 송광사 수련회를 참여한 것은 스님의 권유 때문이기도 했다. 스님의 말씀이라면 남편이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 남편 몰래 스님께 부탁을 드렸었다. 내 예상대로 남편은 동참했으며, 그런 남편이 고마와 나는 3배를 올리려고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실행을 못했다. 수련회 참석 이후 남편의 신심은 날로 증장해 지금은 나보다 더 열심이다. 내가 입원을 한 이번 여름, 남편은 내내 봉은사에 나가 새벽 기도를 했으며, 지금도 일을 마친 저녁이면 꼭 기도를 한다.

나는 요즘 〈법화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공부를 하고있다. 우리집은 늘 그대로가 법당인 것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 품안에 들게 된 것은 남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3년전 남편은 26년간 다니던 직장을 힘겨워했다. 그때 나는 두말않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수고했다. 이제는 옷을 벗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편의 퇴사를 받아들였던 나는 분주하게 새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때 주변의 도반들이 큰 힘이 되었다. 조건없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었다. 그들의 힘으로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잘 꾸려가고 있다.

무슨 대단한 이적이나 신비한 영험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전폭적인 도움, 그 자체가 나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시작한 달인 8월이면 창립 기념으로 불교방송국에 약간의 성금을 보낸다.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며, 도반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나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작년 12월까지 6번의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실질적인 고통도 느꼈으며, 수술로 인한 내 몸의 변화가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 나와 같은 병으로 수술을 한 어떤 환자는 죽음과도 같은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수술실로 들어갈때 웃으면서 들어갔고, 항암주사를 맞으면서도 아무런 내색없이 묵묵히 내 생활을 그대로 했다. 나는 오히려 퇴원을 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집으로 오게된 것이 부처님 덕분이라는 생각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나는 큰 아이가 붙여준 '방이동 포교국장'이란 별명이 과하기는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든다. 내집을 법당으로 만들어 존경하는 스님들을 모시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을 하고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절이란 가난을 팔고 부자를 사오는 곳이고, 슬픔을 주고 기쁨을 가져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실제로 내 경우는 그랬으니까.

연꽃을 피우기 전에, 연꽃을 피울 진흙밭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운 일에도 들뜨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나는 부처님 전에 늘 하는 기도의 말씀을 올린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웃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복을 짓도록 노력을 할까요'



당선소감

"아픔 위로해준 이웃 덕분이죠"



이 란 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연말, 제대로 하지못하고 놓쳐버린 일들을 챙기느라 마음만 급했다. 그러는 한편, 마음먹은대로 이루지못한 한 해의 살이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연말이면 늘 쓸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적지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중한 인연을 되살리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며, 그간의 고마운 사람들을 마음껏 추억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 좀더 욕심을 내어 현대불교신문사의 '신행수기' 공모에서 대상으로 뽑혔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기쁨보다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내 기분으로 내가 만난 사람과,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주신 부처님 자랑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이길 힘을 함께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나혼자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도반등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준 애정의 힘으로 고통을 헤쳐가는 것이다.

길지않은 부처님과의 만남이었지만,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나누기위해 주변 사람들을 부처님께로 주저없이 이끌어 왔다.

참으로 벅찬 뜻밖의 선물이다. 특히 내 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가족과 여여회, 운주회의 도반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싶다. 두서없는 글을 뽑아주신 신문사에도 감사를 드린다.

병마를 딛고 일어나 새로 맞이한 삶을 격려해주는 큰 힘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한다.

신행수기 당선작

본사가 주관한 제2회 신행수기공모에는 모두 82편의 수기가 응모됐습니다. 신행현장에서 느낀 감동과 부처님 가피력의 생생한 증언들을 보내 준 응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엄정한 심사를 거쳐 뽑힌 당선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상(유마상)
▲이 란 〈46 ·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우수상(본사 사장상)
▲이 영 자 〈서울 강북구 수유5동〉 '새싹들에게 주는 좋은약'
▲박 민 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이 몸 끌고 다니는 물건찾아

◇특별상(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최성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생명을 바쳐 불법주고 떠난 아들'

◇특별상(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이 영 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나의 수행 역정기'

◇특별상(천태종총무원장상)
▲장명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건 없는 삶'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 각 성
▶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전화 : 474-0554
팩스 : 472-5292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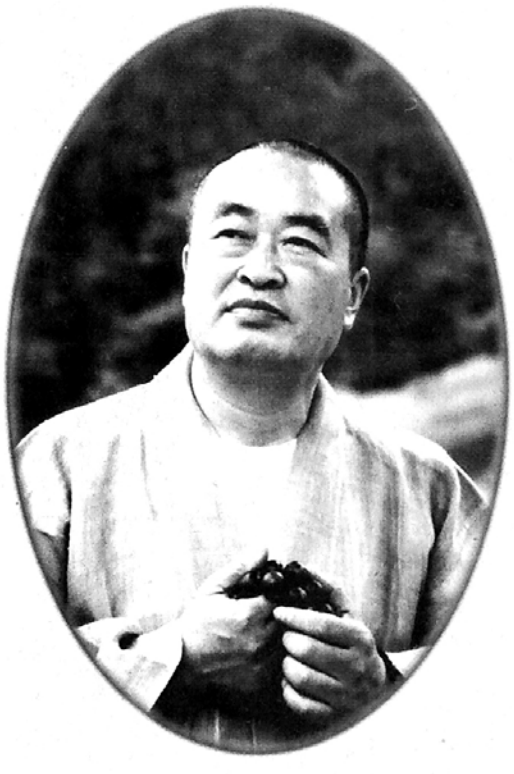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전화 : 732-1206~8 · 팩스 : 732-1207

동명불원
주 지 영산 덕천
신도 일동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7호
전화 : 3427-0108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
최신간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고,
얇아지는 월급봉투, 가벼워지는 호주머니,
감원이니 명예퇴직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밥줄,
사람만 있고 사랑은 없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박삼중 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메시지!
■ 신국판/296면/값 6,500원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였던 틀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바람일 뿐인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닫혀진 눈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어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삼중스님 에세이
15쇄
걸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목탁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걸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숨한 삶의 고비길에서 보살 아닌 보살들을 만나며,
꺾이는 마음의 합장을 곧추세웠다.
살아 성불하기보다 자비한 미소 한줌 잃지 않으려고...
■ 신국판/320면/값 6,000원

24쇄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 2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님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전2권/각권 값 5,500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분 황 사
주 지 종 수
신도회장 서자비행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번지
전화 : 0561-42-9922

대한불교 조계종
보 광 사
주 지 자 성
신도회 일동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
전화 : 0565-82-3004, 82-5183
0565-83-3153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사원주지 연합회
회 장 원 명
수석부회장 지 성
부 회 장 원성, 경희, 현선
사 무 총 장 태일
회원사찰 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7 (삼영빌딩 지하1층)
전화 : 053-427-2963~4
팩스 : 053-427-6505

明正行 顯正露
(바른 삶의 수행이 바른 깨달음의 길이다)
국회정각회장
국 회 의 원 서 석 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16호
전화 : 02)788-2317,784-3280, 738-0726
팩스 : 02)788-3316, 737-4128

원효학연구원
이 사 장 이성타
원 장 김영태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번지
전화 : 0561-42-9922
전송 : 0561-42-9937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오백나한기도도량 보조국사 정혜결사도량
거 조 암
주 지 혜 해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 종무소(0563)35-1369
주 지(0563)35-2609

경 일 정 비 공 장
하 강 수
▶ 대구시 북구 단평로타리
전화 : 053-352-2880

달구벌 관광(주)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나이다."
신 동 판
▶ 대구시 남구 대명 3동 2274-7
전화 : 053-651-9990

불 로 사
주 지 현 오
대중일동
▶ 김천시 아포면 대성 2동 418번지
전화 : 0547-30-1878

대한불청 대구지구 원만사 청년회
회 장 김 장 근
▶ 회원모집문의
전화 : 053-253-3373
954-7233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법회

(재) 선 학 원
여 여 선 원
원장 이 혜 운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전화 : 053-622-0336
053-629-4945

협 신 문 구
변 팔 수
▶ 대구시 칠성1가 19-3
꽃시장 동쪽 100M 지점
전화 : 053-424-6105
팩스 : 053-425-9112

정우건축설계사무소
▲ 전통사찰 설계 전문
서 정 남
▶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808-8
전화 : 053-624-1500
624-1550
팩스 : 053-629-9820

배세복 치과의원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배 세 복
전화 : 053-426-6916

안 동 상 회
김 갑 수(이고)
▶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번지
서문시장 2지구 지하(어물부)
전화 : 053-254-3377

보석의 집
보 배 양 행
심 훈
전화 : 053-755-7680

김천미곡 종합처리장
이 창 섭
▶ 김천시 양천동 843-3번지
전화 : 0547-435-3388

동 인 한 의 원
박 세 철
▶ 대구시 중구 동인 4가 445-1
전화 : 053-422-4978

남두희 · 한법운
"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주) 건 일
▲ 토목, 건축, 전기공사, 주택건설 분양, 전기기기
이종익 · 이순하
▶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1-4
(건설회관 B/D 7층)
전화 : 053-745-0419
053-745-0417~8
팩스 : 053-745-0420

김우룡(법일) · 박경남(법명)
"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구 MBC 미디컴
김 덕
"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97 신년특집

새해아침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동화

한 그릇의 죽 공양



지성스님
〈은영유치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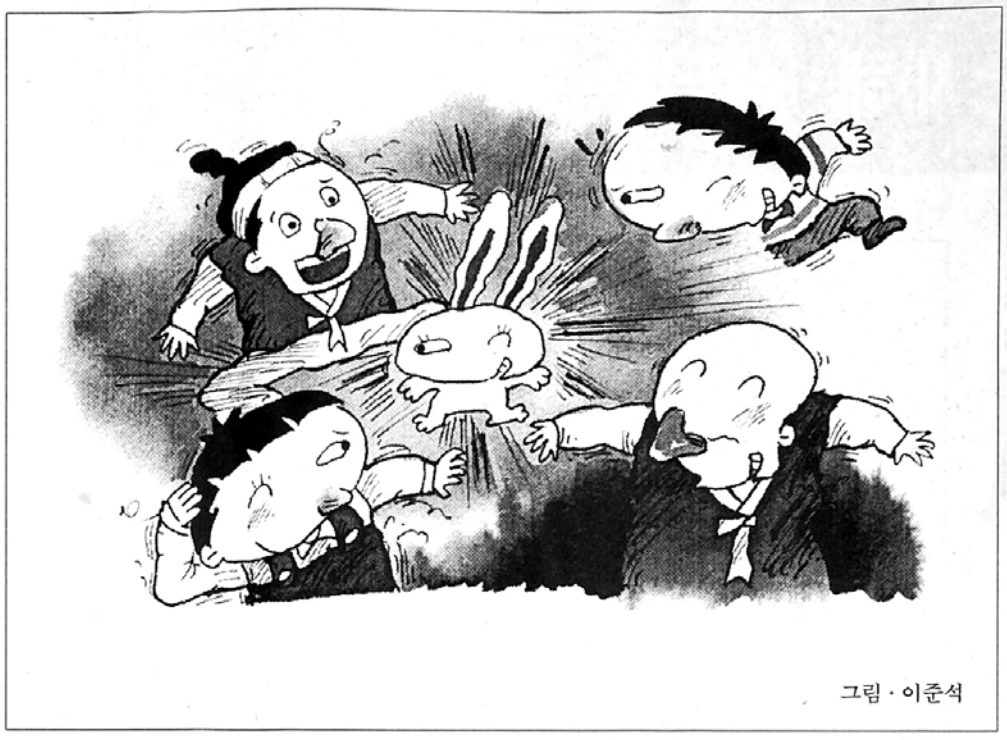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가난한 농부가 발우가 빈 스님을 보고
죽을 정성껏 끓여 공양했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큰 황금을 발견하고…

"이건 내꺼니까 선우 넌 만지지마" 초등학교 3학년인 선재는 선물로 받은 장난감 자동차를 동생 선우가 가지고 노는게 못마땅해 이렇게 고함 질렀습니다.

그러자 동생 선우는 "으아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선재에게 동생과 사이좋게 같이 가지고 놀라고 타일렀지만 선재는 고개를 팩 돌리고 맙니다. 울다지친 선우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동생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선재는 장난감자동차를 옷장속에 숨겨놓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선재는 욕심이 많습니다. 과자를 먹어도 누가 뺏아 먹을세라 숨겨 놓고 먹고, 길을 가다가 거지가 벌벌 떨고 있어도 못본척 그냥 지나갑니다. 또 동생 선우는 법회가 끝나면 용돈 받은 것을 쪼개 고사리 두손으로 정성드려 보시함에 넣지만 선재는 한 번도 보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뜻한 겨울 햇님이 선재의 방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형! 어린이법회 가자. 어서 일어나, 어서" 먼저 일어난 동생 선우가 어서 빨리 절에 가자고 형 선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재는 겨우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하고는 절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린이법회 다녀오겠습니다" 씩씩하게 인사를 한 선재와 선우는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마자 부처님 앞에 공손히 삼배를 드리고는 동생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도 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법우 여러분! 한주일 동안 부처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언니 동생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스님이 묻자 "네에-!" 법당에 모인 어린이들이 큰소리로 대답합니다. 어제 저녁일을 잊은 듯 선재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해 첫 법회지요. 오늘도 스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께요. 잘 들어 보세요"

옛날 부처님 당시 인도의 어느 곳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먹을 것 조차 부족했던 농부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시장에 내다팔아 하루 하루 끼니를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던 길에 농부는 발우를 든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발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본 농부는 몹시 마음이 안되어 '만일 나와 우리집에 함께 가면 조금의 공양이라도 드릴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농부의 마음을 꿰뚫었는지 스님이 농부의 뒤를 따라 집앞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본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쑤어서 스님에게 공양하였습니다. 공양을 받은 스님은 "공양은 고맙게 받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죽을 다 먹으면 당신은 굶을 터이니 이것을 받아드시오"하고 말하였습니다. 농부는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안먹으면 내일 먹으면 됩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다 잡수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죽을 다 먹고나서 농부의 정성에 감사해 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소망을 말해 보시오. 변변치 못하나마 그 소망을 성취해 드릴터이니…"

농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도 많은 재물을 얻어 가난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농부의 말은 들은 스님은 "그 숭고한 소망이 이뤄질 것을 기약합시다"라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산에 또다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농부는 나무를 베다가 토끼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토끼를 잡으려고 가보니 토끼가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황금을 집으로 가져와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스님과 약속한대로 남을 돕는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이법우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주위에는 어렵고 불우한 이웃이 많은데도 도울 생각보다는 엄마 아빠에게 더 안 사준다고 투덜거립니다. 마음만 내면 남을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생활할 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눠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형이나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 보세요. 남을 생각해 양보하고 욕심을 안부리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도 통하니까요. 아시겠지요"

스님의 법문을 들은 선재는 지난 밤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재는 수줍은 듯 동생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형아가 어제는 미안했어. 그 장난감자동차 너 줄께"

"정말이야 선재형!" 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응, 그래. 아까 스님이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눠갖는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하셨잖아. 우리 집에 얼른 가서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재미있게 놀자"

선재의 말에 선우도 빙그레 미소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선재는 '앞으로는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늘 보시하는 마음을…그것은 부처님 마음과 통합니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3박4일(목~일)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차수	기 간	대상	연령	모집인원
5차	97년1월 9일 ~ 1월12일	일반인	20~55세	30명
7차	97년1월16일 ~ 1월19일	일반인	20~55세	30명
8차	97년1월23일 ~ 1월26일	일반인	20~55세	30명
9차	97년1월30일 ~ 2월 2일	일반인	20~55세	30명

※ 우편이나 전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 비 : 5만원
-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일선)
- 교통편
  서울 - 순천 - 녹동
  부산 - 순천 - 녹동] 금진(배로20거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74 송광암
암주: 일선

전화 : 0666)843-8488
팩스 : 0666)842-7307

改 金

사람도 계절이 바뀔때 마다 갈아 입는 옷, 자비로우신 부처님은 더욱더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옷을 장엄하게 입혀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사찰로 직접 방문하여 개금도 가능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전문품목 : □천불 □목불 □동불 □특수불

藝腥佛美院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91번지 예성B/D 301호
TEL:(02)925-5070~1(代)
FAX:(02)925-3991

二軾佛教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教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백의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해동종 총본산
대 원 사
주 지 송산
신도일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전화 : 0331-262-0606
팩스 : 262-1577

대한불교해동종
경남 종무원
종무원장 백담
종도일동
▶ 경남 사천시 백천동 305-1
전화 : 0593-34-4328

대한불교 해동종
충북 종무원
종무원장 법운
종도일동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 24
전화 : 0434-32-8834

대한불교 해동종
경기 종무원
종무원장 담원
종도일동
▶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안중6리산5-2
전화 : 0333-82-8324

대한불교조계종
흑성산 **천불암**
매월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회 주 一古 · 起然
주 지 富佛 · 印鏡
사 무 장 황연선
관음회장 박영순
부 회 장 박돌선
권오자 , 김윤겸
총 무 정옥임
원 주 이윤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전화 (종무소) : 0417-557-3223 · 557-3506
주지실 : 557-1388 다례원 : 555-6550

대한불교 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인
신도회일동
● 법회안내 · 칠성회 : 매월(음) 7일
· 관음회 : 매월(음)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66-5
전화 : 062-375-7444

대한불교 천태종 **광주금광사**
주 지 양거광
신도회장 조기동
● 법회안내 : · 정기법회 : 매월(양력)18일 오전11시
· 임시법회 : 매월토요일 저녁9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577-8 (만호마을)
전화 : 062-375-3191~3

대한불교 조계종 **중 심 사**
주 지 영조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전화 : 062-226-0107

광주불교교육원
원 장 영조
● 광주불교문화대학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7-11
전화 : 062-228-9098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영조
임원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전화 : 062-376-3224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주 지 현지
신도회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062-262-0321

우신건축사 사무소
● 건축설계감리 ●
건축사 문근
직원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80
전화 : 062-525-3130, 512-1845
팩스 : 062-514-1404

풍산 한식 동(銅)기와
풍진상사
대표 이승진
직원일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79-9
전화 : 0342-713-5760
팩스 : 062-514-1404

대한불교 조계종 **선덕사**
주지 행법
신도회 일동
● 선덕사 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572-1
전화 : 062-263-4660 , 264-8024

(일식전문점)
금 송
대표 이금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522-22
전화 : 062-222-0408,223-0408

대한불교 조계종 **향 림 사**
조실 석천운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251-3
전화 : 062-375-7600
팩스 : 062-375-7603
광주불교대학 :375-7633
향림유치원 : 375-7604
향림사 신용협동조합 :375-7606
향림어린이집 : 375-7605

구산선문 최초가람
지리산 **실상사**
주 지 도 법
▶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전화 (실상사) : 0671-34-3031, 3380
팩스 : 34-3860~1
화엄학림 : 34-3860-1

대한불교 조계종 **종남산 송광사**
주 지 한지원
신도회장 이광영
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전화 0652- 243-8681 , 8091 , 244-7832

청소년 수련원
신 홍 사
주지 오성일
신도회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전화 : 0339-57-2695, 3916

대한불교 조계종
낙 산 사
주지 송지홍
신도회장 김관음행 (김 진)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진리 55
전화 : 0396-672-2447~8
팩스: 0396-671-1445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장이두
대중일동
신도일동
▶ 충북 청주시 우암동 산 14-1
전화 : 0431-56-6254

마이산탑사
주지 혜 명
신도회 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7번지
전화 : 0655-33-2900
0655-32-0652
0655-32-0072

태광건재
대표 이헌수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00번지
전화 : 0361-57-7373
문짝전문 (스킨, 원목, 사벌, 창문, 미닫이, 고급현관문 , 문틀 , 각종 건자재 일체)

아시아 관광
전무 편도순
▶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54-8
전화 : 0361-241-5200
팩스 : 0361-241-4200

명경유리
· 건축유리전문업체 ·
대표 신현석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87번지
전화 : 0361-55-3662

석 왕 사
주지 편백운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1가 78-45번지
전화 : 0361-51-5040

유아교육의 명원
불교유치원
원장 편백운
전화 : 0361-55-5040

강원불교 대학 총동문회
회장 이의재
전화 : 0361-51-5040

강원불교대학 제7기 학생회
회 장 전경상
부회장 박민효 · 편도순
전화 0361-51-5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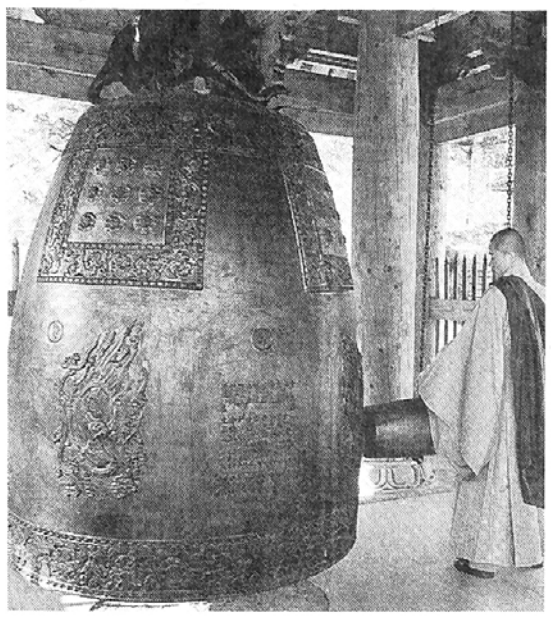
동 제 한 의 원
원장 이성모
▶ 강원도 춘천시 효자 1동 74-74
전화 : 0361-53-4577

청 풍 농 원
대표 김주환
▶ 강원도 춘천시 강촌리 642-1
전화 :0361-261-1129
(민박, MT, 조용한 카페)

현대불교신문 춘천지사
지사장 박민효
전화 0361-51-3539

홍 천 의 원
원장 김상옥
▶ 홍천군 홍촌읍 신장대리 185
전화 : 0366-434-2553

정축 새아침—금강산 최남단 **화암사**를 가다



◇새해 첫날, 통일의 대염원을 실은 범종소리가 한반도 곳곳을 향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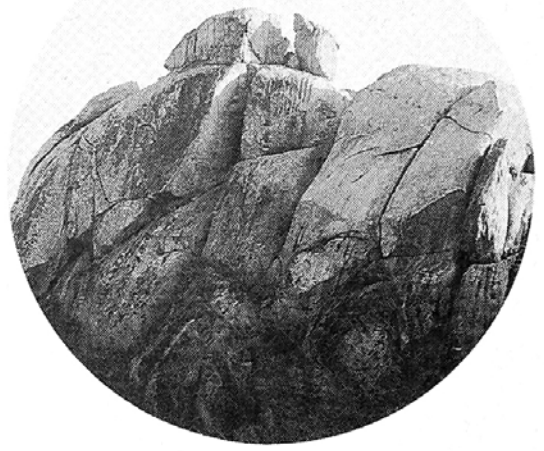
금강산의 남쪽 끝봉우리 신선봉은 남쪽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일만이천 봉우리의 첫봉이다. 저 먼 동해의 눈시린 침묵을 깨고 통일의 소식인 양 장엄하게 떠오르는 새해의 찬란한 햇살을 온 몸으로 맞아들이는 신선봉을 바라보는 실향의 불자들. 금강산 남녘 첫 자락에 자리한 화암사 법당에서 새해 첫날을 맞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을까.
〈편집자 주〉



◇금강산 남녘 첫봉우리 신선봉을 주봉으로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화암사는 통일염원 기도도량으로 실향민들의 발길이 연중내내 끊이지 않는다.

"통일 범종소리 신선봉 타고 북으로…"

전국서 실향불자들 모여 향수달래며 불공
신선봉 절경·금강계곡 물소리에 속진떨쳐



◇화암사 남쪽 300m 지점에 왕관모양의 우람한 수바위가 있다. 보는 위치에 따라 모습이 다른 이 바위는 마치 스님이 북녘을 향해 합장하는 형상을 보이기도 한다.

화암사 법당은 남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실향불자들로 가득했다. '새해에는 고향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결코 버릴수 없는 꿈. 고향에 가는 꿈을 한해가 저무는 마지막날 밤 고향으로 이르는 길목의 부처님 무릎 아래서 꾸고 싶은 마음이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이리라. 그리고 그들은 꿈을 현실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샜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강산 화암사. 해마다 정초가 가까워지면 화암사를 찾아 기도를 올린다는 칠순의 김두애심보살은 "북쪽이 가까워서인지 화암사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며 "머지않아 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도 화암사의 범종은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과 통일의 대염원을 실어 신선봉에서부터 일만이천 봉우리를 타고 북녘을 향해 장엄하게 울려퍼졌다.

밤새워 새날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불자들은 검은 실루엣을 벗고 동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힘차게 솟아오르는 찬란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성취와 통일을 발원했다.

금강산의 일만이천 봉우리가 남쪽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 내려오다 모든 위용을 맘껏 토해 낸 곳이 바로 신선봉. 화암사는 바로 이곳에 웅장한 모습으로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화암사의 새해 일출은 흔한 바닷가의 일출과는 또다른 감흥을 준다. 기암절벽으로 이어진 금강산의 기기묘묘함과 조화를 이루고 이곳을 찾아온 실향민들의 애틋한 향수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청소년 1천명 수계

해마다 새해 첫 새벽에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하는 주지 문석스님은 "화암사가 금강산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통일염원과 고향을 잃은 허탈한 향수에 젖은 실향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며 "오늘 이 법회가 통일기원법회로선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마치 북녘 땅을 밟고 있는 느낌이다. 실향민들 또한 화암사를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향으로 여긴다. 화암사를 찾아오는 실향민들도 한가족으로 어우러진다. 특히 새해벽두에 화암사를 찾아온 실향민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는 다르다.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바탕 털어놓고 싶은 얼굴들이다.

이런 실향불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문석스님은 법문대신 "신선봉에서 흘러내려오는 세진폭포물이 동해로 흘러 하나로 어우러지듯이 통일도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니다"며 함께 통일은 염원했다.

비록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땅은 아니지만 일만이천봉 금강산의 정기와 북녘의 정감어린 정취를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향민들은 신선봉을 바라보며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의 그날이 오기만을 부처님전에 기원한다.

올해로 20년째 화암사를 찾고 있는 이건실씨(59)는 "금강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법회가 봉행되고 있어 화암사를 찾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가족 친지들의 따뜻한 손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화암사는 새해맞이 타종법회를 시작으로 일년내내 통일기원을 위한 법회가 끊이지 않는다. 조국분단으로 50년 가까이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온 국민의 한을 부처님의 협력으로 풀어보려는 원력에서 부터 신선봉에서부터 화암사까지 이어지는 금강계곡도 비경을 이룬다. 물은 푸르다 못해 검고, 우렁찬 물소리는 찌든 속진의 때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미타암 앞의 세진폭포는 흰벽에 푸른물이 조화를 이뤄 사찰경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준다. 한마디로 금강산의 속살을 보는듯 하다.

신라 혜공왕 5년(서기 769년) 진표율사가 창건한 화암사는 초입부터 부도와 탑, 비가 즐비하게 놓여있어 선찰의 품위를 느끼게 한다. 특히 화암사는 광명, 승휘, 해성스님등을 비롯 역대 유명한 스님들의 수도장이었다. 지난 91년 세계잼버리 대회때 불교국가 청소년 1천여명이 수계를 받는등 1천6백년 한국불교를 소개함으로써 문화민족의 자긍심과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줬다. 통일이 되어 남북의 청년불자들이 이 도량에서 가슴을 터놓고 축제를 벌일 그날은 언제인가.

화암사는 1990년을 기점으로 대웅전과 명부전, 금강교, 금강루 평화통일기원길상 대범종 등을 낙성, 금강계곡의 운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뤄 국내사찰 가운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통일염원 기도도량으로 중수됐다.

또한 화암사는 어려서 건봉사 극락암에 입산해 수행하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처님을 등에 업고 피난을 하던중 적으로부터 흑독한 매를 맞고 허리를 다친 80고령의 노비구스님의 기도처로서 오랜 명목을 유지해 왔다는 일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역대고승 수도도량

신선봉의 자락이 동해로 향해 뻗다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수바위. 화암사 남쪽 3백미터 지점에 왕관모양의 우람한 수바위는 진표율사를 비롯 역대고승들의 좌선수도도량이었다고 전해진다. 또 바라다보는 위치마다 전혀다른 모습의 수바위 윗면에는 깊이 1미터 둘레 5미터인 웅덩이에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어 국내사찰의 7대불가사의중 하나로 꼽히며 가뭄이 들 땐 이 웅덩이의 물을 주위에 뿌리고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내린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마르지 않는 우물때문에 수바위를 '수암(水巖)'으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바위 모양이 워낙 빼어나기 때문에 옛부터 '수암(秀巖)'이라 불리워진다.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돼 백두대간의 큰 줄기를 이루는 금강산은 누구나 한번쯤 구경하고 죽기를 소망하는 한반도 제일의 명승지다.

해방직전만 해도 금강산에는 1백8개의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민족의 영산으로 받드는 금강산에는 유점사, 보현사, 장안사, 건봉사… 이름만 들어도 달려가보고싶은 도량이 있다.

그래서 수려한 산세와 명찰들을 찬탄한 선시가 많이 전해진다.

'옛날 금강산 정양사에 있을 때는 다같이 젊었는데/ 십년만에 만난 얼굴 모두 가을빛이구나/ 덧없는 인생은 구름비라, 바람따라 지나가고/ 도를 닦는 일은 허공꽃이라, 손대기조차 어려워라/ 골짜기의 심천 개울은 흰 비단을 펼쳤고/ 하늘끝의 봉우리는 옥을 세워놓았다/ 솔꽃과 연꽃있은 예와 다름없는데/ 금강산에 누워 가장 한가하구나.'

조선조때의 고승 편양선사가 금강산 정양사의 경금스님을 찾아가 읊었던 선시다.

금강산은 빼어난 절경을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고승들의 수도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이 갈려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수행할 수도 없다. 더이상 허리가 잘려진 금강산이 아니라 금강산 초입 신선봉에서 백두산 병사봉까지 마음놓고 유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잘려진 금강산 허리 이어
신선봉에서 백두산 병사봉까지
마음놓고 유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글=김중근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 · 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2.9%, 위궤양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지봉을 작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옥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 서울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 상식의 대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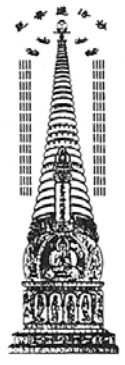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 × (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정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십시오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社團法人 韓國佛教宗團協議會

회 장 송 월 주

회원 일동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대표전화 : 732-4885
팩스 : 737-7873

韓國佛教太古宗

宗 正 鄭寶城
사서실장 송종연

總務院長 洪印谷
총무부장 이지성
교무부장 류우담
재무부장 우혜공
사회부장 편백운
규찰부장 현수열

中央宗會
의 장 이금담
부 의 장 김대운
류남파

司 正 院
부 원 장 이백우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대표전화 : 745-2030
팩스 : 745-6364

大韓佛教天台宗

宗 正 金道勇 大禪師

總 務 院
총무원장 田雲德
총무부장 김도원
교무부장 박덕수
사회부장 이문덕
재무부장 남궁도재
규 정 부 장 변춘광
교 육 부 장 김국성
종정사서실장 박법전

宗 議 會
종회의장 尹德山
부 의 장 김국성 부 의 장 김길두

監 査 院
감사원장 朱正山 감사위원 조진덕

參 議 院
참의원장 朴炯喆
중앙신도회장 金裕赫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
구인사전문강원 김지복
宗典역경원장 이창섭
宗典연구원장 김영태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 0444-423-7100~8
팩스 : 0444-20-3399

大韓佛教眞覺宗

總 印 覺 海
총인사서실장 烋明

統 理 院
통리원장 樂 慧
총무부장 진 산
재무부장 혜 인
홍교부장 덕 혜
건설부장 대 경

教 育 院
교육원장 省 超
교법부장 혜 정
교육부장 관 증

宗 議 會
의 장 慧 一
부 의 장 일 정 · 복선정

査 監 院
사감원장 眞 堂 사감부장 혜 명

眞 覺 大 學
학 장 省 超
교무부장 의 현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913-0751-3
팩스 : 915-6032

財團法人 大韓佛教觀音宗

宗 正 金大天

총무원장 李烈坡
총무부장 김지섭
교무부장 황법명
재무부장 김경철
사회부장 김성철
포교부장 정법성
조직부장 이종현
원노원장 이혜웅
종회의장 정법륜
부 의 장 신무본 · 정춘담
교육부장 김동령
수교부장 홍지묵
역경부장 오혜원
감찰부장 김화엄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763-3109 · 3345
팩스 : 763-5851

佛教 總指宗

종 령 록 정 (綠 淨)

통리원장 法 空
총무부장 원 봉
재무부장 원 송
사회부장 혜 암
교정부장 사 홍 화
기획국장 지 성

법장원장 曉 岡

종의회의장 松 霞
부 의 장 우 승

사감원장 總持花
서울 · 경기 교구장 경 관
부산 · 경남 교구장 의 강
대구 · 경북 교구장 수 성
충청 · 전라 교구장 법 수 원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팩스 :02-552-1082

大韓佛教 總和宗

宗 正 李東光
사서실장 남원우

元老院
원로원장 김 야 옹
원로부원장 박용운 · 최혜산

總務院
총무원장 전남정
총무부장 이만오 재무부장 이금오
사회부장 박시균 조직부장 황성문
규정부장 김혜암 교무부장 장일봉

종회의장 김필담 종회부의장 김혜보

감찰원장 장혜운
감찰부장 백동오 조사부장 최해정

교육원장 정혜안 교육부장 류정우
호계원장 양영수
포교원장 박청해 포교부장 조성부

문화원장 이정송 문화부장 이법해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93번지
전화 : 742-8895, 8896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석 봉

원로원장 인 현
종회의장 성 타
사정원장 선 기
포교원장 대 원
복지봉사원장 성 용
연수원장 경 오
문화예술원장 원 표
총무원장 송 산
부 원 장 법 성
총무부장 경 신
교무부장 진 웅
사회부장 혜 월
사정부장 상 오
포교부장 혜 오
사서실장 보 성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전화 : 0331-262-1577 · 263-1353
팩스 : 262-1577

대한불교화엄종

종 정 한 구 하

의 장 정 희 수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산21
전화 : 032-422-2066~7
422-0413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장학회

이 사 장 정 희 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 B/D 101호
전화 : 02-730-0798~9
팩스 : 02-722-3205

대한불교진언종

종 정 육 자

원로원장 현 주
원 로 제 산
원 로 석 암
종리원장 직무대리 금 광
종회의장 법 륜
호법원장 국 복
감사원장 혜 공
재무부장 종 밀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52-2
대한불교진언종 종리원

전화 : 967-2479
팩스 : 968-3350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명예회장 월탄
고 문 호진, 지하
직전회장 암도

회 장 혜총
수석부회장 원성
부 회 장 장산, 일우, 지홍, 삼지
감 사 정덕, 일면
기획실장 동성 장학포상분과위원장 월탄
사무총장 지원 종책연구분과위원장 보광
총무부장 도광 통일인권분과위원장 진관
섭외부장 이정 포교연구분과위원장 성열
조직부장 도진 복지문제분과위원장 시현
재무부장 종림 재가법사분과위원장 원명
문화부장 상덕 동국학원중흥위원장 원성
사무국장 선종 〃 부위원장 법장
〃 간사 법안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동 1506호
전화 : 02-723-5264/ 736-6203
팩스 : 736-2365